

인천교육

2013 여름호 VOL.48

개원 30주년 기념 특집

사진으로 보는 교육과학연구원 30년사
인천교육과학연구원 회고기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 바란다

기획 특집 I

잠자는 교실을 희망의 교실로 만드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혁신하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수업 장학 방안
배움중심 수업의 실천을 위하여

기획 특집 II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지도
술선동행나눔의 까치굴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의 꿈나무
사할린동포 자서전 써주기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C.O.N.T.E.N.T.S

004 [발행인 칼럼] 교육이란 무엇인가?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이상목

교육시론

006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의 인성교육과 과제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신중호

015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이선철

기획특집 - I

잡자는 교실을 희망의 교실로 만드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024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혁신하다 | 배움의공동체연구회 대표 손우정

038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수업 장학 방안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오현주

045 누리 교육을 통한 배움의 공동체 실천 사례 | 인천고잔유치원 원장 유애자

052 배움의 공동체를 만나다 | 인천장수초등학교 교사 함유숙

058 배우는 아이는 무너지지 않는다 | 남인천여자중학교 교사 남궁숙

064 배움 중심 수업의 실천을 위하여 | 경기도 권선고등학교 수석교사 강기룡

기획특집 - II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지도

072 술선,동행,나눔의 까치골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 인천작전초등학교 교사 강효진

077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의 꿈나무 | 인천하이텍고등학교 교장 허훈

082 사할린 동포 자서전 써주기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 인천고잔고등학교 교사 김석훈

개원 30주년 기념 특집

088 [사진으로 보는 인천교육과학연구원 30년사]

094 [인천교육과학연구원 회고기]

다시 돌아보는 연구원 시절 | 전)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 이기문

098 교육과학연구원 30 주년을 기리며 |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장 이평윤

102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 바란다]

기획연구평가부에 바란다 | 전) 강화교육장 진익천

106 "교육정보화의 허브" 교육정보자료부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직업교육과 장학관 김태민

112 인천학생과학관에 바란다 | 인천고잔고등학교 교장 김기룡

총괄

• 기획연구평가부장 이상미

자문위원

• 교육연구사 김미경, 정현주, 조양숙

기획

• 교육연구사 심규민

편집위원

• 인천용마초등학교 교사 김병수

• 영종중학교 교사 남일성

• 연성중학교 교사 최남현

•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채송화

■ 교육현안과제의 이해

- 118 ●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좋은 수업의 이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곽영순
- 124 ● 역량중심 성취평가제의 이해와 적용 방안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배경자
- 131 ● 교과교실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최영선

■ 파워인터뷰

- 139 ● 교사, 교사를 만나다 <계양고등학교 교사 지세훈> | 계산고등학교 교사 김종해

■ 정보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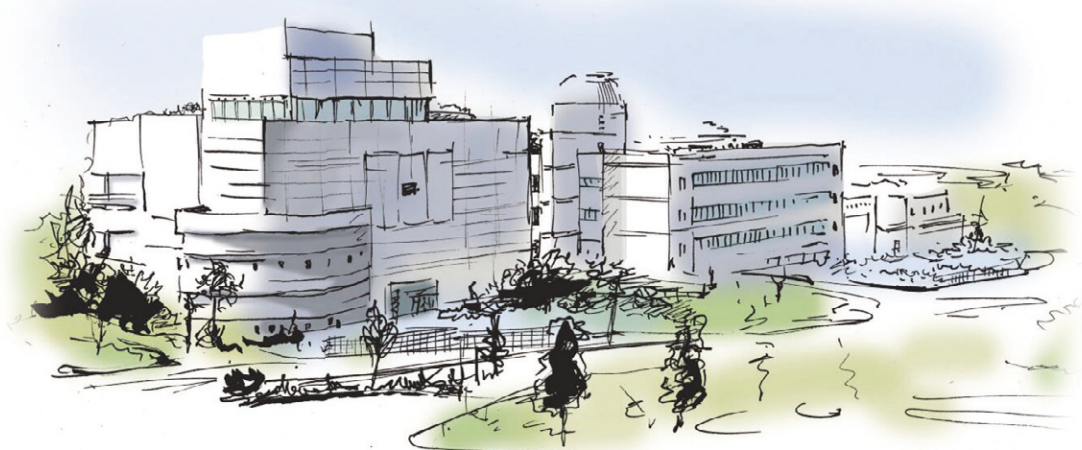
- 146 ● [학습연구년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보석같은 시간 | 인천부원초등학교 교사 정인숙
- 150 ●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길, 수석교사를 말하다 | 인천문학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정숙
- 156 ● 학업성취 우수 일반고의 특성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선주

■ 현장르뽀

- 161 ● 전국 최초 다문화 대안학교 한누리학교 방문기 |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채송화
- 167 ● 청라달튼 스쿨 이근혁 선생님 수업 참관기
지적호기심과 열정을 자극하는 프로젝트 수업 | 연성중학교 교사 최남현

■ 참여와 어울림

- 174 ● [시] 말의 꽃/ 쓰레기 | 광성고등학교 교사 최성민
- 176 ● [교단수필] 인생의 터닝포인트 | 인천청량초등학교 교장 이기소
- 178 ● 네 잎 클로버 편들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장학관 김윤성
- 182 ● [그림] 사나사 정원/ 금당계곡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이철희
- 184 ● [사진]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생활 사진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지원과 정보보호팀 대리 김성수
- 188 ● [나를 바꾼 한권의 책] - 공직자의 동반자 목민심서 | 인천굴현초등학교 교장 김정제
- 194 ● 인천교육 47호를 읽고 | 인천심곡초등학교 교사 이주형 | 인천정각중학교 교사 안지연



교육이란 무엇인가?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

이 상 목

일전에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즉석퀴즈 즉, ‘교육이란 □□이다.’에서, 빈 네모 안에 적절한 2음절 단어 넣기를 제안하면서 필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분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 다분히 주관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동석한 분들 제각기 개성적인 답을 내놓았는데, ‘변화’, ‘관계’, ‘감동’, ‘학생’이라는 단어였다. 여기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까지 듣고보니 하나하나가 자신의 교육철학을 담은 훌륭한 답이었다.

‘변화’라 답을 내놓은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변화가 없다면 교육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학생이 타고난 잠재적 재능이 있다 해도 어떤 교사에 의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사뭇 달라진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일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라 인간 삶의 질이 달라지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변화가 갖는 교육적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되어 고개가 끄덕여졌다.

반면 ‘관계’를 선택한 이는 학교교육활동의 핵심이 수업인데 수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 바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게다가 인간의 삶은 죽는 날까지 관계맺기의 연속이며 그 범위 또한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세상의 참된 지식, 자기 몸과의 건강하고 원활한 소통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때 이 속에서 관계의 질은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즉 공생보다는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른 나눔, 양보, 배려의 부족 그리고 학교폭력, 청소년자살률, 학업중단학생률 증가와 교육공동체간 첨예한 갈등, 활기를 잃어버린 교실 등 이 모든 것이 바람직한 관계의 실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이어서 ‘감동’을 선택한 이는 학교교육이 수없이 많은 교육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만 실제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을 수반한 경험이며 또 이런 경험은 학생의 삶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누구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하던 일들을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합심 협력하여 가능으로 이끌어낸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그런 일들은 항상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하고 그리고 따뜻한 힐링을 주고 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학교에서는 ‘감동’을 이루어내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필자의 마음속에 있던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위에 제시된 교육의 여러 의미, ‘변화’, ‘관계’, ‘감동’, ‘학생’ 모두를 아우르는 바탕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 없이 학생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랑은 모든 활동의 기본 에너지원이기에 그런 것이다. 특히 교실 속 학생들은 제각기 다른 특성과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고 개인 간 교육에 바라는 기대치가 다양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과 시설, 기자재와 인적자원이 있다면 구성원 간 사랑이 없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모든 교육활동에는 우선 사랑이 숨 쉬어야만 한다.

인천교육 제48호는 앞서 언급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배움의 공동체 수업,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지도를 특집으로 다루었고,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길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았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문자답의 계기가 되길 염원해본다.

끝으로 사족을 더하면, 서두에 이야기한 퀴즈의 상품은 ‘학생’이라고 말한 분에게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가 현재 학생을 가장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의 인성교육과 과제



글 > 신종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우리 사회의 경우 공동체적 가치가 개인주의적 가치로 전환되고, 양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로 가정교육이 어느 때보다 약화되고 있으며,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성교육을 학원에서 한다?

얼마 전 한 뉴스에서 웃지 못 할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입시에 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이를 대비하는 인성교육 전문학원이 등장했다는 뉴스였다. 인성 면접에 대비해서 단기간 속성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찔할 따름이다.

이 같은 세태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공부를 위해 무엇이 든 용인되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전인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입시를 향한 지식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육, 인성을 이야기하지만 학력저하를 더 우려하는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이 단

편적으로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의 처참한 현실의 단편이기에 우리를 침울하게 한다.

공동체의 위기와 인성교육

인성교육의 위기는 공동체의 붕괴로부터 그 본질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 사회공동체, 가족공동체, 학교공동체가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데, 우리의 현주소는 어떤가? 우리 사회의 경우 공동체적 가치가 개인주의적 가치로 전환되고, 양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로 가정교육이 어느 때보다 약화되고 있으며,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와 자살 소식은 뉴스의 단골 소식이 된 지 오래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칼부림 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신문 사회면에서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넘쳐난다.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 입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청장년들은 실업과 빚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인들은 생존 자체가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 계층의 일원 중 누구 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듯하다. 이들 현상들은 성공만을 위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성공과 물질을 향한 가치관은 개인의 평가 기준도 바꾸어 놓고 있다. 얼마 전 결혼 적령기 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조건을 많이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 여성들은 남성의 경제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미나 유럽지역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물질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설 곳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며 진정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점차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우리 사회의 변화는 인성교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아닌 ‘나’만 잘 하면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자라고 있다. 최근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부모’라는 신조어가 널리 퍼져있는데, 이는 평생을 자녀 주위를 맴돌며 자녀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발 벗고 나서며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엄마들을 지칭한다. 헬리콥터 맘은 착륙 전의 헬리콥터가 뿔어내는 바람이 거세듯 거센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자녀 주위에서 맴도는 어머니를 빗댄 용어다. 어릴 때부터 학습 매니저의 역할을 도맡았던 헬리콥터 맘은 대학교에 들어간 장성한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참견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숙제를 대신해 주거나 학교 측에 사사건건 간섭하기도 하며, 더욱 심하게는 자녀가 사회인이 되어 취직을 할 때조차 자녀의 경력관리에 나서고 부서 배치를 조정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헬리콥터 부모를 둔 아이들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슬픔을 잘 느끼고, 체중이 더 많이 나가며, 역경을 견뎌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2011년 노스캐롤라니아 주립대학 연구에서는 부모가 근처에서 맴돌며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아이들이 덜 활동적으로 논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최근 미주리대학 연구진은 부모가 아이의 놀이를 하나하나 지시할수록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표출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Skenazi, 2013). 이런 연구 결과들은 부모가 자기 자식만이 최고인줄 아는 것이 사실은 자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 모든 것을 할 태세이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약화시키고 개인주의를 더욱 팽배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만들기 인성교육의 시작: 공동체의 기능 회복으로부터
부터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사회, 학교 공동체가 제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들 공동체가 제 기능을 회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덕목과 윤리인식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고액 과외를 통해 미국 수능시험인 SAT 문제를 빼돌려서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심지어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원정출산부터 위장이혼과 결혼까지 서슴지 않는 현실을 보면, 이러한 사회공동체와 가족공동체 붕괴 현상이 인성교육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한다.

우리 학교공동체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소위 ‘학교붕괴’로 불리는 공교육의 위기 상황은 한국교육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학교 구성원간의 신뢰가 붕괴되어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쉽게 학교 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현주소다.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수업중인 교실에 찾아가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가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이 되기도 하였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해 불행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선단체인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비키 필립스 교육국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것은 교육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빈민가 아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학교다. 자퇴하는 학생들을 교실에 붙잡아 두고 빈민가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올려 주는 등 이 모든 게 교사에게 달려 있다.”고 밝히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이 문제 역시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탈선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율성을 주고 건전한 또래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사의 역할이 올바른 ‘사람 만들기’ 인성교육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교권의 추락과 무너진 학교공동체의 모습은 ‘사람 만들기’ 인성교육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사람 만들기 인성교육의 시작: 공동체의 기능 회복으로부터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사회, 학교 공동체가 제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들 공동체가 제 기능을 회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덕목과 윤리인식을 기반으로 한 인성 교육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 가족 공동체적 가치 회복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의 공동체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아버지 학교’다. ‘아버지 학교’는 가정에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아버지와 가족들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고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에 의미를 갖는다. 평소 쑥스러움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버지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가족들 또한 아버지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가족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우리는 가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학교’ 정신을 바탕으로 실제 충북 도교육청은 ‘청소년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도내 15%인 71개교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과천시에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좋은 아버지 모임’ 등 아버지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버지의 가정 내 위상을 높이고 가족들과의 교류도 확대하는 것은 가족공동체 회복을 통한 인성교육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소년 저널(Journal of Early Adolescence)’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들의 끈기를 키워주는 데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 아버지로부터 끈기를 배운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참여도도 높고 비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바른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합리적이고 신뢰에 기반을 둔 양육 태도가 학생들의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Padilla-Walker, Day, Dyer, & Black, 2012).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가정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올 바른 가정을 구성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며, 이에 더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믿는다.

2. 사회 공동체적 가치 회복

가족공동체의 가치 회복 노력과 함께 최근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동’을 찾아볼 수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마을공동체 운동의 결실들이 최근 공동육아, 공동교육 등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공동 모금을 통해 마을

도서관을 건립하는 마을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마을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마을 공동 사업을 하거나, 돌아가면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를 통해 마을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각종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사회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공동체 운동들이 확산될 때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 됨됨이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의 사회적 기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집안의 어른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옛날처럼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는 마을의 어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학교 공동체적 가치 회복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존경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교사 자신들도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와 협동 의식을 가지고 학교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지 않으면 인성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의 학교공동체 회복을 통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실천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학부모-학생으로 구성된 교육의 세 주체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월례회를 개최하고, 세 주체가 함께 참여해 학교 생활 규정을 제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아리와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면서 나눔과 어울림의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학교에서 개최하는 걷기대회를 열어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학교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도와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 교육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공동체적 정신의 회복은 학교 인성교육의 희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

공동체 회복 이후 사람 만들기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1. 자기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발달심리학자 에릭슨은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자기정체성이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기정체성이 제대

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 집단동조나 무조건적 복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과 방관의 문제도 자기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해 나타나는 집단동조와 무조건적 복종문제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이 혼자 방치되고 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은 가해학생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암묵적 동의자가 되며,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의 심적 고통을 더욱 심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명령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August_Landmesser

올바른 행동에 있어 자기정체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위 사진에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 있는 남자는 아우구스트 란트메서(August Landmesser)라고 밝혀진 사람이다. 모두가 나치에 열광할 때 자신만의 방법으로 묵묵히 반감을 드러낸 사진이 후에 신문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그는 유명해졌다. 위 사진은 1936년 6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해군 훈련함 진수식 현장을 촬영한 사진으로, 나치당이 집권하고 있던 당시 행사장에 모인 군중들이 하나같이 나치식 인사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독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만이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팔짱을 낀 채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유태인 대학살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이 행동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경우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인성교육

우리 주변에서는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를 지향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자신의 일생을 바쳐 의료 봉사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희망을 전해 준 요한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다. 이렇게 한 개인이 자신의 이해나 평안을 넘어 더 큰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해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인성교육의 방향이어야 함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황제팬권들은 남극의 겨울을 이겨내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서로의 힘, 즉 공동체의 힘

을 빌린다고 한다. 추위를 막기 위하여 원을 만들어 겹겹이 무리를 쌓고, 서로 번갈아 가며 원 밖으로 나가서 온 몸으로 극지방의 찬바람을 막음으로써 전체가 모두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난다는 것이다. 제일 바깥에서 바람을 막아내는 자신의 차례가 끝나면 안에 있는 다른 펭귄들이 다시 가장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막는다고 한다. 이처럼 황제펭귄들은 공동체를 위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 살아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듯 우리도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아닌 우리를 더 가치롭게 여기도록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한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닌 전체가 같이 사는 것이요, 개인이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인 것이다. 인성교육은 자기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공동체 추구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지 자신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더불어 발전해가는 온전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다.

3. 정서지능 및 타인에 대한 배려 함양

인성교육의 또 다른 한 축은 정서지능 및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함양하는 것이다. 타인과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 및 조절 능력을 정서 지능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 또한 높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하버드 대학 최초의 여성학 교수인 캐롤 길리건은 인간관계의 보살핌, 애착, 책임을 강조하는 대인지향적인 도덕성을 제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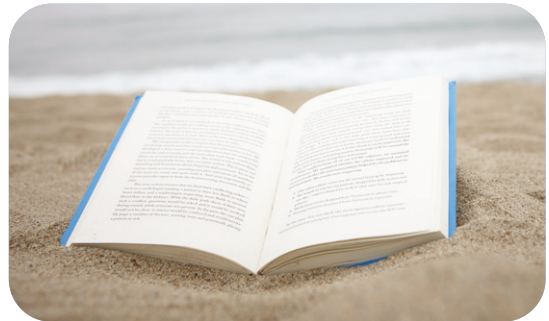
얼마 전 알려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의 헌신적인 학생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 서울 성사중 3학년 2반 담임인 김기태(55) 교사는 지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무단결석을 밥 먹듯 하는 A양을 매일 집으로 데리러 가서 함께 등교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소위 ‘문제아’였던

A양이 이번 학기에는 결석이 단 한 번에 그치는 등 착실한 학생이 되었다. A양은 처음에는 선생님이 부담스러웠으나 자신에게 믿음과 배려를 손수 몸으로 보여주는 선생님 때문에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해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들은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많이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몇 년 전 90회 생일을 앞둔 기념 강연회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인간 가치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간의 최고 가치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꼽았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때 진정한 사람 만들기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4. 정직과 책임감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공허함을 느낄 때 중 하나가 바로 국회 청문회를 볼 때이다. 사회 고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끝없는 비리와 변명,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과 실망을 느낀다. 처음부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자세는 잘못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정직한 자세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정직한 삶의 자세와 함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정조의 신임을 받은 청백리 이주국 장군의 일화를 생각해 본다. 이주국 장군은 군대의 대오 관리를 위하여 늦잠을 자고 오는 군사들에 대하여 곤장 1대를 치는 벌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군사 한명이 곤장을 맞고 죽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 이주국 장군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군사의 죽음을 무시하지 않고 “군율을 행하다 일어난 일이니 내가 가족을 돌보겠노라.”하고 죽은 군사의 식솔들을 거두어들인다. 10년 후 죽은 군사의 아들이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고 이주국 장군을 상대로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10년간 이주국 장군의 진솔함과 은혜에 감복하여 원수를 갚으려던 마음을 접고 감사를 고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다 한다면 그 자체로서 중요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인성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5.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인성교육

마지막으로 신용을 중시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불신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회에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선 후기 독립 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남강 이승훈 선생의 일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신용의 중요성을 잘 이야기 해 주고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열심히 일하던 이승훈 선생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고향 선배를 찾아가 돈을 빌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청일전쟁이 터지고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제 날짜에 갚을 수가 없게 되자, 이승훈 선생은 선배를 찾아가 사죄하며 차용증을 적어서 건넸다고 한다. 이를 본 선배는 이 난리 통에 가게가 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나 이렇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이승훈 선생 말고는 아무도 없다며 더 큰 돈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돈을 얼마든지 빌려 줄 수 있다는 것이 선배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승훈은 후에 장사를 다시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선배에게도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김기석, 2005)

이렇듯 신용과 약속은 언제나 지켜야하는 것임에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신용을 지키는 개인을 키워낼 수 있는 인성교육이 꼭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마치는 말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세 요소가 모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기여하고 밀접하게 서로 협력해 나아가 할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가정-학교-사회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 인성교육의 희망을 보게 된다. 가정과 학교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동서양 고전읽기 동아리,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 예이다.

개인주의 가치가 지배적인 미국의 인성교육도 자신을 둘러싼 주변 공동체(학교를 벗어난 지역사회)에 자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캠페인, 지역 인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깨닫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회 제공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와 연계하여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직접 감성코칭 연수를 받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인성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충남의 한 학교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모두 참가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학교 구성원 전체의 교육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가정공동체, 학교공동체, 사회공동체의 기능을 각각 강화하고, 나아가 가정-학교, 학교-사회, 그리고 가정-사회 공동체 간의 연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성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학교-사회라는 3개의 주체가 모두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글 > 이선철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평창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



문화 융성이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과 향유, 유통과 교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문화의 고유 가치와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다른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창조 역량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다.

문화의 융성

우리는 창조경제, 창의교육 등 유달리 창조와 창의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문화융성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어 과거 어느 때 보다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문화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첨단 기술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문화’는 무엇이며 게다가 ‘문화융성’이란 과연 그 실체적 개념이 무엇인가, 어떤 수준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또한 문화와 예술은 어떻게 다르며 이전의 ‘문예진흥’이나 ‘문화발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도 궁금해진다. 문화시설과 문화행사가 증가하며 한류의 열풍이나 문화관련 예산 증가가 문화융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비전들이 문화의 가치나 역할의 중요성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준이 높은 상태를 지향했다면, 이제는 문화예술의 가치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사회 곳곳의 다양한 영역으로 촘촘히 스며들어 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문화융성이란 ‘문화예술 및 관련 분야에서 창작과 향유, 유통과 교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문화예술 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 문화가 정치나 경제, 복지나 교육 등과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창조적 역량을 높이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문화를 위한 환경

그러기 위해서 예술가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은 청소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충분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가 교육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개인의 인성 계발 및 정서 함양, 협동심과 리더십 함양, 직업적 창의성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문화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 자존감과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발휘하는 매개이다. 따라서 전통과 유산을 보존하고 재생하며 그 가치를 지켜 나가는 노력이 존중되어야 한다. 도시나 농어촌 공히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문화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에 있어서 물리적인 개발과 함께 정신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언제라도 이용

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단위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지역기반의 예술가나 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야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순수예술에서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산업과 시장을 충분히 갖춰야 하고,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의 개발과 권리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생존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지역의 현실에 맞는 문화정책과 사업들이 시행되고, 도시 마케팅이나 국가브랜드 제고에 문화가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문화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창의성과 상상력이다. 창의성은 감성과 이성, 지식과 지혜의 결합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감과 직관, 상상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구현되었을 때 사람들은 일과 삶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행복해 질 수 있다. 특히 요즘 강조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자연에로의 모방이 핵심인 문화예술과 자연으로부터의 영감이 요체인 과학기술이 결합하여,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 기존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의 개발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문화를 가까이 할 수 있고 창의성 교육의 도구로 문화예술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상과 업무에 창조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인성의 계발과 정서의 함양을 충분히 이룰 수 있고 문화적인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문화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 자존감과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을 포함한 중소도시에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으로 문화예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나타내는 유효한 수단으로 문화가 쓰이고, 지역발전

의 동력으로 문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문화예술 도시라는 자부심이 충만해야 한다.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및 행사가 적절히 확보되고 지역단위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위한 기회가 많으며, 지역기반의 예술가나 단체들의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른바 문화 선진국들은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가 높은 수준이며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국가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문화예술 분야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순수예술에서 문화예술 산업까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문화적 인프라의 확충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의 지자체의 협력이 균형 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시설에서 시민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은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 지자체의 적절한 정책 그리고 전문가들의 역할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산물이다. 지역사회 발전은 시설이 많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예술가가 넘쳐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예산과 조직이 크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이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에 고르게 스며들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조도시론'의 확산이다. 이 분야의 대표적 학자는 찰스 랜드리와 리차드 플로리다, 마사유키 사사키이다.

처음으로 창조도시론을 주창한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창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술과 문화의 창조적인 힘을 믿으며 창조적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 창의적 사고와 계획, 활동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수행되며 개인의 자질, 의지, 리더십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창의적 조직문화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



이 살아나고 도시의 공간들이 연대구조를 가짐으로 동태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그의 저서 *Rise of Creative Class*에서 창조계급을 언급하며 새로운 계급의 부상을 이야기 한다.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노동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강도 높은 업무환경을 마다하지 않지만 문화를 즐기며,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건강, 여가, 교육 등에 관심이 많은 계급이라고 소개한다. 또한 창의적 경제활동을 위한 창조계급들이 얼마나 도시산업구조에서 창의적 성과물을 내는가에 따라 도시성장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대표적 창조도시론자 마사유키 사사키(Masayuki Sasaki)는 한걸음 더 나아가 창조하는 도시를 표방하고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이 탈 대량 생산적이고, 혁신적이며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술가, 창작자, 시민이 연계된 창의활동은 혁신적인 창의 산업을 일으키고 나아가 환경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자연으로부터의 영감을 통해 예술과 과학의 조화를 체감하게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은 여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문화 그리고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어릴 적부터 자연을 접하게 하고 다양한 예술을 체험하게 하며 이를 통해 여러 방법으로 적용해 보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학습 증진에 활용하고 직업의 진로에도 현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적절한 비전을 가꾸어 나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의 태동과 변천

한 도시와 국가가 문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전략과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동력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지만 이를 통합하면 다른 관점과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예술적 기량을 연마하거나 전문 예술가가 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자아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통합적 사고와 다양성의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며 창의적인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발적인 과정 중심의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은 허버트 리드(Herbert Read)이며, 존 듀이(John Dewey)를 비롯한 많은 국내외의 학자들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총리실 산하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 계획」이 상정되고, 문화부와 교육부의 MOU 체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과 신설,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에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시작으로 많은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현재도 전국 초·중·고의 40%에 이르는 5,000여 개 학교에 4,000여 명의 예술강사들이 파견되어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을 활용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선도학교나 예술 꽃 씨앗학교 등의 특화사업과 문화예술분야의 교원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명사를 활용한 명예교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문화예술 교육 수혜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어릴 적부터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 특히 주5일 수업제에 따라 실시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인성과 창의성, 리더십을 증진하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소외감의 해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창조적인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소양을 닦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용

문화는 더 이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거나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이 있는 애호가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요소이다. 특히 문화는 문화의 향유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회취약계층들에게도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훌륭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 복지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으며 문화취약 대상인 장애인, 재소자, 군인, 다문화가정, 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다. 아울러 노숙자나 실업자들에게도 문화 프로그램은 재활과 치

유의 도구로 새롭게 그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문화예술 인력양성과 교육은 이제 학교를 벗어나 기업이나 지역사회, 각종 전문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나 기업 임직원 교육에서도 문화 예술 교육 방법들이 선호되고 있다. 자신의 업무에서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소재의 축제가 늘어나고 있다. 수산업의 예선이 드는 대규모 관광축제나 전문적인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축제도 있지만 점차 지역단위의 축제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만이 아니라 농어촌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즐기고, 주민간의 교류와 소통의 계기도 되며,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지역 축제의 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마다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문화, 문화재 등 유무형의 역사자원들은 그 지역의 정신이자 정체성의 원천이다. 국가단위의 문화재들은 정부의 몫이라 하지만 지역단위의 문화재들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보존 계승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 속에 계승되어 내려오는 민요나 농악, 연희 등은 지역의 지적 문화 자산 관리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를 활용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의 전통문화를 자발적으로 계승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음식이나 주거, 생활양식, 디자인, 언어, 기질 등 우리 주위의 모든 분야가 문화 영역이자 자원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및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살아있는 문화의 활용은 주민 자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고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 생활문화공동체나 일상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른바 수월성을 전제로 하는 고급문화의 향유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다. 문화예술교육은 그 중심에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연고로 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 조성, 프로그램 지원, 마케팅 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거나 외부의 예술가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정주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도 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지역의 예술가들은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복지 등의 영역을 개척해 볼 수 있고, 지역의 예술가가 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산업의 전 분야에서도 창의적인 발상과 구현이 사업과 상품 자체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디자인, 발상, 마케팅, 고객 등 전 분야에서 문화경영과 창의경영이 강조되고 있으며 창조경제의 본질을 구현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 농수산업의 활성화에도 활용되고 있다. 결국 이런 시도들이 일회적인 이벤트나 판촉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된다면 채용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문화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활용 영역에서 여러 국가적 정책이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 역시 창의적인 인재를 얼마나 육성하고 활용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선진국이 어릴 적부터 다양



한 방식과 방법으로 교육에 예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창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이다.

과거 입시나 경쟁위주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육계에서도 혁신적인 변화의 방법을 문화예술에서 찾게 된다. 문화예술교육에서 많은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양한 환경이 고려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한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곳은 학교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문화예술 활동이 반드시 미술, 음악시간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방과후 학교나 토요교실, 방학,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 과목에서도 문화예술을 활용한 수업이 강조되어야 한다.

각종 대안학교나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에도 문화예술교육이 활용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 아닌 베네수엘라 같은 국민의 대부분이 극빈층인 나라에서 마약과 폭력으로 찢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를 활용하여 교화에 성공한 사례나 록밴드, 요리, 춤, 게임, 영화 등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에게 치유와 재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도 문화예술교육의 힘이다.

성공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제들

성공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에 현장의 상황이 잘 반영되도록 하고 수립된 정책과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많은 교육 현장에서 자신들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지 학교에서 미술, 음악시간을 늘리거나 꼭 어떤 형식을 띠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학교가 문화예술에 대한 호의와 믿음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이다. 방과후교실이나 체험학습 여가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대세는 정규교과에 문화 예술 교육적 방법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기본적으로 문화와 교육이라는 두 영역에서의 독립된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 어느 분야보다도 복합적이고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의 직제도 교육과 문화를 묶어 놓았을 정도로 각 영역간의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 이는 문화정책, 예술정책, 교육정책에 아울러 미래정책, 복지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정책의 수립에 현장의 상황이 잘 반영되도록 하고 수립된 정책과 관련 사업들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에는 전략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에도 현실적인 전략과 이의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수혜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 문화 예술 전문가와의 협업, 적절한 장르의 선택, 통합적 방법의 시도, 전문적인 교안과 수업경영 준비, 각종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확보, 지역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에서 현실적인 전략과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예술가, 대학의 예술 전문 강사, 기획자,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학부모, 저명인사 까지 긴밀히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특정한 자격이나 전문적인 인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누구나 적절한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으면 개방적으로 참여하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각종 일반적인 시설들도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미술관이나 게임방, 공연장, 학교 박물관 등의 문화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교실, 복도, 운동장 등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환경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가 처한 환경이 다르니 각자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생태적 환경이 풍부한 곳은 그 장점을 잘 살리되 그렇지 못한 도시의 학교들은 각종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도시에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자연 체험의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 밖의 문화시설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및 각종 역사 유적지와 일상 공간들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중요한 시설들이다. 이러한 시설들이 공연이나 전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종 역동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교실 안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성공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한 지역, 한 학교의 성공사례가 모든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활동 과정, 지역적 특성, 시행착오나 성과들이 공유된다면 불필요한 낭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과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꿈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과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대단히 효과적인 도구이자 방법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주민, 지역 예술가와 대학의 예술 전문 강사가 모두 협력하여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

세상이
조행복
1인 너아
난 더무
행복해

한빛 이희구



[교육기부 1]

기획특집 I

잠자는 교실을 희망의 교실로 만드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혁신하다]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대표 손우정

-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 수업 장학 방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오현주

- [배움의 공동체 수업 우수 실천사례]

-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통한 나눔교육 실천사례

인천고잔유치원 원장 유애자

- 배움의 공동체를 만나다

인천장수초등학교 교사 함유숙

- 배우는 아이는 무너지지 않는다

남인천여자중학교 교사 남궁숙

- 배움 중심 수업의 실천을 위하여

경기도 권선고등학교 수석교사 강기룡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혁신하다 1



글 > 손 우 정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대표

배움의 공동체, 교사로부터의 혁신

최근 전국적으로 수업혁신이 한창이다. 수업을 포기한 아이들이 배우는 교실, 교사들이 동료성을 중심으로 손잡는 학교. 바로 배움의 공동체가 심은 희망이다. 지금 ‘배움의 공동체’는 많은 교사에게 실천 가능한 개혁의 단어로 회자되고 있다. ‘배움의 공동체’를 창시한 사토 마나부 교수는 진정한 교육개혁의 원칙을 ‘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심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에서 찾고 있다.

교직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생이 학습권에 기초하여 자신의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

학생과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보장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대하는 ‘배움의 공동체’로, 열린 네트워크 구축

매년 위로부터의 교육개혁, 학교개혁에 시달려 오던 교사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가르치는 일에 도전할 용기를 주었다. '교직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사들로부터의 개혁, 교실에서의 다양한 실천사례가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배움의 공동체'에 대한 호기심과 충격은 2002년부터 일본의 실천학교 탐방으로 이어졌다. 교사들의 요청으로 매년 1월이면 우리나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본 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수업을 관찰하고 배움의 공동체 주창자인 사토 마나부 교수(전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현 일본 학습원대학교 교수)로부터 직접 배우는 연구회를 마련했다. 이 탐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일본의 실천학교를 방문한 우리나라 교사 및 교장, 교육 행정가는 무려 1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교사들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배움의 공동체' 만들기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배움의 공동체'를 학교개혁의 실천개념으로 제일 먼저 받아들인 곳은 서울에 위치한 사립 K초등학교였다. 이 학교에서는 교직경력 20년의 베테랑 교사가 주축이 되어 3학년 동학년회에서 수업공개와 수업연구회를 중심으로 배움의 공동체 만들기를 시작했다. 그 후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배움의 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학교를 지정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배움의 공동체를 주제로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움의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수업 중심의 학교 개혁을 추진했거나 현재 실천하는 학교는 전국에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수백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재 내가 정기적으로 방문

하여 수업을 공개하는 학교만 100여 곳에 이른다. 그리고 교사들의 비공식적인 모임과 교실을 단위로 한 배움의 공동체 실천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물론 이 학교들 가운데에는 성공적 성과와 함께 '배움의 공동체'를 학교철학으로 받아들여 정착시켜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연구학교 기간의 종료와 함께 막을 내린 학교도 있다.

'배움의 공동체' 운동의 주창자인 사토 마나부 교수는 "학교가 바뀌려면 적어도 3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야 2년 정도 해 보고 학교장이 바뀌고 연구부장 교사가 바뀌거나 연구학교 지정이 끝나면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실상을 아는 이라면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움의 공동체에 대한 호기심은 지금도 많은 교사를 교사로서 거듭나게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공식·비공식적인 연구단체를 통해 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움의 공동체에 많은 교사가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배움의 공동체' 만들기는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밑으로부터의 학교개혁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학교개혁은 주로 정부가 하향식으로 강행해 왔다. 교실과 아이들의 실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리는 개혁 명령에 학교가 바뀔 리 없고 아이들의 상태가 나아질 리가 없었다. 그러나 배움의 공동체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와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자율적인 의지로 교실을 바꾸고 학교를 개혁한다는 것이 많은 교사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수업을 학교개혁의 중심에 두고 가르치는 기술보다는 아이들의 배움에 두고 탐구한다는 점이다. 교사 일의 중심은 수업이다. 우리 사회는 수업 잘하는 교사를 높이 평가하며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업연구와 수업 잘하는 교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수업 잘하는 교사가 반드시 아이들을 잘 배우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수업연구가 교사의 수업기술에만 초점을 맞추어온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교사의 수업기술로 수업을 개선해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배움을 눈여겨 살피면서 개선하고자 한다. 바로 이 점이 교사들에게 수업을 보는 새로운 시선과 관점을 제공한다.

셋째, 동료성을 기반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길러간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많은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수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게는 하지만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수업을 개선해가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조언자가 바로 동료교사다. 배움의 공동체는 동료교사로부터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의 배움은 존엄하다. 배움의 공동체는 바로 그 기본 철학을 중심으로, 수업 전문가로서 교사의 배움과 성장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한 명의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수업

학교의 책임은 한명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의 배움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그리고 학교의 책임은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수준의 배움에 도전하게 하는데

있다. 아무리 좋은 교실일지라도 더 이상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수학이 싫어졌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업은 성립되어 있지만 그 안에 배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많은 아이들이 “저요, 저요”라고 의견을 말하고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수업도 정작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에 불과한 수업들이 많다. 이러한 수업이 반복될 때 아이들은 수업 안에서 배우는 것을 경시하게 되는 것이다. 배움에 대한 도덕, 모랄이 낮아지는 것이다. 수업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다른 친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시험에 무엇이 나올 것인가가 아이들의 배움의 목적이 된다. 그 결과 수업은 화려해지고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실의 3분의 1은 이미 다 아는 아이들, 그리고 3분의 1은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아이들, 나머지 3분의 1은 알았다고 대답은 하지만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교과서 또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수업을 해 가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모르고, 3분의 1의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수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수업에서 배움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배움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몇 명에 국한된다.

이미 알고 있었던 아이들은 아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몰랐던 아이들은 아는 것 같지만 다시 보면 전혀 모르는 그런 것이다. 유일하게 배움이 성립된 것은 중간층의 3분의 1인데, 그 중에서도 반 정도밖에 몰랐는데 알게 된 아이들일 것이다.

한편 수업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배움이 성립된 교실은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교실의 교사를 보면 굉장히 못 가르친다. 그냥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어떻게든 교재에 있는 내용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전달하려고 필사적이다.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교사들을 지원하려 한다. 즉, 아이들 한명 한명의 존엄을 존중하며 교재 하나하나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전달하려는 신중함과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배움의 공동체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다.

배움의 공동체가 이렇게 수업을 강조하다 보니 혹자는 ‘배움의 공동체=수업기술 또는 방법’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배움의 공동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자 하는 철학이며 비전이다. 사토 마나부(2012년)교수는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철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고 한다.

첫째, ‘공공성 (public philosophy)’이다. 학교는 공공적인 사명 (public mission)과 그 책임에 의해 조직된 장소이며 교사는 그 공공적인 사명과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가이다. 학교의 공공적인 사명과 이를 담당하는 교사의 책임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의 권리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학교가 책임지는 ‘공공성’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학교가 공공 공간(public space)으로 열려있다는 것에 있다. ‘공공성’은 공간 개념이며 학교와 교실 공간이 안으로도 밖으로도 열려 다양한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대화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교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민주주의(democracy)’이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에 있으며 학교는 그 자체

가 민주적인 사회조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존 듀이가 정의한 것처럼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a way of associated living)’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원리로 조직된 학교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학교 운영에 참가하는 주인공 (protagonist)이다.

셋째, ‘탁월성 (excellence)’이다. 가르치는 활동, 배우는 활동은 모두 탁월성을 추구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탁월성이란 타인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의미에서의 우수함이 아니다. 스스로의 최선을 다하여 최고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탁월성이다. 경쟁에 의한 탁월성의 추구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초래하는 것에 비하여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를 추구하는 탁월성은 가르치는 자에게도 배우는 자에게도 신중함과 겸허함을 가져다준다. 가르치는 활동과 배우는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탁월성 추구를 포함하여 성립된다. 이러한 탁월성의 추구를 ‘발돋움과 점프가 있는 배움’으로 실현가능하다.

대화적 실천으로서의 ‘배움’

사토 마나부(2011년)는 배움의 대화적 구조에 착안하여 ‘배움’을 ①교육내용인 대상세계(사물)와의 만남과 대화, ②그 과정에서 수행되는 다른 학습자의 인식이나 교사의 인식과의 만남과 대화, ③새로운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로 특징짓고 있다.

즉 ‘배움’은 세계만들기(인지적 실천)와 동료만들기(대인적 실천)와 자기만들기(자기내적 실천)의 세 가지 차원에 걸친 대화적 실천에 의해서 수행되며 이 세 가지 대화적 실천이 삼위일체가 되어 ‘의미와 관계를 엮

어가는 영속적인 과정'이 배움이라는 것이다.

이는 수업을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활동으로부터 지식이나 기능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물과 도구와 교재와 사람으로 '매개된 활동'이 바로 배움인 것이다. 즉 교실의 배움이 '원조'나 '도구'에 의해 다층적으로 매개되는 실천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을 때 그 경험에서 교육내용의 의미가 구성되어 질 뿐만 아니라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가 재구성되어지며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에 '매개된 활동'을 조직하는 일은 교실에 배움을 성립시키는 첫 번째 요건이다. 그렇다면 배움에서의 원조와 도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교재나 도구로서 교실에 준비된 '대인관계'이며 '사물'이다. 교실 속의 교사와 친구로부터 배우는 일과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는 일, 구체물을 조작하는 일, 체험하는 일 등이다. 대수롭지 않은 약간의 사물의 준비가 아이들에게 배움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배움 의욕을 끌어내는 것이다. 특히 산수에서는 블록놀이와 같은 반구체물이 자주 사용된다. 구체물을 조작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일도 가능하며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도구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가능한 구체물에 의한 도구적 사고를 배움의 중심에 도입하는 일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앞에 이르기도 하지만 조작활동에 꼼꼼하게 관계함으로써 신체로서 앞에 이르는 아이들도 많은 것이다.

교실에 '매개된 활동'이 조직되면 다음은 '협동적인 활동'을 실현하는 일이다. 배움의 문화는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존성'과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제공하여 서로 배우는 '호혜적 배움'(reciprocal learning)으로 성립된다.

호혜적 배움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친구나 교사에게 전하고 쌍방향에서 서로 배우는 일이 성립하는 배움이다. 따라서 조사한 것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한쪽으로 기운 배움이 된다. 그리고 집단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자와의 대화가 없으면 협동적인 배움을 한 것이 될 수 없다. 개인과 개인의 생각을 나누고 합치는 일은 하나의 결론으로 안내하는 일이 아니라 각각의 생각의 차이를 밝히고 배움을 넓히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해가면서 사고하는 상호작용적인 배움이 바로 배움의 공동체의 배움이다.

그리고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은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활동으로부터 '표현'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수업이기도 하다. 함께 서로 배우는 경우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서로 전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활발하게 잘 전하는 일은 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아이들은 적다. 표현적인 배움은 풍부한 자기표현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기표현에는 나타나지 않은 표현의 뿌리에 있는 듣는 힘이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

수업디자인

그렇다면 배움이 있는 수업은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 까?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단원의 내용과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수업을 디자인한다. 디자인이라는 행위는 아이들이 적목으로 건물을 세울 때처럼 손으로 더듬어가며 아이디어를 하나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재의 주제와 아이들의 대화에 의해 하나의 수업이 디자인되어 가는 것이다.

수업 디자인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제’이다. 그 교재에서 아이들과 무엇을 중심으로 추구할 것인가? 그 ‘주제’가 어떠한 발전성을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고되었는가가 수업과정에서 아이들의 배움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 된다.

수업 디자인에서 주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과정의 조직이다. 아무리 의미 있는 ‘주제’라도 풍부한 탐구와 표현의 과정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배움의 경험은 빈약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아이들의 배움의 경험을 인지적(문화적)경험, 대인적(사회적)경험, 그리고 실존적(윤리적)경험으로서 풍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 ‘과정’이 디자인되어 간다.

배움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만들기는 구체적으로는 사물과의 만남과 대화, 친구와의 만남과 대화,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단원의 단위로 하여 조직하는 것에 있다. 교과학습이든 체험활동이든 ‘활동적이고 협동적이며 반성적인 배움’을 하나 하나의 단원으로 조직하는 것이 교육과정만들기라고 말하여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단원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교육과정만들기의 중심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학교교육에서 단원은 ‘목표·달성·평가’의 단위로 조직되어 왔다. 교육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을 수업과정에서 조직하여 그 달성도를 목표에 비추어 테스트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목표·달성·평가’를 단위로 하는 단원은 ‘계단형’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다량의 지식이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가능하게 해 왔다. 그러나 그

폐해도 명백하다. ‘계단형’ 교육과정에서 배움의 경험은 협소하고 획일적이며 평가는 간단하지만 일원적이다.

앞으로의 학교교육의 단원은 ‘주제·탐구·표현’을 단위로 하는 ‘등산형’ 교육과정으로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설정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접근으로 활동적·협동적으로 탐구활동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표현하며 서로 공유하는 배움의 창조이다.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만들기는 실천적으로 말하면 교육과정의 단원을 ‘주제·탐구·표현’의 양식으로 디자인하고 ‘활동적이고 협동적이며 표현적인 배움’을 교실에 실현하는 도전인 것이다.

교실에서의 실천 단계에서는 ‘디자인’과 ‘반성’의 쌍방의 과정을 조직한 복잡한 활동이 전개된다. 이 교사의 활동이 ‘인지적(문화적)실천’, ‘대인적(사회적)실천’, ‘실존적(윤리적)실천’의 세 가지 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앞서 제시한 바와 같다.

사토마나부(2011년)는 아이들의 의사소통에 한정하여 볼 때 수업과정에서의 교사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하나는 ‘개인에 대한 대응’이다. 교사는 교실에서 ‘모두’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교실에 ‘모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한명 한명의 아이들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행하는 일대일의 관계에 있는 것은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에 대한 대응’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요건일 뿐 만 아니라 교실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요하다. 아이들의 관심과 능력이 다양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도

움도 다양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체격이 다른 사람의 양복을 만드는 양복점처럼 교사가 행하는 '개인의에 대응'을 '테일러링'이라고 부르고 있다.

교사가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서 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활동은 '個와 個의 조정'이다. 교실은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교류하면서 서로 배우는 장소이다. 하나의 과제에도 다양한 접근이 생겨나며 하나의 말에도 다양한 이미지가 표현되고 하나의 의미에도 다양한 맥락이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의 배움이 풍부하게 확실하게 전개하는 교실은 교사에 의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이미지의 차이가 존중되고 풍부하게 교류되는 교실이다. '개와 개의 조정'을 조직하는 활동은 교실의 일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

이 '개와 개의 조정'을 미국 교사는 '오케스트레이팅'이라고 부른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음색과 소리로 하나의 음향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레이팅'은 교실의 의사소통의 전개를 확실하고 풍부하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교사는 '테일러링'과 '오케스트레이팅'의 두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미지가 교실에서 만들어 나오는 것을 촉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미지의 차이를 올려퍼지게 하는 의사소통을 조직하여 배움의 경험이 인지적으로도 대인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아이들을 원조하고 있다.

아이들의 배움을 살리는 교사의 역할듣기를 통한 서로의 관계 맺기

"보고 있으면 관찰자이지만 듣게 되면 참가자다."

20세기 최고의 교육철학자인 존 듀이의 말이다. 교실에서 듣게 되면 수업에 참가한다는 것으로,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말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 듣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실은 어떤가. 대부분 자신의 배움만 생각할 뿐 다른 사람의 배움과 표현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서 서로 배우는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교실에서 서로 듣는 관계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교사가 달라져야 한다. 아이들 한명 한명의 말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고 정중하게 대응하면, 아이들 사이에 서로 듣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또한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화하며 서로 배우는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사가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목표에만 빠져 있으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는커녕 "조용히 하고 빨리 써"라고 아이들을 다그치게 된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사의 생각에 따르는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교사의 생각과 엇갈리는 이야기가 나오면, 교사도 이해하기 어려워져 자칫 무시하기 쉽다. 그러나 교사가 아이의 말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면, 아이는 두 번 다시 발언을 하지 않게 된다. 자존심이 상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교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아이들을 보면, 반드시 교사가 잘 듣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듣기가 될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우직한 실천만이 필요하다. 바로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은 듣기도 어렵지만 기다리기는 더 못 한다. 진도 때문에 마음이 바빠서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을 못 믿는 데 원인이

교사들은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려고 많은 설명을 하지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들은 아이들의 귀에 꽂히지 못하고 대부분 흘러가버린다.

있다. ‘기다려도 별 수 있겠나’,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겠나’, ‘모를 거야’, ‘안 될 거야’, ‘못할 거야’라는 생각 탓이다. 듣기를 하려면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려면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때 아이들에게 배움은 ‘나’라는 주체가 빠진 것이어서, 아이들의 귀에는 교사 혼자 끊임없이 불러대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울릴 뿐이다. 그래서 교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아이들이 잘 배우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고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는 게 아니다. 요즘은 수업 시간에 마이크를 쓰는 선생님이 많은데, 그 소음 공해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어떤 학교는 대부분의 선생님이 전 시간 마이크를 써서, 소리가 퍼져 나가 듣기가 괴로울 정도였다. 오전부터 하루 종일 교실을 돌아 보면 오후에는 선생님의 마이크 소리가 내 귀에도 안 들어온다. 아이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괴롭고 불편하겠는가.

사실 마이크를 쓸 때나 안 쓸 때나 사람이 내는 목소리는 같다. 울려 퍼지는 소리 때문에 작은 목소리도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가 떠들면 선생님이 목소리를 더 올리겠지.’ 해서 서로의 목소리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악순환을 줄이고 수업을 차분히 진행하려면, 교사는 마이크를 떼고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줄여야 한다.

연결 짓기, 배움과 배움을 잇다

교사는 수업에서 아이들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배움이 잘 연결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교재와 아이들을 연결하고, 이 아이와 저 아이를 연결 짓고, 오늘 수업과 내일 수업을 연결 짓고, 하나의 지식을 다른 지식과 연결하고, 어제 배운 것과 오늘 배울 것을 연결 짓고,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 짓고,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는 연결 짓기보다는 끊는 일로 시종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동수의 의견은 어떻게?”, “그렇군, 자, 다른 의견은?” 등으로 지명하면 발언과 발언의 연결고리는 끊어져 버린다. 이때 반대로 “동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들으니까 영희는 어때?”라고 하면 두 아이의 생각이 연결되는 것이다.

연결 짓기는 수업에서 교사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것이다.

“철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경채의 말은 혜수의 이야기와 같을까 다를까?”

“은영이가 하는 말이 교재(교과서)의 어디에 쓰여 있니?”

“민재가 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니?”

이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아이의 말, 교재와 이어준다. 수업에서 교사의 활동은 이처럼 아이들의 배움을 연결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둠에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길어야 7분이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 15분인데, 대체로 15분까지도 못 간다. 그 정도로 아이들

은 주제를 놓치고 엉뚱한 데 왔다 갔다 한다. 따라서 교사는 그 지점을 잘 보고 배움을 연결하거나 되돌리기를 해야 한다. 모둠을 만들어 놓으면 특히 수학 시간에 오류를 잡아라고 써놓고 활동지를 얹어놓고 있는 아이가 많다. 그러고는 엉뚱한 얘기만 하며 시간을 보낸다.

“수학 시간에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풀이로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또 토의를 했는데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가 나오더라고요. 수학평가에서는 모둠을 하지 않고 일대일로 가르쳐야 되나 하는 갈등이 있었어요.”

수학교사의 질문이었다.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니까 ‘아,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토론하니까 ‘토론을 잘하고 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아이들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이 나서 얘기만 열심히 한 경우다.

이때는 논리를 가지고 배움이 연결되는가를 봐야 한다. 그런데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네’, ‘서로 뭔가 관계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만 기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이다. 관계까지는 봤는데 배움까지는 못 들여다본 것이다. 모둠에서 아이들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교사는 그 모둠들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는지 배움을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연결 짓기를 하려면 교사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 민감해야 한다. 가령 아이의 눈빛을 보면, 아는 듯 웃고 있지만 사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때 그 아이를 모르는 부류로 나눠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고, 그 아이에 맞

교재의 어떤 부분에서 나온 말인가.

다른 아이의 말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나온 말인가? 전에 했던 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게 교재와 연결시켜 주고 친구와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또 아직 내용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면,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되돌리기를 해야 한다.

되돌리기, 주제를 다시 만나게 하다

선생님이 한 번 설명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다시 설명하는 것을 되돌리기라고 한다. 이럴 경우 전에는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서 되돌리기란 교사가 다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는 한번 이야기를 던졌으면 두 번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 듣는 데 민감해진다. 그리고 못 들은 아이가 있다면, 들은 애들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내도록 한다.

예를 들면 모둠을 7개 만들어 과학 수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과제를 던졌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문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7모둠 중에 4모둠이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면, 이때 선생님이 판단해서 다시 되돌리기를 하는 것이다.

“잠깐만, 지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누가 설명해줄래?”

이처럼 아는 아이들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을 물었을 때, 서로 엇갈리는 답이 나왔다면, 교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되돌리면서 논쟁거리로 던질 수 있다. ‘변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왜 변한다고 생각하는가.’ 한 번 더 얘기하게 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한 아이는 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 아이의 논리를 한 번 더 얘기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모둠에서 더 이야기를 나눠 볼래?”

이것이 교사가 할 수 있는, 되돌리기의 역할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되돌리기 활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다. “다음은 어떻게 되지?”라는 식으로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습성 탓이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한 채 버려지고 일부 아이들만 참가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학습 과제가 어려울 때는 그 전 단계로 되돌아감으로써 다시 출발하고, 뒤쳐진 아이도 참가하도록 하고, 다양한 개인들의 충동을 조정하여 높은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발언을 의미 깊게 받아들이고, 그 발언이 다른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라고 말하네요” 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되돌려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둠, 전체, 교재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이야기와 만나도록 한다.

되돌리는 일만큼은 아이들이 할 수 없다. 이 일은 교사가 해주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몰랐던 것에서 다시 출발해 새로 배움에 도전하고 발돋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되돌리기의 기법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할까. 모둠을 시켜 놓고 선생님이 돌아다니며 봤을 때 반 정도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자,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보자.” 하고 되돌린다. 이때도 이해하고 있는 반 정도의 아이 가운데서 설명하도록 한다. 또 상반

된 의견이 나온다면 더 깊이 논의할 것이 있다면, “모둠 안에서 다시 이야기해볼래?” 하고 전체로 되돌린다.

이러한 흐름을 읽고 되돌려내는 게 교사의 전문성이다. 교사는 ‘넌 모를 것이다, 혹은 알 것이다’ 아이들을 규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며 아이들이 배우는 흐름을 판단하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교사, ‘가르치는 전문가에서 배우는 전문가로’

교사는 교사가 되고부터 교사가 된다. 예전에는 대학의 교사교육을 완성교육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지금은 양성단계의 교육은 준비교육이라고 부른다. 교사는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퇴직할 때까지 ‘현직 교육’에 의해 성장한다. 그래서 교사는 생애를 통해 교사가 되는 과정을 걷는다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교사들에게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수업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수업이 어렵다”, “못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다. 수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느냐는 힐난이 돌아오는 탓이다. 그러나 수업이 어렵다고 느꼈다면 전문가로서 입문한 것이고, 못 느꼈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수업은 10년 20년을 해도 어렵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고, 1반에서 5반까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 수업이 어렵다는 걸 안다는 건 이미 수업이 다채롭고 변화무쌍하다는 걸 파악했다는 것이다.

수업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수업에 대해 어디서 배우고 연구해야 할까.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교사에게는 수업 임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다. 바로 매일 아이들과 마주하는 교실이다.

학교는 교사들이 연대해서 아이들 한명 한명의 배울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이다. 나아가 아이들 간에 서로 배우는 관계를 만들고,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서로 배우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업 사례를 많이 연구해야 한다. 적어도 100회 정도의 수업 사례를 연구해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고 본다. 교사의 전문성은 결국 많은 수업을 보고, 그것이 자기 성찰로 돌아올 때만이 크게 성장한다.

수업 임상을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1년에 한 번은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한 명의 교사라도 교실을 닫고 있는 동안은 학교를 안에서부터 개혁하기는 어렵다. 그 교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교실을 닫고 있다면, 그 교사는 학생, 교실, 학교를 개인의 영역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사가 교실을 열고 수업을 공개하기를 꺼린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수업공개 방식의 문제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업공개는 일정한 날짜에 학부모나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교사의 발언에 대답하며 활발하게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다. 바로 그 준비 과정에서 교사도 학생도 지쳐 버려서, 정작 수업에서는 흥미를 잃고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만다.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일상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업공개를 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공개수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맞춰 준비하지 않고, 그 기준에 맞춰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동안은 항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힘만 들고 평상시 수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기도 어려웠다.

“수업 공개를 하려면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PPT도 쓰고 선진 기자재도 써줘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일상의 수업을 공개하라’는 데 대해 마치 준비 없이 손님을 맞이한다고 생각해서 예의가 없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다. 손님을 맞으려면 안 하던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안 쓰던 도구도 꺼내 놓고, 집들이 하듯 교실과 수업시간을 치장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다.

수업을 공개할 때 교사들은 그 수업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바로 아이들의 배움이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수업을 위한 수업을 만들면 정작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하고 낯설게 여긴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여기는 탓에 배움에 서투르다. 그러나 배우지 않고는 성장하기 어렵고, 교사의 성장은 학교를 교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바뀌가는 일에서 시작된다. 교사들이 동료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교실을 열고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서로 비평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업공개를 교사의 일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곤란한 일로 여긴다. 자신의 약점을 동료에게 털어내 놓기 싫고 자기가 하는 방법에 대해 동료로부터 간섭받기 싫다는 심리가 있다. 또 교사들이 수업공개를 꺼리는 데는 수업공개 평가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수업 공개를 하면, 수업을 관찰하고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서툰지 교사를 평가하는 데 치우쳤다. 이 때문에 상처받은 교사가 많은데, 온몸으로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것을 누가 좋아하고 받기겠는가.

수업 교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날선 분위기에서

동료성이 생길 리도 없다. 교실을 열고 수업을 공개하는데 저항을 느끼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수업을 공개해서 불쾌하고 괴로운 경험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내연수에서 참관한 교사는 수업 교사에게 조언부터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수업을 보고 어떤 점이 멋있었는지, 좋았는지, 배울 점이 있었는지 찾는 사람이 수업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자세를 지닌 것이다. 중학교 1학년 사회 공개수업을 보고, 과학교사가 이렇게 말했다.

“수업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니까 아이들에게 활동 시간이 주어지는데, 제 수업은 아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활동 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취도 평가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해결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수업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업을 통해 수업 교사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수업을 살펴보는 데서 바로 배움이 일어난다. 그런데 비전문가는 아쉬운 점만 보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한다. 어느 학교에 가니까 수업 교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에게, 사회자가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함께 공격하는 거였다. 그러자 뒤에 있던 학부모도 똑같이 수업한 교사에게 이런저런 지적을 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안 보니까 신문 같은 걸 자료로 많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쓰든 안 쓰든, 어떤 자료를 쓰든, 그것은 전문가인 교사가 판단할 문제다. 교사는 전문가이니만큼 비전문가는 교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동료 교사가 수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하니 참관하던 학부모까지 마이크를 잡고 수업 교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교내연수에서는 협의회 방식을 개선해서 동료성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수업 참관자가 수업의 개선점에 대해 조언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 수업을 관찰하고 스스로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다양성을 교류하며 함께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는 학교에서는 3월에 새로 오는 선생님을 위해 환영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모임부터 만들어야 한다. 교사끼리 친목 관계가 아닌 전문가의 관계로 먼저 만나야 동료성을 세울 수 있고, 학교에서 전문가 관계를 만들어야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단단해질 수 있다.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수업을 디자인하고 수업 임상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는 고도의 전문직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사 자신이 전문가라는 걸 잊고 살고, 동료인 교사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로서 연대하고 동료성을 만들려면, 교내연수를 정례화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이 서로에게 배우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맺는 글 - ‘학습참가’로 완성되는 배움

21세기 학교교육은 연대와 협력의 배움이다. 이제 학교는 아이들만이 배우는 곳이 아니라 교사도 전문가로서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곳인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도 학교 개혁에 협력하고 연대하고 서로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도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참가’는 매우 중요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밖의 사람들과 연대해서 학교를 공공의 영역으로 재구성해갈 수 있어서다. 원래 학교라는 곳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만나는

곳이다. 아이들 한명 한명이 다 다르고, 각각의 체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학교 밖의 사람들이 참가해서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며 함께 배우는 곳으로 만들어 가면, 배움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학습참가란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업 참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참관은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당하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과 비평당하는 관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학습참가는 학부모들이 단지 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학습 속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다. 학부모가 보조교사 역할을 맡아서 체험학습에 같이 나가기도 하고, 학생들의 프로젝트 학습 때 개별과제에 합류하기도 한다.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연대하는 학습참가는 목적이나 학년,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한 예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호평중학교에서는 1학년 기술과정과의 '식생활' 단원의 7시간을 지역사회와 '슬로 푸드'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주로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교사와 함께 단원을 구성하여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학습참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도 배움의 활동에 참가하게 한다. 이러한 공동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교사의 철학이 학부모와 공유되며, 학부모들은 더 적극적으로 교사를 지원하게 된다. 그 밖에 학습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많이 바뀐다. 요즘 학부모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은 참 고마운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예전에만 해도 교사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세태가 달라져서 학부모들은 ‘저 선생님이 내 아이한테 어떻

게 하는가’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교사가 조금만 잘못한다 싶으면 꼬투리를 잡기 십상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학습참가를 하고 나면 교사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다.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말 안 듣는지 몰랐어요. 저 아이들을 가르치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처럼 학습참가를 통해 학부모의 참여의 폭을 넓히면, 서로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이 바뀐다. 수업 참관에서 자기 아이만을 바라보던 학부모는 학습참가에서 다른 아이들과 말을 주고 받으며 함께 활동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학급의 아이들, 그리고 학교의 아이들로 관심의 영역이 확대된다. ‘내 아이’라는 학부모의 개인주의적 의식이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공동체적 의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셋째, 아이와 부모의 관계도 변한다. 최근 가정교육의 부재, 부모와 아이의 대화 부족이 자녀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습참가는 아이와 부모가 학습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집에 와서 학교 얘기를 하면 안심이 된다. 학교 얘기를 감추면 ‘애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할까’ 싶은데, 아이와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넷째, 수업의 가능성이 넓어지고 교사는 수업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학습참가를 기획하고 실천한 교사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학습참가를 통해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재발견하고 자신의 수업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학습참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제와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학습참가에서 특수한 기능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획해야 한다. 그렇다고 교사가 지나치게 강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학습참가는 ‘함께 서로 배운다’는 것이 근본정신이다.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고 일상의 학습 속으로 학부모의 참가를 유도해 나가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실적인 문제는 교사들이 교재를 연구하고 학습참가를 기획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금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연구할 시간이라는 점에서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주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현실은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만큼 수업 혁신의 바람이 거셌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만큼 교사들의 의식과 욕구가 성숙해 있다는 것이고, 혁신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교사가 전문가로서 먼저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사들이 동료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뜻을 모은다면, 아이들과 교사 모두 ‘학교 가는 길’은 행복해진다.

또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배울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은 어느 한 곳,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정, 학교, 교육 관계자, 지역사회 모두가 손잡는다면 쉽게 만들어갈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학교를 구심점으로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대하면 아이들은 풍부한 배움의 자양분 속에서 건강하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배움의 공동체 교실에서 행복한 배움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손잡는 것, 함께 가는 것뿐이지 않을까?

참 / 고 / 문 / 헌

- 손우정(2012), 배움의 공동체, 해냄.
- 사토마나부(2012), 학교의 도전, 손우정 역, 우리교육.
- 사토마나부(2011),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손우정역, 에듀니티.
- 사토마나부(2001), 교육개혁을 디자인한다, 손우정역, 공감.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 수업’ 장학 방안



글 > 오현주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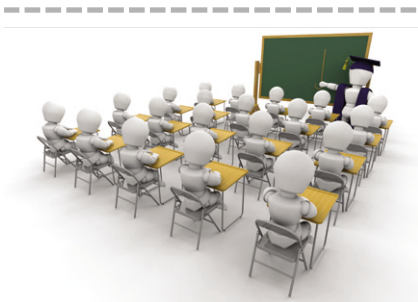
1. 왜 배움 중심 수업에 주목하는가

좋은 수업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모든 교사의 화두이다.

좋은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열망이 뜨겁다.¹⁾

교사 스스로 자신이 전문가라는 인정은 교사의 자존감 확인과 관련이 크다. 이제껏 많은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지나친 사교육 의존도, 지시일변도의 관료적 학교문화, 학교나 교사에 요구되는 역할 과부하,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는 입시 문화, 학교폭력, 학부모의 교권침해 등의 문제가 수업과 평가에 전념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 수업, 프로젝트 학습, 각종 연구대회, 교과연구 모임, 교내 자율 장학이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수업공개 등 그간 수업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효과는 부분적이고 개인 차원의 수업 기술 향상으로 학교 수업 문화를 바꾸지는 못했다.

1) 2013. 3. 26 인천석남중학교 ‘배움의 공동체 공개 수업’ 손우정 교수 강연회 인천교육연수원 맞춤형 연수에서 88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저녁 강연회에 200여 명이 청강함. 2010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개설한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학습클리닉 교사 연수’에서 시작한 각 교육지원청 학습클리닉 연수 수강인원과 그 열기는 이전 교육청 주도 연수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최근 ‘배움의 공동체 수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 변화를 교사의 자발성에 기초한 수업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울림이 크다.

그 관심 중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다. 아직은 그 성공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희망교와 지정교가 더욱 확대되는 현실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배움 중심의 수업’을 꼽고 있다. 곧 학교 변화가 학생의 배움 과정을 중시하는 교실수업에서 시작하여 교사를 변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다. 수업에서 출발한 변화가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자생적인 학교 내 동아리 모임에서도, 그리고 학교폭력 등 배움으로부터 소외된 열악한 원도심 소재 학교에서도 이 수업을 주목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와 교육환경이 비슷한, 이 수업의 원조격인 일본에서도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크게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수용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²⁾

우리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처럼 현재 ‘혁신학교’라는 명칭으로 그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와 유사한 운영은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공모제 학교, 창의경영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의 자율 학교 운영에서 학교구성원과 협의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그 취지를 살려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곧 교육청이 굳이 혁신학교라는 명칭으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배움 중심 수업의 선택은 관심 교사들이 교내 학습 동아리 구성을 통해 그 실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교육청의 많은 사업들이 배움 중심 수업과 연결짓고 이를 진행한다면 훨씬 더 관련 사업이 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교실 수업에서 비롯된 현장성으로 인해 해당 교육 사업이 튼실해지기 때문이다.

2) 손우정 교수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일본의 실천학교를 방문한 우리나라 교사 및 교육연구자가 1,000명을 넘어 서고 있다고 한다.

II.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배움 중심 수업의 이해

**공부와 배움의 차이: 공부와 배움의 차이는
'만남과 대화의 유무'에 있다.**

'공부'가 무엇과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대화도 없이 수행되는 것에 비해 '배움'은 사물이나 사람이 혹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행위이며, 타자의 사고나 감정과 만나고 대화하는 행위이고, 자기 자신과 만나고 대화하는 행위이다.

손우정³⁾은 여러 문헌을 통하여 사토 마나부(佐藤 學)의 배움의 공동체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재개념화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표1 참고)

1. 수업디자인의 기본구조와 교사의 수업지도 방향

배움 중심 수업은 '활동(개인작업)'과 '협동(소집단활동)'과 '표현의 공유(다IALOG적 대화)'의 3요소를 조직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움을 조장하는 수업을 목표로 해야 한다.

'활동, 협동, 표현의 공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첫째, 활동이란 관찰하기, 반복해서 읽기, 생각을 정리하기, 확인하기, 조작적인 활동하기 등 지적인 작업 활동과 사물을 이용하여 추론하거나 탐구하는 문제해결적 사고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을 수업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표1. 대화적 실천으로서의 배움]

배움의 세 가지 차원	배움의 의미	수업에서의 실천	수업 구상
대상과의 만남과 대화	활동적인 배움	작업적인 활동	관찰/조사/토의 등의 구체적 활동설계
타자와의 만남과 대화	협동적인 배움	소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으로 협동적 관계 구성
자기와의 만남과 대화	표현적인 활동	표현과 공유	배운 것을 표현하고 친구와 공유

공부를 배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활동으로부터 지식이나 기능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배움 중심 수업 디자인하기 ⁴⁾

수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의 창조이다. 이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여 암기시키는 주입식 수업에서 타자와의 의사소통이 있는 '배움'으로 수업을 바꾸는 일이다.

둘째, 소집단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 1) 다양한 생각을 서로 부딪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
- 2) 관계를 잘 하는 학생이 잘 모르는 친구를 돌보는 것이 집단적인 수준 향상에 연결된다.
- 3) 배움의 결과를 보다 더 심화시키거나 미지의 과제에 협동으로 도전할 수 있다.

셋째, 표현의 공유는 학생들의 의문을 탐구문제로 삼거나 배움의 질을 높이거나 배움을 심화시키는 활동이다.

- 1) 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창조하기,
- 2) 발표하는 친구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기

3) 손우정, 2013 중등교원능력개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10쪽, 인천교육연구원

(배움의 공동체 홈페이지 <http://www.learningcom.kr/moim/association>)

4) 서우철,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배움의 공동체 적용 및 구조중심 협동학습과의 협응 방안)의 글을 중심으로 인용하여 서술

3)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음미하고 반성하거나 생각을 보강하거나 확장시키는 일 등을 염두에 둔 활동이다.

이러한 수업에서 제일 먼저 강조된 것은 교사가 긴장을 낮추는 일이다. 교사가 긴장을 낮추고 교사의 말과 몸짓이 부드러워지면 교실은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게 되며 학생들의 사고도 유연하게 된다. 또 강조해야 할 것은 서로 들어주는 관계이다.

사례연구를 축적한다.

3) 일상의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평소 쌓아온 일상의 수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4) 수업공개 시 방대한 양의 세안보다는 수업의 주제와 학생의 좌석배치도 정도가 기록된 1-2쪽 정도의 약안을 준비한다. 성공적인 수업 동아리 운영 방안⁷⁾
성공적인 수업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원칙에는 자발성, 공동체성, 전문성 등이 있다. 이러한 원칙들이 살아

[구조 중심 협동학습과 배움 중심 협동학습의 차이점⁵⁾]

관련 사항	차 이 점	
	협동학습	배움 중심 협동학습
수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으로 구성된 물리적 자리배치 • 교사의 교수 중심 협동학습 • 수업집중이 쉽지 않아 소란하기 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활동 중요성 강조, 질문과 경청을 통해 협동적 수업 진행 • 도전 과제 제시로 협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적 성취를 표현하고 공유하도록 함
수업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교사의 순회지도 관찰 및 수업공개 시 동교과 교사만의 피상적 수업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의 과정에 대한 질문 - 확인을 통해 근접된 수업 관찰, 타교과를 포함한 동료교사의 관찰 중시
모둠활동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보상으로 학습강화 권장 • 개인별 역할분담으로 무임승차 금지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에 몰입하는 대화환경 중시하고 소집단 속에서 배움과정을 표현 • 역할분담을 주지 않고 협동적 대화로 공유하고 표현하는 활동 지향
수업외적 변인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외적 변인 적음 (교실에 국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이외 학교 전반 업무와 유기적 연결고리가 많음 (수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다른 외적 지원 협력 네트워크 필요)⁶⁾

2. 배움 중심 수업 실천을 위한 기반 조성

가. 수업연구회 조직

1) 학교 내 수업 연구 동아리 활동 또는 동학년 수업 연구 동아리를 결성한다.

2) 모든 교사가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은 수업을 공개하여

있어야 수업 동아리 활동이 잘 운영될 수 있다.

1)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라. 수업 동아리 활동의 핵심은 자발성이다.

2) 동아리 세우기 활동(Team-building)을 하라. 동아리

5) 서우철, 앞의 글을 요약하여 정리함.

6) 앞의 표, 배움의 공동체 수업과 관련 교육정책 사업과의 연계성 참조

7) 교내 교사 수업 동아리 운영의 실제, 김현섭(좋은교사운동 좋은학교 만들기 운동), 2012 인천신흥중학교 교직원 연수자료

- 모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관계성이다. 이를 위해 잘 먹기와 잘 놀기, 수다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 3) 모임 운영에 있어서 항상 개방성을 유지하라. 동아리 모임 운영은 모임할 때마다 모임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하거나 외부 강사 초청 연수 시 전체 교직원들에게 공개하여 일시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임을 운영하라. 이때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고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 나이대별, 성별)
 - 5) 학교 관리자로부터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라. 학교관리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으면 수업 동아리 모임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소 사용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6) 외부 수업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신청한 사람이나 주도한 사람들만 고생하기 쉽고 진행과정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7) 학교 밖 교사 자율연구모임과 연대하라. 동아리 리더가 모임 안에서의 필요를 모두 채워줄 수는 없다.

III. 배움 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장학 방안⁸⁾

수업연구의 목적은 '훌륭한 수업의 창조'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관계의 창조'와 '높은 수준의 배움의 실현'에 있다. 배움의 공동체에 기반한 수업컨설팅은 학교를 '배움의 공동체'로 재구축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업의 사례 연구'를 주된 방법으로 하는 수업임상의 과정을 일컫는다.

1. 수업컨설팅을 위한 수업자와의 사전 협의 사항⁹⁾

- ▶이 수업을 통해 선생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과 교수-학습에 대한 교육적 관점(철학적 관점)을 말해주십시오. [이 수업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상과 연결되는 지를 의미함]
- ▶ 이 수업에 대한 선생님의 의도에 관하여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교수-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 수업과 관련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수업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학생이 대상(학습 제제, 학습도구)에서 학습자로서의 인식, 학습자가 모둠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습자와의 만남, 이의 매개자로서의 교사의 역할과 학습자와 교사의 만남, 학습 후의 새로운 자신과의 만남에 대해서 수업교사가 예상해 보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 수업과 관련하여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이 수업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 ▶이 수업과 관련하여 동료 교사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고 싶은 점, 그리고 협력을 얻고자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조언을 구하고 싶은 점:

※동료교사와 협의나 토론하고 싶은 점 :

- ▶ 이 수업을 통해 집중관찰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학생에게 이 수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평소 수업에 대한 고민이나 전문가 및 동료교사와 토론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 학교가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모색할 때 선생님께서 생

8) 손우정, 앞의 교재(배움의 공동체와 임상)를 참조하여 컨설팅 절차 및 관찰 관점 서술

9) 수업컨설팅 장학활성화 방안(2011 교육정책네트워크 지역순회토론 자료집 10쪽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 필자는 2012년도 컨설팅 장학에서 이 방법으로 수업자 5명과 사전협의회를 가졌음. 사전 대화 양식으로써 수업의 출발점 확인 및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이끄는 데 유의미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각하시는 공개수업 후 교과(수업)협의회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2. 수업협의회에 임하는 참관자의 태도 ¹⁰⁾

- 1) 불간섭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수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일을 공개하고 서로 관찰, 비평하며 함께 수업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 2) ‘수업협의회’는 바로 전문성과 자율성의 성장 공간이어야 한다.
- 3) 수업 참관자는 ‘수업자에 대한 비평이나 조언’이 아니라 수업 관찰을 통해 자신 이 배운 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양성을 교류하여야 한다.

4) 이야기의 대상을 ‘어떻게 가르쳐야 했는가?’ 에 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주춤거리고 있는가?’ 라는 사실에 두어야 한다.

3. 수업 관찰 방안:

듣기, 연결하기, 되돌리기라는 세 가지 활동으로 관찰

- 가. 교사가 아닌 학생들을 보라
- 교사의 수업방식 또는 수업기술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를 보라
 - 교실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 나. 수업 내용보다 학생들의 관계를 먼저 보라
- 가정환경이나 친구 관계를 이해하는 부수입도 챙길 수 있다. 생활지도까지 연결됨

[배움 중심 수업 컨설팅을 위한 관찰의 관점] ¹¹⁾

학습자의 배움	(1) 학생이 어디서 배움을 시작하고 배움을 멈추는가? (2) 교사의 지시(지도)에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3) 학생들은 배움의 맥락을 이해하는가? (4) 학습과 관련한 의미 있는 모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학습자의 점프가 있는 배움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가? (6) 어떤 자극에 학생들 동기가 발현되는가? (7) 어떤 대목에서 학생들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는가? (8) 학생들간에 어떤 관계성이 형성되는가? (9) 학습에서 벗어난 학생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가? (10)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11) 의미있는 집단활동이있는가?
교사의 활동	(1) 교사는 학습자 한 명 한 명에게 주목하는가? (2) 학습자와 ‘학습자, 사물, 사건’ 과의 연결짓기와 관계(되돌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교실에서 배움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언어와 행동은 없었는가? (4) 배움을 중간에 자르고 있지는 않는가?
교실에서의 관계	(1) 교실에 서로 들어주는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2) 협동적인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느낀 점	그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좋았던 점 교류)

10) 전현근, 한대동<수업협의회에 기초한 배움의 학교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한국교육학회 2009)에서 발췌 정리

11) 손우정, 배움의 공동체와 수업임상(2013 인천 석남중 배움의 공동체 연수자료 138쪽), 수업공개 참관록을 참조하여 작성함

공부를 배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수업공개,
자발적 교내 수업동아리 구성으로 동료에 회복,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잡무경감이 기본

다. 수업을 관찰하고 기록하라

- 수업 전에 관찰 모둠 정하기: 참관 교사를 교실의 모둠수 만큼 나누어 관찰
- 참관 교사는 교실 양 측면에 있다가 모둠 활동 시작되면 모둠별로 관찰
- 메모는 최대한 줄이고 관찰에 전념
-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학생들의 배움에 방해가 안 되게 하기
- 카메라의 기본 위치는 교실 앞쪽. 모둠활동 시작하면 가까이 가서 학생들의 표정과 이야기 담아내기

라. 수업협의회(연구회) 진행방식

- 이야기의 중심을 학생들 한명 한명의 배움에 둬(교사의 가르치는 방식 집착 않기)
- 스스로 배운 것을 이야기하기
- 참관자 골고루 발언, 사회자 역할 최소화
- 사회자 수업 소개 → 수업자의 수업흐름 소개 → 수업동영상 시청 → 관찰 모둠별 이야기 나누기 → 전체에 의한 수업비평 → 수업자의 자기성찰 → 슈퍼바이저 총평

IV. 나가며

그 동안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시행되었지만 우리의 학교문화를 크게 바꾸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합의와 이해가 부족했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이끄는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배움 중심 수업의 변화, 쉽지 않다. 교육청의 지원은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전 방위적 노력이 모두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디자인, 경청하기, 동료성 회복 등등 모두가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그 결실의 기쁨은 크다. 수업의 전문성으로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 이제 우리는 그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공부를 배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수업공개, 자발적 교내 수업동아리 구성으로 동료에 회복,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잡무경감이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누리 교육’을 통한 배움의 공동체 실천사례



글 > 유 애 자
인천고잔유치원 원장

1. 들어가며

우리 원에서는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인 ‘누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리 교육’이란 세상의 모든 유아들이 누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이라는 뜻으로,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며,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가진 민주시민의 기초를 통해 형성하는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누리 교육과정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 유아의 주도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주의자인 John Dewey는 교육을 경험의 재구성으로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놀이가 학습의 기본요소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육에서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 놀이가 유아의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활동임을 강조하였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을 공유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감정을 분화, 통합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유치원에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의 중심은 놀이이다. 체험활동중심의 놀이 수업은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활동으로 전개된다. 통합교육과정으로서의 놀이와 체험활동은 유아들 자신에게 충분히 이해되고 능력에 맞는 적절한 활동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통한 성취감

과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서로 호혜적인 관계형성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 유치원에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유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즐겁고 신나는 가운데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지식, 지혜를 키우는 수업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지는 일상적인 과정이다.

II.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통한 나눔 교육 실천사례

서울대학교 서유현 교수(한국뇌연구원 원장)는 사람의 뇌 발달이 유아시기에 80% 이상 발달되어진다고 한다. 이 시기에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배웠는가에 따라 일생을 살아가는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에 유아시기의 교육 활동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과중심이 아닌 공통과정의 5개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유치원의 지역실정과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해야 한다.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여 적용하는가에 따라 교육의 승패가 달려 있으므로 유치원과 교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유치원은 교원들의 연수와 연구로 충분한 내용 검토를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협의와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설문지를 통하여 학부모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교원들이 수차에 걸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유치원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세웠다.

우리 유치원은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모두가 함께 배움에 있는 공동체 수업을 통한 피드백이 있는 나눔 교육을 주제로 하여 유아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하고 있다. 교원, 학부모, 유

아가 서로의 호혜적인 관계형성은 물론 서로 협력하며 교실 분위기와 환경 조성하고 더불어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 주도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여 어린 유아들이 상호 토론과 공동체 수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도 염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시기는 스펀지 같아 주는 대로 흡수하고 때로는 어른보다 더욱 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려서의 생활 습관이 평생을 좌우 한다. 그러기에 우리 유치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활동중심의 배움이 있는 공동체 수업을 통한 나눔 교육 활동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통한 나눔 교육 활동별 소개

유아들에게 다양한 나눔 체험 활동을 통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동체에서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유아시기부터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과정에 도입하고 유치원과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배움의 공동체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생명들에게 나눔을 베풀 줄 아는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 스스로가 자발적인 놀이 학습을 통하여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가운데 꿈과 끼를 키우게 한다.

〈활동 1〉 도서 품앗이를 통한 책과 친구하기

◆유치원의 환경을 독서하기 좋은 환경으로 구성하고 '생각이 자라는 방' (도서실)에서 각 반별로 도서실 사용 시간을 정해 유아들이 자유롭게 독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가정에서 읽지 않는 도서를 자율적으로 유치원에 기증(연1회)하고 기증도서에 유아의 이름을 적은 후 도서실에 비치하여 유아들이 활용하게 한다.



도서 나눔 행사 (기증)



생각이 자라는 방 (도서실)



즐거운 책 나들이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도서실 내의 파손된 도서를 정리정돈 하여 유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한다.

◆순회문고 협약을 맺은 미추홀도서관에서 2개월에 한 번 씩 도서를 대여한다.

◆유치원의 생활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배치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아들의 사고를 확장 시킬 수 있게 한다.

◆이달의 책 선정
선정된 책을 각 반별로 읽어보고 책에 대한 흥미와 다양한 개념을 확장 심화활동을 전개한다(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연령별 3권씩 선정).

◆동화를 듣고 다양한 독후활동
그림그리기,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제목 짓기, 표지 꾸미기, 동극하기 등으로 유아들의 인성·창의성을 증진시 킨다.

◆즐거운 책 나들이
주 1회 1권의 도서를 가정에 대여하여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고 '즐거운 책 나들이' 독후 활동을 실시한 후 유치원으로 가지고 오고 가며 가정과 연계 한다.

◆도전! 골든벨 대회

개인별, 모둠별로 대회를 개최하여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어 모두가 함께 협력 하며 즐거움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며 책과 친숙함을 갖게 한다.

〈활동 2〉

마음나누기, 손길나누기, 효 활동, 가정/지역사회 연계활동

◆생활주제와 연계된 나눔 교육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다는 것을 알게 한다.

◆마음나누기

장애친구 도와주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목욕은 즐거워, 기부하기 등을 실시한다.

◆손길나누기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눠주고 서로 돕고 협력하기, 교사들(1인 1특기) 요일별 순회지도, 학부모자원봉사 활용(자료제작, 유아들의 활동지원), 요리활동 등을 실시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운다.



학부모 자원봉사



나눔 요리 활동



교사 품앗이 활동(요가)

◆효 활동하기

부모님께 감사함 전하기 및 뿌리 알기, 카네이션 만들기, 웃어른께 바른 언어 사용과 인사하기, 가족주걱 만들기, 심부름 잘하기 등으로 효심을 키운다.

◆가정 지역사회 연계활동

부모 참관 및 참여수업, 과학축제, 민속의 날 가족잔치, 체육대회, 학습발표회, 인천사랑/유치원 사랑교육, 재능기부(체육활동) 등으로 즐거움을 나눈다.

〈활동 3〉

나눔 줄 아는 고잔 어린이, 착한 마음 고잔 어린이 활용

◆가정과 연계 활동으로 인성교육

가정과 연계하여 활동 할 수 있는 활동지(월1회)를 집으로 보내 부모와 함께 협력하여 수행하는 활동으로 효심을 키우고 바른 인성이 습관화 되도록 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대화 및 상담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사와 수시 상담 및 대화하여 유아들의 가정과 유치원 생활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나눔 저금통 활동으로 기부금 전달

4월중 나눔 저금통을 만들어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활동과 연계하여 칭찬 성금을 모아 12월에 저금통을 회수하여 모은 성금을 유아들이 함께 상호 토론을 거쳐 합의된 곳의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매년 실시).

◆줄넘기, 훌라후프 대회 급수제 운영

줄넘기, 훌라후프를 통하여 몸의 유연성과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초체력을 증진함으로써 건강한 유아로 성장하며 또래끼리 서로 즐겁고 신나는 활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년 2회 반별, 연령별로 대회를 실시하여 급수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여 자신감을 갖게 한다.

◆ '유치원 생활' 매월 말 가정으로 배부(유아관찰 기록부)
'유치원 생활'은 가정과 공유하여 유아가 가정생활과 유치원 생활에서 관찰되는 개인의 특성 및 성장 과정을 매월 체크하여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한 자료이다.

〈활동 4〉 녹색 활동 및 경제/소비교육

◆유치원의 텃밭 가꾸기 및 농부교실 운영

유치원 텃밭 채소 가꾸기 나눠먹기(상추, 오이, 토마토, 가지, 고추, 열무, 배추) 등의 활동과 농촌진흥기술센터 지정 어린이 농부교실 운영(2,930,000원 지원받음)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알게 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통해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게 한다.

◆웰빙 밥상

유아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하여 매일 아침 등원 후 튀긴 콩과 볶은 멸치를 자신의 나이 수만큼 먹는다. 또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하여 알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게 한다.

◆경제 소비교육 월 1회 실시(시장, 자원, 공유 등)

유아들의 바람직한 경제/소비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자원, 시장, 공유의 내용을 교육활동으로 전개하여 올바른 소비문화를 실천하게 한다.

◆에너지 교육 강화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를 통하여 에너지 교육 실천 활동을 전개 한다.

2.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통한 나눔 교육 세부 활동 사례

위에서 소개한 활동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수업 적용에 관하여 언급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여 <활동 1>에서 ‘도전! 골든벨 대회’를 소개한다.

<활동 1> 도서 품앗이를 통한 책과 친구하기 (도전! 골든 벨 대회)

“와!” 신나는 함성과 함께 시작되는 ‘도전! 골든벨’ 대회. 용기종기 모여 구호를 외치며 문제를 맞힐 때 마다 서로의 어깨를 둘러메며 함께 응원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대회. 승자도 패자도 없는 독서 대회에 아이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며 행복을 느낀다.

대회에 앞서 연령별 생활 주제별로 유아들의 수준을 고려한 이달의 책을 3권씩 선정한다. 각 대회별 총 9권의 책 내용에서 쉬운 문제로 시작해서 만 4세는 12문제, 만 5세는 18문제를 출제한다. 출제된 문제의 내용은 교사들의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를 PPT로 제작하여 골든벨 대회에 사용한다.

‘도전 골든벨’ 대회는 학기당 2회 연 4회 실시한다. 1, 3회는 각 반 교실에서 2, 4회는 연령별(4세, 5세)로 강당에서 진행된다. 대회가 끝나면 1, 3회에는 문제를 맞힌 개수의 인증도장 카드를 나눠주어 가정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2, 4회에서는 인증 배치를 수여한다(1단계는 ‘열심히 했어요’, 2단계는 ‘훌륭해요’, 3단계는 ‘최고예요’). ‘도전 골든벨’ 대회는 유아들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된 대회이기 때문에 4회에 가서는 모든 아이들이 3단계 ‘최고예요’의 배치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인증 도장 카드나 인증 배치는 유아들이 책과 친해지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눔 줄 아는 고잔 어린이 착한 마음 고잔 어린이



홀라후프 대회



나눔 저금통 기부



텃밭 활동



웰빙 밥상 (북은 콩과 멸치)



에너지 절약 캠페인

기존의 독서 대회는 개인별로 진행이 되지만 우리 유치원에서는 모둠별로 진행이 된다. 각 반별로 다섯 모둠을 정한다. 제비뽑기를 하여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의 이름은 토의를 통해 결정한다. 결정된 모둠의 이름으로 대회에 참가한다. 모둠별로 모인 아이들은 숫자 팔찌를 착용한다. 숫자 팔찌를 착용하는 이유는 문제별로 돌아가면서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리더가 된 아이는 문제가 출제되면 모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 결정을 내린다, 모둠 구성원들은 리더의 결정에 따른다. 리더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했을 때는 모둠 구성원들이 리더를 설득할 수도 있다. 답이 결정이 되면 각 개인별 칠판에 답을 쓰고 함께 든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같은 모둠에서 서로 다른 답이 나왔을 때는 모둠 전체가 틀린 것으로 한다. 이로 인해 유아들은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된다. 2, 4회 대회는 강당에서 연령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다른 반과 모둠이 구성된다. 1, 3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를 하여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 이름을 정하여 대회에 참여한다. 이후 대회진행 방식은 1, 3회와 동일하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과도 협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협동하여 진행된 마지막 대회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최고의 배지를 받게 된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이다.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독서대회는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서로 경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면 모둠별로 이루어

지는 독서대회는 독서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나눔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한다. 나밖에 모르는 아이들과 우리 지식밖에 모르는 부모들을 위해 함께 책읽기를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어 나만의 세상이 아닌 우리들의 세상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며 활동이 아닌가 싶다.

III.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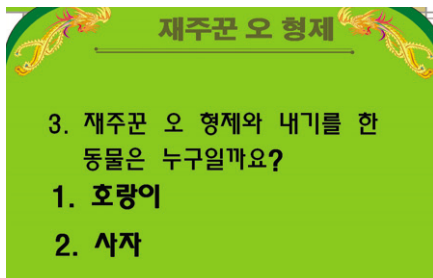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누리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며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위한 혁신적이고 활동중심적인 내용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유아들이 서로 협력하고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모든 유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가운데 지식 및 지혜를 키우고, 남과 더불어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면서 '로버트 폴컴'이 지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내용을 상기시켰다. 책의 내용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

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에 관해 아이들이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경험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 유치원의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 운영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유아기의 신체적, 사회/심리적, 도덕적, 지적, 언어 발달은 이후의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에 발달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거나 발달의 최적 시기를 놓쳤을 경우, 후에 교정하거나 보완하기는 매우 힘들고 어렵다. 그러므로 잠재적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 시기가 유아의 왕성한 성장발달을 위한 효율적인 유아교육 경험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

하다. 또한 이 시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상 가장 활발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은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신체, 언어, 사회, 정서 등 제 발달이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배움의 공동체에서 유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생활 속에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과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이고 나눔을 실천하며 꿈과 끼를 가진 어린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도전! 골든벨 문제 (예시)



도전! 골든벨 (반별 대회)



도전! 골든벨 (연령별 대회)

교육의 비결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데 있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Project

4

배움의 공동체를 만나다



글 > 함유숙
인천장수초등학교 교사

들어가며

스스로 나를 괜찮은 교사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해마다 만나는 아이들은 나를 좋아해주었고, 내가 하자는 대로 별 무리 없이 잘 따라와 주었다. 자잘한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학부모들도 만족스러워 했고, 고마워했고, 나 또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게 교사로서 20년째 삶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공부하자!

이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인 한 문장이 나의 교사로서의 20년을 휘청거리게 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짝박한 우화가 있다. '말을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결국 말이다.' 학생 때,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앉아서 듣는 나는 조금 서운하기까지 했던 말이었다. 그 우화가 실제 교직생활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때, 몇 차례 이러저러한 시도를 하다 잘 안되면 이 우화를 떠올리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일찌감치 가르치려고 애쓰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합리화 시켰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완벽한 교사가 아닌 이상, 아니 아무리 뛰어난 교사라도 그건 불가능해.'라고 치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한 문장을 수업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꾸준히 실천하는 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목표가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실현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엄숙하게까지 느껴졌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쩌면 아이들은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정말 잘 배우고 있는가?

수업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고, 아이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따라와 주면, 그 수업은 성공적인 수업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인 내가 큰 소리로 질문하면, 큰 소리로 또박또박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기분이 들떴다. 간혹 몇몇 학생들의 기발한 말이나 우스개 소리에 까르르 아이들이 웃어주면 그 날은 매우 즐거운 수업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교사중심으로 수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이 진정 잘 배우고 있는가 보다는 교사인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에 매몰되어 있던 것이다. 수업이라는 배를 타고, 교사가 선장이 되어 키를 잡고 가고 싶은 대로 방향을 조정하면 아이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20년 만에 만난 배움의 공동체는 나에게 질문을 던져주었다.



조금은 관성적으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일본 배움의 공동체 학교를 탐방하다

2011년 1월 손우정 교수님과 함께 일본 배움의 공동체 학교를 탐방하게 되었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 장곡중학교 선생님들과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교사들과 장학사, 교장선생님까지 탐방하는 데, 다행히 좌석이 몇 자리가 남아서 운 좋게 함께 갈 수 있었다. 나랑 비슷한 경우의 사람이 예닐곱 명 되었다. 우리들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전체가 수업을 공개하고,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떠돌고 몰려다니면서 학생들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 탐방기간 내내 부러워하며 우리들끼리 서로 위안해야 했다.

일본 배움의 공동체 탐방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 앞에 무릎을 꿇혀 앉은 선생님’이었다.

지금도 무릎을 꿇히고 1학년 개구쟁이 같은 학생과 눈높이를 맞춰 말하던 선생님의 장면은 사진처럼 머리에 새겨져 있다. 마치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진 같은.



두 번째는 ‘수업연구회’였다. 체육관에서 한 교실의 학생들이 수업을 공개했고, 그 주위를 일본 교사들 100여 명과 한국에서 탐방온 교사들 40여 명이 빼곡히 아이들을 둘러싸고 수업을 참관했다. 도대체 수업연구회를 어떻게 하려는 거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연구회를 참관하게 되었다. 번역기를 통해 귀에 들리는 선생님들의 조용한 말씀들 하나 하나는 학생들이 잘 배우고 있는지, 섬세하게 관찰해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학생이 어디에서 멈칫하고 있는지, 참여하지 않던 학생이 언제 입을 열고 대화를 시작했는지, 옆의 친구와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는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려했는지, 어떻게 학생들의 질문과 질문을 연결하고 있는지 등. 그 큰 체육관에 조용조용 가만가만 아이들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종교 의식을 치르는 듯이 수업연구회가 흐르고 있었다. 가끔 어떤 아이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탄성을 하기도 하고, 가끔 아이들 흥내를 내가며 수업 장면을 재현할 때는 까르르 웃어가면서 말이다. 지나온 19년 동안 내가 경험했던 수업연구회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다반사였다. 시간이 없으면 생략해도 무방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 스스로부터 겸허한 마음으로 수업을 공개한 선생님을 통해 진정으로 배우려고 하지 못했다고 할까. 수업에 대해 진지하게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동료성을 키워가며 교사들을 만나지 못했다.

무엇이 이러한 수업연구회를 가능하게 했을까?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기본 철학은 ‘모든 아이들의 배움 권리와 질 높은 배움을 보장’ 하는데 있다.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세 가지 철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고 한다. 공공성, 민주성, 탁월성이다.

학교는 공공적인 사명과 그 책임에 의해 조직된 장소이며 교사는 그 공공적인 사명과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가이다. 학교의 공공적인 사명과 이를 담당하는 교사의 책임은 한명 한명의 학생의 배움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공공성은 학교와 교실의 공간의 열림이기도 하고, 이는 수업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수업이 한 교사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수업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교사의 수업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개하고 공유하며 교사와의 동료성을 통해 함께 연구하고, 교사가 성장하고 학교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한 교사의 뛰어난 역량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공동의 고민과 학생 배움에 대한 책임을 한 교사만이 아닌, 학교 전체의 고민으로 대화하고 공감하고 새로운 수업을 디자인하는 교사들의 배움공동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19년 동안 수업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뛰어난 수업을 하여 내가 빛날 수 있는가라는 조바심이나 다른 선생님보다 수업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겠다는 알팍한 공명심을 뛰어넘어, 학교 전체가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기꺼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그 수업을 진정성 있는 눈으로 함께 보아주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문화가 꽃피는 곳.

언제 한번 그런 동료들 학교 안에서 만났던가?

단순하게 “이거 해 봤는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인 몇 가지 팁을 나누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고마웠는데, 나의 수업에 들어와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학생들의 배움을 고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사를 만나게 된다면 힘들고 벅찬 학교생활이지만, 견딜 만하지 않을까, 희망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돌아오고 난 후, 인천에서 배움의 공동체 모임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업동영상을 보고 손우정교수님을 모시고 컨설팅을 받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강의를 들었다. 지금은 원격연수가 생겨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졌다. 배움의 공동체를 배우면 배울수록 스스로를 깊게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숙제를 갖고 고민하게 되었다.

어떤 의도로 수업을 디자인하셨나요?

2012년 3월 수업을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배움의 공동체 인천모임에서 이제까지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 함께 연구회를 진행하다가 2012년 용기를 내어 서로 돌아가며 수업을 공개하기로 했다. 물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부족한 터이지만, 일단은 공개해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선입견 없이 있는 데로 보여주실 거라 믿었기에 공개를 했다. 우리는 서로 수업을 공개할 때, 수업을 기증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종종한다. 마치 장기를 기증하듯이, 소중하고 귀한 수업이라는 의미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수업을 보아야 하고,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 대화를 나눌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수업 하나하나가 의사들이 환자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특성과 습관, 체질, 질병의 현상과 처방이 다르듯이, 수업도 임상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같은 지도안이라도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독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결코 같은 수업이란 있을 수 없다

는 철학에 근거하여 수업에 대해 대화한다.

3월 2째주라 아이들은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수업을 했다. 평소보다 많이 긴장하고 있었고,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심 속이 탔다. 새 학기라 아이들도 나도 서로를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 차 말하기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버겁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수업을 마치고, 나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다시보기 하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배움의 공동체 인천모임에서 수업을 보신 선생님들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내주셨다. 학생들과 학생들의 교류나, 교사의 발문의 양이나 발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이야기하며 듣게 되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과 수업시간 중에 황설수설하듯 아이들에게 혼동을 주는 발문과 설명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손우정교수님은 시종일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고, 격려하셨지만 날카로운 질문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다.

“선생님은 어떤 의도로 수업을 디자인 하셨나요? 교과서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한 수업이 몇 시간쯤 될까? 1년 수업일수를 대략 200일이라 치고 하루 5시간×20년이면 20,000교시 인데, 2만교시의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가르치는 교과서의 본질은 무엇인지, 학생들이 이 시간에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명확한 교사의 자기 철학이 부재했음을 깨달았다.

단지 40분이라는 수업시간에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급급했지, 정작 교과 전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다. 수업을 계획한 대로만 끌고 가려 했을 뿐, 수업 중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확산된 질문과 탐구에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학하지는 않기로 했다. 주변 선생님들도 장기를 기증해 준 것

에 감사하다는 격려 말씀을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용기를 내서 수업을 공개한 나 자신이 대견스러웠고, 공개하니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금씩 알게 되고 더 고민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꾸준히 수업을 공개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조금씩 알아나가는 과정이 내게 깊은 자양분을 준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과정에서의 성장의 고통과 기쁨을 알게 되었다.

첫 수업을 공개하고 난 후 5개월 후 다시 수업을 공개하게 되었다. 완벽한 수업은 없고, 수업 하나하나가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같은 수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편해진 마음과 달리, 두 번째 수업은 나를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듣기를 매우 강조하는데, 아이들이 듣지를 않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너무 신나고 들떠하는데, 도저히 시끄러워서 수업을 계속하기가 너무 힘들게 여겨진 것이다. 영상을 찍으러 온 교수님께 너무 죄송할 정도였다. 교수님께서도 아이들이 매우 밝다며 우리 학교의 특성도 금방 알아차리시고, 수업을 찍는 동안 벌써 아이들에 대한 파악을 전부 하고 계셨다.

‘아니, 아이들이 왜 이러는 거지?’ 어느 정도 서로를 알게 된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야기에 빠져 수업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아이들의 산만함과 소란스러움은 곧이어 나의 혼계와 협박이 반복되고, 급기야 분노폭발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듣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엄하게 아이들을 꼭 잡았어야 했는데, 무섭게 아이들을 대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나 자신을 자책하다가, 배움의 공동체를 접고, 옛날 내방식대로 그냥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갈등에 휩싸였다.

책상을 ㄷ자에서 다시 일자형으로 바꿨다. 도저히 듣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용납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ㄷ자형으로 했다가 다시 일자형으로 설명을 들을 때는 일자형, 모둠활동을 할 때는 모듬형,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는 ㄷ자형. 그러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듣기를 강조하는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았다.

‘왜 듣기가 안 되는 걸까? 도대체 왜? 왜? 왜?’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당위를 많이 말한다. 교사들이 특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마 부모님들도 그러했을 것이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등 잘 들으라는 당위적 명제는 무수히 들어왔을 터이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었을까? 부모님이 잘 들어주었을까? 선생님이 잘 들어주었을까? 사회가 잘 들어주었을까?

잘 들어주고 공감해준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듣기만을 강요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공감되지 않는데, 권위로 누르면서 공감하고 들으라고 내리먹이기 한 것은 아닌가? 수평적 만남, 수평적 대화,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는데, 나는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인가?

나는 울고 말았다. 사실 교사인 나도 나의 이야기를 옆의 교사들과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옆의 교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자신이 없다. 가족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학교는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이 함께 잘 대화하고 서로 잘 들어주고 있기는 한 것인지.

“그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화내던 나는 마음이 아파왔다. ‘그래, 들어주자. 들어주자.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자.’

그렇게 마음먹고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2012년은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스스로 감정의 변화를 잘 추스르지 못했고, 크고 작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다 결국, 우리 반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문제가 일어났다. 아이들은 놀랐고, 어쩔 줄 모르고, 학부모들도 학교에 대한 원망과 교사에 대한 원망, 서로에 대한 분노로 휘청거리며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나 또한 교사로서의 자괴감과 무기력감, 아이들에 대한 실망감, 학부모들에 대한 서운함, 좀 더 잘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등이 한데 엉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힘겹게 2012년 겨울을 맞았다. 살면서 참 잘했다. 스스로 만족한 적이 몇 번이 있었을까? 잘 기억이 안 난다. 다만 스스로에게 ‘괜찮다, 괜찮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며 용기를 불어넣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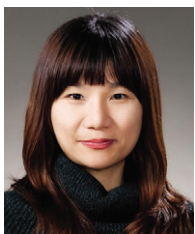
어느 날 교과전담 선생님들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참 잘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끝나갈 때, 더 엉망일 텐데, 아이들이 방학이 가까워오는데, 수업에 잘 열중한다고 해주셨다. 그리고 보니, 아이들이 많이 차분해진 것 같기도 했다.

다른 친구가 멈칫하고 있으니, “기다려줘”라는 말을 한다든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오기 전에 옆의 짝에게 스스로없이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아이도 크게 우쭐해 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그런 모습이 하나 둘 더 눈에 띄고 있었다. 여전히 나는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나의 영혼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던, 한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배우자! 20년 만에 큰 울림으로 내게 다가온 명제는 교실의 벽을 넘어 서로 공공성으로 수업을 대하는 교사들이 많아질 때, 학교 전체가 함께 배우고 서로에게 귀 기울일 때, 행복한 학교 배움 중심의 학교가 만들어지리라 믿는다.

Project 5

배우는 아이는 무너지지 않는다



글 > 남궁숙
남인천여자중학교 교사

좋은 수업을 오해하다

아이들은 나의 수업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갈수록 흔들렸고, 따분한 표정과 엎드려 자는 몸짓으로 나의 수업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수업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수업이 재미없어서 아이들이 시큰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개그 콘서트를 열심히 챙겨 보았고, 각종 우스개 이야기도 하며 아이들을 수업 속으로 끌어 들이고자 노력했다. 수업의 시작에는 늘 자극적이고 새로운 동기유발 활동이 필요했고, 지나치게 긴 도입 활동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수업이 되기도

했다. 교사의 유머 감각이 수업의 활력소라고 생각했으며, 수업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기술을 갖고 닦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내가 잘 가르치면 아이들도 잘 배울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갔다. 마이크는 필수였고, 내가 계획한 수업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의 말은 못 들은 척 하며 시나리오대로 열심히 수업을 했다. 아이들은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 탓이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서 내가 정한 틀에서 벗어날까 조바심을 내며 수업을 했다.

그렇게 하면 수업의 전문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새 나는 무능한 교사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나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그 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수업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했다.

수업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행복하기보다는 절망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다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슬쩍슬쩍 베껴 흉내 내기도 했고, 이런 저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내가 혼자 서는 무대는 늘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웠다.

나는 수업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했었던 것 같다. 일제히 나를 향해 앉아 있는 관객들 앞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지레 지치고, 포기하려고 했다. 아이들의 배움이 아닌 나의 가르치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 해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했다. 수업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라는 것, 수업의 중심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배움의 공동체’와 만나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수업 기술을 고민하고 있을 때, 연수를 통해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목말라 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막연하지만 보이기 시작했고, 그 해결을 어찌면 이 수업을 통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 가르치면 아이들도 잘 배울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교사 중심적인 생각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교사의 ‘가르침’에 앞서 아이들의 ‘배움’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이 당황스럽고도, 충격적이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사이에 어긋남이 존재함을 애써 무시하며 수업에서 배제되던 아이들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던 나의 모습이 교사로서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사토 마나부 교수의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와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이란 책을 읽으며 수업에 대해, 교사의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기 시작했다.

배움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 첫 수업 –

지식은 머물러 있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새롭게 구성된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를 믿고, 지탱해 줄 때 아이들은 보다 잘 배울 수 있다. 좋은 관계 속에서 교재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자기 자신과 만남으로써 얹이 확장되는 것이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동료와 교사가 든든하게 옆에 있다는 것에 아이들은 안심하게 되고, 그렇게 교실은 편안해진다.

“지금 아이들을 움직이는 원리는 경쟁이다.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서로 배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어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존 듀이는 교육의 가능성을 ‘의 존성’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흔히 의존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그러나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배울 수 있고 관계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두 가지 다 하지 못한다. 모르는 게 있어도 도움을 요청 하지 않고, 가르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혼자 끙 끙거리다 배움을 포기하고 만다.”¹⁾

서로 의존하고, 배우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강조하고, 첫 수업에서 ‘기러기의 비행’이라는 동영상 을 함께 보며 감상을 나누는 것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함께 준비한다. 첫 시간 교사를 소개할 때 나의 이름으로 삼행시²⁾를 지어서 ‘배움의 공동체’ 철학과 연결하 였더니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서도 앞으로 선생님이 어떤 수업 철학으로 자신들과 수업을 할 것인지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서로 배우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청(동시에 말하지 않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모르는 것 을 묻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학교는 배우러 오는 곳임을 강조한다. 수업에서의 만남은 공적인 만남이고, 배우기 위해 학교에 온다는 것을 강조하면 아이들은 의외로 아주 진지해진다.

경기도의 혁신 학교인 덕양중학교에서는 수업 협약식이라는 것을 한다고 그곳 교장선생님의 연수를 듣고 알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배움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수업 협약식과 비슷하게 그 내용을 재구성한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다짐’을 함께 읽는다. 그렇게 나는 일 년 동안 함께 할 ‘배움의 공동체’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며 첫 수업을 연다.

마주 보기 - ‘ㄷ’자형 자리 배치

우리의 학교가 대부분의 교실을 아이들이 일제히 칠판을 바라보도록 분단별로 책상을 배치 해서 교사의 일제식, 강의식 수업에 적합하게 했다면, ‘ㄷ’자형 자리 배치는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제식, 강의식 수업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수업에 적용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아이들을 혼자 한 줄씩 시험대 형으로 앉혀 철저히 고립시켰던 적이 있었다. 수업 중에 눈치를 보며 잡담을 하는 아이들을 배움의 즐거움으로 이끌기보다는 고립시킴으로써 배움으로부터 소외되게 만들었고, 아이들 사이의 대화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교사만 바라보도록 했다.

그러나 ‘ㄷ’자형 자리 배치는 아이들이 수업의 중심이고, 주인공임을 잘 보여준다. 서로가

1) 손우정『배움의 공동체』해설.

2) P47. 남의 말을 잘 듣고, 궁금하고 모르는 것 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배우며, 속속 성장하는 우리

서로의 표정을 보며 소통할 수 있고,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잘 볼 수 있으며, 어느 방향에 서나 교사가 잘 보인다. 친구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 줄거나 잠을 자는 것도 불편하다. 모둠으로 자리를 바꿀 때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쉽게 이동이 되고, 다시 모둠을 풀고 원래 배치로 돌아오기도 편하다.

모둠이 함께 하면 무서울 게 없다

교사 연수를 받으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앞에 놓인 백지가 부담스럽고, 막막하면서 덜컥 겁이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종종 있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답을 쓰실지 궁금하기도 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면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몇몇 아이들이 학습지를 앞에 두고 막막하고 답답해서인지 ‘몰라요’라며 포기해버리던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처럼 소집단으로 모둠을 만들어 협력하게 한다면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을 배움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필요할 때 물어볼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다는 것이 든든한 힘이 되어 자신감이 없던 아이들도 배움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모둠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고민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면서 모르면 묻고, 가르쳐 주기도 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둠 구성은 기본적으로 4인 모둠으로 했고, 인원이 여의치 않으면 3인 모둠인 경우도 있었

다. 모둠 구성원이 4인 이상이 되면 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배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모둠 내 역할은 정하지 않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쩌나 고민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이미 경청의 중요성과 작게 말하기, 동시에 말하지 않기 등을 공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분한 분위기가 유지된다. 또한 주어진 문제를 모두 해결했을 때는 모둠을 풀고 원래의 ‘ㄷ’자 자리 배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교사가 부담스러워하는 통제불능의 모둠 활동은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내는 소리의 질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지 잘 포착하여 교사가 분위기를 환기하는 역할을 적절하게 한다면 모둠 활동도 평소 수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수업 디자인을 고민하다

나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 섬세하게 돌보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우리 반 아이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국어 수업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한다.

수업의 전문가로서 교사는 아이들을 교재와도 만나게 해야 하고, 아이들과 아이들을 만나



제도 해야 하며,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도 도와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연결짓기’에 능숙해야 하며, 아이들이 주춤거릴 때는 ‘되돌리기’를 통해 주제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기존의 수업이 목표를 중심으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이 핵심이었다면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배움이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표현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디자인한다.

국어 수업을 디자인할 때 먼저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습지를 만든다. 물론 매번 새로운 학습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모둠 활동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교과서를 직접 활용하기도 한다.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제재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다루지만 이것 또한

모둠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디자인한다. 모둠 활동으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친 후 모둠을 풀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때 아이들의 발표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며, 교사 입장에서 많은 것을 정리해 주는 활동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한다. 교사의 정리가 당장은 명쾌할지 모르지만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꺾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수업하는 주제는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인 ‘글의 목적에 맞게 글의 내용 요약하기’이다. 이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제재를 수업의 마무리 활동으로 배치하고, 간단한 문단부터 짧은 글까지 다양한 글을 바탕으로 5차시 정도 실제 요약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 학습지는 일반 과제와 조금 어려운 점프 과제로 구성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의 아이들은 서로 대화하고, 고민하며 함께 배운다. 이 수업에 대한 소감으로 아이들은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과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는 말을 했다. 국어 수업이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는 말은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비유적 표현 이해하기’의 주제로 수업을 했을 때는 교과서에 나온 제재가 기형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였다. 이 수업에서도 시를 분석하고, 해석해 주는 대신 ‘해가 졌다’와 ‘해가 시들었다’는 표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찬밥처럼 방에 담겨’,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내 유년의 뒷목’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모둠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점프 과제로는 주

제면에서 ‘엄마 걱정’과 유사한 도종환의 ‘수제비’라는 시를 읽고 비유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수업을 디자인했다.

교사가 아이들을 믿고, 안내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아이들은 교사가 믿는 만큼 성장한다. 수업을 디자인할 때도 활동의 중심에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함께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배움의 공동체’는 현재 진행형이다

매뉴얼이 없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럽기도 했고, 정교화되고,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수업이 아니라서 지금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 그러나 수업이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건축 설계도도 아니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 내는 과정도 아니다. 수업은 피가 돌고, 호흡이 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형화된 틀 안에 고여 있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의 작은 몸짓과 떨림까지도 한데 어우러져 살아 꿈틀대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보살펴야 하고, 누구 하나라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수업에서 아이들과 만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

사토 마나부 교수의 말대로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은 친구 관계가 무너져도 가정이 무너져도, 배우는 한 무너지지 않는다. 배움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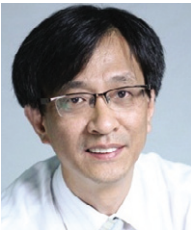
절망하고 도피하는 아이들은 쉽게 무너지며, 누구든 믿지 못한다. 그러기에 아이들에게 배움은 삶의 기둥이고 희망이며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면서, 수많은 갈등과 방황 속에서도 학교에 와서 배우는 아이들은 거뜬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 생겼다. 아이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바로 설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교사로서 그런 아이들 옆에서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배움중심 수업의 실천을 위하여

Project

6



글 > 강기룡

경기도 권선고등학교 수석교사



나의 수업을 성찰하게 한 세 컷의 만화

‘어느 날 함께 근무하시던 선생님께서 메신저로 보내주신 세 컷의 만화는 나에게 그간의 수업에 대해 많은 것들을 성찰하게

하였다. 만화의 내용은 남자 아이가 “바둑이에게 휘파람 부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여자 아이가 “바둑이가 휘파람을 불지 않았잖아?”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자 아이는 “나는 휘파람 부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지 바둑이가 배웠다고 하지는 않았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수업을 통해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 하지만 저 만화 속의 남자 아이처럼 정작 아이들이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나는 교사로서 주어진 수업을 행하였고 성실하게 진도를 나갔으며 이로서 나의 수업에 대한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정기고사를 보고 아이들의 답안지를 검토하는 순간 우리는 가르침과 배움 사이의 괴리를 깨닫게 된다. 왜 학생들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는 학생들의 배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가르침에서 문제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경기도의 ‘배움중심 수업’과의 만남

경기도의 배움중심 수업은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교사의 가르침(Teaching) 중심으로 수업을 바라보던 관점을 학생의 배움(Learning) 중심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배움중심 수업이다. 그간 수업 장면의 관찰에서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이 교사 쪽이었다면 배움중심 수업에서는 카메라의 방향을 학생 쪽으로 향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사는 더 이상 무대 위의 현자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배움을 위한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수 행위보다는 학습 행위가 중시되며, 교사는 미리 수업 내용을 연구해 와서 제공해 주는 정보제공

자의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 수업을 위한 학습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당연히 수업의 방법은 주입식 강의 위주의 수업을 탈피하여 학생의 이해와 참여를 중시하며 토론을 통한 사고력과 창의력의 신장이 중심이 된다.

무대 위의 현자	학생 곁의 안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Teaching) - 교사(정보제공자) - 학생(정보수혜자) - 수업 자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Learning) - 교사 (학습 조력자) - 학생 (정보창조자) - 학생 요구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입 / 강의 위주 - 교사주도의 통제 / 책임 - 탈맥락적인 학습 - 교과서 /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 참여 / 토론 위주 - 상호주도의 통제 / 책임 - 실제 유의미한 학습 - 열린 교육 정보

‘식당밥’이 아니라 ‘엄마밥’을 먹이자는 결심

경기도 교육청의 배움중심 수업 관점에 따라 나 스스로 수업의 큰 방향을 “식당밥이 아니라 ‘엄마밥’을 먹이는 수업을 하자.”로 정하였다. 누구에게나 메뉴에 정해진 대로 똑같은 밥을 제공하는 것이 ‘식당밥’이라면 ‘엄마밥’은 자식들을 개별적으로 대우하는 밥이다. ‘엄마밥’의 경우 어린 자식에게 먹이는 밥이 다르고 다 큰 자식에게 먹이는 밥이 다르다. 배가 아픈 자식에게는 밥이 아니라 죽을 쑤어서 먹인다. 짬 음식을 싫어하는 자식, 고기반찬을 좋아하는 자식, 편식하는 자식, 이빨이 좋지 않은 자식에게 먹이는 밥이 다 다른 것이 ‘엄마밥’이다.

교사를 주방장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교실을 빼곡히 매운 4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수업이란 한 끼의 밥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보자. 학생들은 자신의 식성에 맞지 않으면 교사의 밥을 외면하고 잠을 자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학생의 특이한 식성만을 탓하고 있을 일이 이제는 아니

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되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는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수준이 다르고 배움에 대한 기호가 다른 학생들을 향하여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밥상을 마련하듯 수업을 준비해 보자.

경기도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수업혁신의 정책 명칭인 ‘배움 중심의 수업 실천’이란 말은 그냥 들으면 쉽게 들어오지 않는 어려운 말이지만 ‘엄마 밥’이라고 하면 쉬워진다. 엄마 밥의 원리에 따라 이를 풀어쓰면 “배우는 자인 학생을 수업의 중심에 놓고 각 개별적 학생들이 모두 일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알맞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행하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실천하자”라고 풀어쓸 수 있겠다. 이를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고 부르든 ‘내용교수법(pck)’라는 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든 결국 큰 줄기는 ‘엄마 밥’을 먹이자는 것에 다른 아니지 않은가.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참 다양한 수준과 성향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살고 있다. 중학교 때 선두를 달리던 학생들이 존재하는 반면 공부에 관심이 없고 아무런 목표 의식도 없이 수업시간에 잠만 자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이토록 다양한 수준과 성향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배움중심의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수업은 배움의 공동체 이론을 활용한 수업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영어 시간에는 영어에 능통한 학생과 부족한 학생이 함께 모둠을 이루어 열심히 과업을 수행하고 능통한 학생과 부족한 학생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 발표한다. 그 모든 과정은 수행평가에 반영되며 가급적 그 평가의 기준은 발표 내용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줄 세우기 평가는 아니다. 모둠 구성원이 어떻게 상호 협동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가, 지난 시간의 수행 결과에 비해 어떤 진전이 이루어졌는가, 각 개인이

수행 과정 중 어떤 변화와 성취를 이루었는가 등을 다양하게 평가한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는 공동체의 정신을 배우며 그 이름도 거창한 창의인성 교육의 실재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

배움중심으로의 수업의 변화

집단화, 평균화 강제화된 학습

개별화, 차별화 주체화된 학습

식당밥

엄마밥

내 수업을 배움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지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형성시켜 가는 것이라는 지식관을 유지하자.

둘째, 수업의 주체는 철저하게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되도록 하자.

셋째, 학생들의 미래역량으로 중요시되는 집단지성을 통한 협업의 과정이 중시되도록 하자.

넷째,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하는 수업이 되도록 하자.

다섯째, 수업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

- ◆ 지식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설계된 수업인가?
- ◆ 지식에 대한 학습보다는 지식 형성의 과정을 중시하도록 설계된 수업인가?
- ◆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창의적 교육내용 재구성에 따라 설계된 수업인가?
- ◆ 교사의 교수 행위보다는 학습자의 배움의 과정이 중시되도록 설계된 수업인가?

- ◆교육의 과정에서 정의적 능력과 창의지성역량이 증진되도록 설계된수업인가?
- ◆학생의 특성,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된수업인가?

이러한 수업 설계의 방향은 배움중심 수업에서 지향하는 관점표를 활용하였다. 아래는 경기도의 중등 배움중심수업 관점표 중 수업설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수업의 큰 맥락을 정리한 후 수업의 모형에 대해 고심하였다. 한동안은 협동학습에 따른 모둠별 학습도 해 보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티커수업이란 것도 해 보았다. 하지만 현재 최종 종착지로 삼고 있는 수업 모형은 프로젝트 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이다. 내 경우에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큰 맥락을 먼저 정리하고 그러한 맥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찾아나서는 방식을 택하였다. 물론 여러 수업 모형들은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었고 어느 정도 배움중심 수업을 위한 훌륭한 방법론이 될 수 있었다. 다만 내 경우에는 문학 과목을 가르치다보니 그에 가장 적합한 기본 모형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정한 것일 뿐이다.

프로젝트 문학 발표 수업의 전개

프로젝트기반학습의 모형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의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아울러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로 도달할 수 있는 도착점이 교육과정상의 교육내용 요소와 성취기준과 일치할 수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이러한 복잡한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과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연구하여 발표의 과정까지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수업의 모형이 그렇듯이 이론과 실재는 늘 일치하지 않는다. 의욕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의 방향을 정하고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진행하려고 해도 실제 수업에서는 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모둠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진행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를 수행평가로 할 때 모둠별 점수와 개별 점수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자유로운 과제 수행을 통해 전

2학년 문학 프로젝트 발표 수업 안내

1. 발표 작품 순서

①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② 이육사, 교목 ③ 김춘수, 꽃 ④ 정지용, 향수 ⑤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⑥ 박재삼, 추억에서 ⑦ 기형도, 엄마생각 ⑧ 김동리, 역마 ⑨ 오상원, 유예 ⑩ 이근삼, 원고지

2. 발표 요령

① 4명의 모둠원이 '작가에 대한 소개', '작품에 대한 소개', '모둠별 감상', '작품과 관련된 토의 토론' 중 한가지씩 분담하여 연구 발표한다. ② 발표 전 반드시 1회 이상 선생님과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③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④ 모둠원들의 역할 분담 및 공동 협의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⑤ 발표와 함께 모둠별 토의·토론의 절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⑥ 작품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작가의 생애, 작품 세계, 관련 작품, 문학사적 의의, 시대적 배경 등을 조망하는 속에서 작품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수행 평가의 관점

① 작가 소개의 측면 : 작가에 대한 전기적 사실의

나열보다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력, 일화 등을 얼마나 요약적으로 흥미있게 잘 전달하는가?

① 작품 소개의 측면 :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나열보다는 작품 이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② 작품 감상의 측면 : 일반적인 감상과 함께 모둠원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감상이 얼마나 적절하게 소개되고 있는가?

③ 토의·토론의 측면 : 토의·토론의 내용이 가치성을 지닐 수 있는가와 친구들의 진지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④ 기타 관점 : 청자의 호응, 토의·토론 과정의 참여도, 제시된 자료의 참신성, 발표 내용의 창의성

4. 평가 및 결과물 활용

① 수행평가 10점 중 모둠 점수 4점, 개인별 점수 5점, 수업참여도 점수 1점으로 평가한다.

② 모둠별 토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모둠 및 개인에게는 수업참여도 상점 카드(0.1점)를 부여한다.

③ 발표의 결과물은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지정된 카페 (<http://cafe.daum.net/ksks2013>)에 탑재하고 향후 에듀팟 자료로 활용한다.

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 시 청자의 입장인 전체 학생들의 집중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1시간 동안 학습하는 양이 강의식 수업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등 여러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가며 프로젝트 수업의 모형은 완성되어 가며 지금도 보완 중인 셈이다.

2013년 현재 권선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였다.

수업 진행의 원칙은 단순하다. 학생들이 4명씩 모둠을 편성하여 한 가지씩 역할을 갖고 연구하고 함께 협력하여 한편의 문학 작품에 대해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하면 된다. 모든 것이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며 자신의 수준과 기호에 맞게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는 수업이다. 학업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 주로 토의토론을 맡아서 대화만 진행하면 된다. 인터넷 검색을 잘하는 학생의 경우 작가 소개나 작품 소개를 맡아 인터넷을 검색하여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프로젝트를 잘 만드는 친구는 또 그 부분을 맡으면 된다. 이처럼 각자의 역할을 모두 하나의 발표 작품이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서로 협력한다. 교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을 한다.

3월 초에 학생들에게 올해의 수업 시간이 어떠하면 좋겠느냐고 질문해 보면 거의 어김없이 학생들은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답한다. 그렇다 수업시간은 아무쪼록 재미있어야 한다. 프로젝트 발표 수업은 하나의 지도안을 가지고 어느 교실에서나 똑같은 수업이 진행되는 수업과는 비





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재미있다. 흔히들 프로젝트 수업의 꽃은 발표에 있다고 한다.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친구들이 하나의 문학 작품과 작가에 대해 연구한 바를 발표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은 즐거워한다. 잘하면 잘한다고 즐거워하고 잘하지 못하면 잘 못하는 것이 재미있어 즐거워한다. 교사는 잘하는 모둠에게는 박수와 격려로서 화답하면 되고, 못하는 모둠의 경우 빠진 부분을 보충해 주며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모두를 포용하면 그만이다.

아래의 그림은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여 발표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든 ppt 화면의 몇 장면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준에서 자신들이 관심 있는 그림으로 PPT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감상한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이를함께 보며 작품을 즐겁게 가지고 논다. 교사는 그 즐거움이 문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감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만 관여해 주면 그만이다. 교사 수준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화면을 만들 수는 없다. 학생들과 함께 감탄하며 교사도 즐겁게 논다. 물론 어떤 모둠에서는 PPT 화면 없이 네 명이 한꺼번에 교단 앞으로 나와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말로 발표한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이런 발표가 더 박력이 있고 멋있다. 어떤 모둠은 과잉준비(?)하여 한 편의 소설을 모둠원들이 배역을 맡아 동영상 영화로 제작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저 동영상을 찍으며 저들은 얼마나 즐겁게 까불고 행복했을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재미있게 감상하는 과정에서 모두들 소설의 줄거리를 훌륭하게 전달받는다.

배움중심 수업으로 놀라운 교실의 변화를 경험하며

학생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교실의 변화는 실로 놀랍다. 그리고 수업이 진행될수록 진정 배움을 얻는 주체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 교사들은 그간 한 번도 학생들에게 교실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음으로 해서 학생들의 끼와 능력에 대해 너무나 간과하였던 것은 아닐까?

늘 책상에 엮드려 잠만 자던 학생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신이 감당할만한, 그리고 잘할만한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변화하여 나타나는 모습은 사실 눈물겨운 바가 있다. 늘 사고만 일으키던 학생이 토의토론의 역할을 맡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발언하며 친구들의 발표를 리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기적'이란 단어를 떠올리게도 된다.


이런 수업이 매시간 학급마다 이루어지며, 학급마다 다른 학생들이 무대에 서며, 학급마다 특색 있는 발표들이 이루어지며, 학급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웃으며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마당을 수업 시간에 교탁 앞에 깔아줘 보라. 학생들이 놀라운 변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똑똑하며 역동적이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그 역동성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아주고 박수를 쳐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 연구는 이러한 학생들의 배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발현되는지를 끊임없는 실천과 성찰을 통해 터득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배움중심 수업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교육이란 알지 못하는 바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 마크 트웨인





기획특집 Ⅱ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지도

- **솔선·동행·나눔의 까치골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인천작전초등학교 교사 강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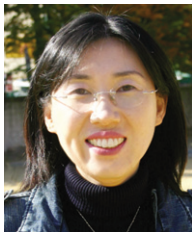
-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의 꿈나무**

인천하이텍고등학교 교장 허훈

- **사할린동포 자서전 써주기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인천고잔고등학교 교사 김석훈

솔선 · 동행 · 나눔의 까치골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글 > 강 효 진
인천작전초등학교 교사

요즘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거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욕을 입에 달고 산다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욕설이 습관화,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욕 문화’는 단지 언어 오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거친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로부터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다.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말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화합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는가?

본교 실태 조사

본교는 맞벌이 가정이 60.5%, 한부모 가정 및 결손 가정이 10%로 방과 후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예절을 돌봐줄 만한 어른이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학생들이 욕설을 배우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응답자도 의외로 많았다. 2011년 학교폭력예방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언어폭력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이 43%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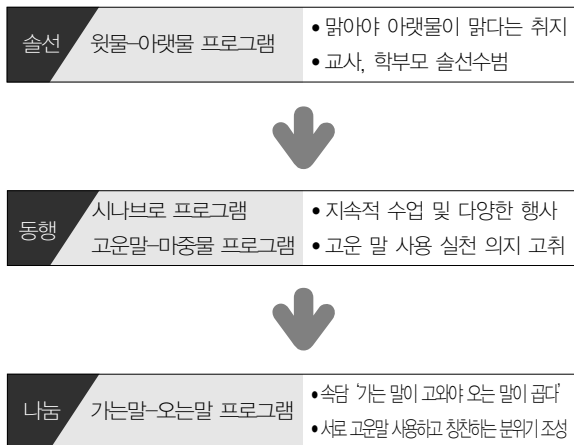
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학교 현장의 현실과 본교 학생들의 실태 조사결과 교직원 협의 및 학부모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언어폭력이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마침 한국교총에서 주관하는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로 선택되면서 언어문화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시도되는 언어문화개선 사업에서의 초점은 다
음 두 가지였다.

어떻게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바른 언어 습관
을 가지도록 노력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솔
선·동행·나눔의 까치골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솔선·동행·나눔의 까치골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은 솔선, 동행, 나눔이라는 3가지의 큰
주제 아래 ‘윗물-아랫물 프로그램’, ‘시나브로 프로그
램’, ‘마중물 프로그램’, ‘가는 말-오는 말 프로그램’ 이
란 4가지의 수행과제를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까치골 언어문화 개선 메뉴얼]



‘윗물-아랫물 프로그램’은 먼저 교사와 학부모가 학
생들에게 바른 말, 고운 말 사용을 솔선수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어 바람직한 언어 사
용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 그 바탕 가운데서 ‘시
나브로 프로그램’과 ‘고운 말-마중물 프로그램’을 통
해 학생들과 동행하여 지속적인 수업과 다양한 프로그
램들을 제공함으로써 바른 말, 고운 말의 중요성을 배
우고 실천의지를 고취시키며 스스로 바른 언어 사용을

생활화한다. 끝으로 나눔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 ‘가는
말-오는 말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주
고 칭찬해 주는 언어문화를 형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
록 구안하였다.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본교의 언어문화개선 활동은 앞에서 소개된 것처럼
각 수행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활동들을 중
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윗물-아랫물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바른 언어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와 학부모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학생들이 사랑의 언어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감성코칭 및 각종 부
모 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한국교총에서 배포하였던
교사용 언어 메뉴얼을 초등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교사들의 바른 언어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5월 둘째주년을 사랑의 언어 주간으로 정하여
교사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듣고 싶은 여러 가
지 말들을 들려주었다. ‘사랑해, 고마워, 넌 할 수 있어,



행복해' 등등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생활지도에도 효과를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는 '미디어 프리데이'이다. 매주 화요일을 '미디어 프리데이'로 지정하고 이 날만큼은 TV, 라디오, 컴퓨터, 휴대폰 등의 매체 사용을 지양하고 친구나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늘려 바람직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한 날이다. 아직 활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학년말에 '미디어 프리데이' 실천 사례 수기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면서 점차 학교의 취지를 알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학생회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언어문화개선 캠페인 활동,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급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는 언어문화개선 캠페인 활동, 청소년단체에서 하는 언어문화개선 캠페인 활동 등 각종 캠페인 활동은 본교가 언어문화개선 선도 학교임을 학생들에게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부모님들과 같이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학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학급 내에서 교사와 학생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다. 교실 내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하며 바른 언어 문화를 형성하도록 도와가는 '시나브로 프로그램'과 '고운 말-마중물 프로그램'은 사제 동행 속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 바른 언어문화가 조금씩 젖어들어 바른 언어문화 지킴이에서 이끔이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기 초에 분석한 교육과정용 토대로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들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른 언어문화가 정착되도록 돕고 고운 말 사용 실천 의지를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학년별로 선정한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급은 시나브로 프로그램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학년별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가 다르다보니 모든 학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학년 수준에 맞게 학년별로 적용해야 하는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이 있기에 학년별로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급을 두게 되었다.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급을 맡은 교사는 언어폭력에 대한 연수를 받고, 학년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안을 10차시 이상 구성하여 동학년에 배포해 각 학급에서 일반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학년군인 1,2학년은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재구성하며, 중학년군인 3,4학년은 학생들이 조금씩 욕을 배우는 단계로 언어폭력을 근절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수업을 재구성하고 있고, 고학년군인 5, 6학년은 이미 욕설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차원으로 수업을 재구성하고 있다.

학급마다 놓여 있는 '바른 말, 고운 말 추천 어린이함'을 이용한 '바른 말 지킴이 암행어사제'는 시나브로 프로그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교에서 특별히 제작한 마패 열쇠고리는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다.

바른 말 지킴이 암행어사제는 담임교사가 바른 언어문화 지킴이를 2명 뽑는다. 이 학생들은 한 주간 암행어사가 되어 학급에서 제일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 학생 2명을 뽑고 그 친구의 이름을 바른 말, 고운 말 추천 어린이함에 집어 넣는다. 그리고 이 학생들까지 포함하여 총 4명의 학생들이 다음 주 바른 언어 문화 지킴이 된다. 이렇게 수를 늘리다 보면 결국 한 학급 전체가 바른 언어문화 지킴이가 된다. 학생들이 매주 마다 제출한 추천용지는 학기말에 개봉되며 이들 중 제일 이름이 많이 적혔던 학생들을 순서대로 6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학생들이 만든 표어와 포스터 작품은 학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쇄소에 맡겨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인근에 있는 지역사회 기관에 홍보하고 게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노력만으로 언어문화가 바르게 개선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어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홍보하기 위해 갔던 학생들은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돌아온다.

10월 9일 한글날 기념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운 말-마중물 프로그램’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학년별로 특색 있는 바른 말 사용 대회를 열 뿐만 아니라 언어문화개선 선포식과 나쁜 말 없애기 활동이 특징적이다. 우물쭈물 길러내기 위해 붓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처럼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욕설 사용에 대해 자각하고 바른 우리 말 사용을 생활화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쁜 말 없애기 활동은 학교폭력예방의 날 운영이나 인성 주간 운영 때 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나쁜 말을 사용할 때 학급에 비치된 ‘나쁜 말 버리기함’에 자신이 사용한 나쁜 말을 적어서 넣고 교사가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활동을 말한다.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 활동이었다는 대답이 많았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본교에서는 체육대회를 연다. 이날만큼은 부모님, 지역사회 어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로서 체육대회에 앞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어른들 앞에서 전교생이 언어문화개선 선포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겠다는 엄숙한 선서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본교의 언어문화개선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드라마치료전문가를 초빙하여 평소 욕설 사용이 잦은 고학년 학생들 중 자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도한 ‘욕 순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지만 교사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 프로그램이었다. 욕설 사용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 사용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욕 순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투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가는 말 - 오는 말 프로그램’은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듯이 학생 상호간에 사랑과 배려의 언어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 칭찬게시판에 칭찬 글을 올리는 활동, 팝업창에 이 달의 예쁜 말을 올리는 활동, 대중매체를

모니터링 하고 제작진에게 편지 쓰기 활동, 바른 언어 사용 체험일 운영, Apple Day운영과 같은 여러 활동들이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를 모니터링하고 제작진에게 편지쓰기 활동은 고학년 학생들에게 이루어졌던 활동으로 다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대중매체를 대할 때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했던 바른 언어 사용 체험일 운영은 일종의 언어문화개선 퍼포먼스로서 학생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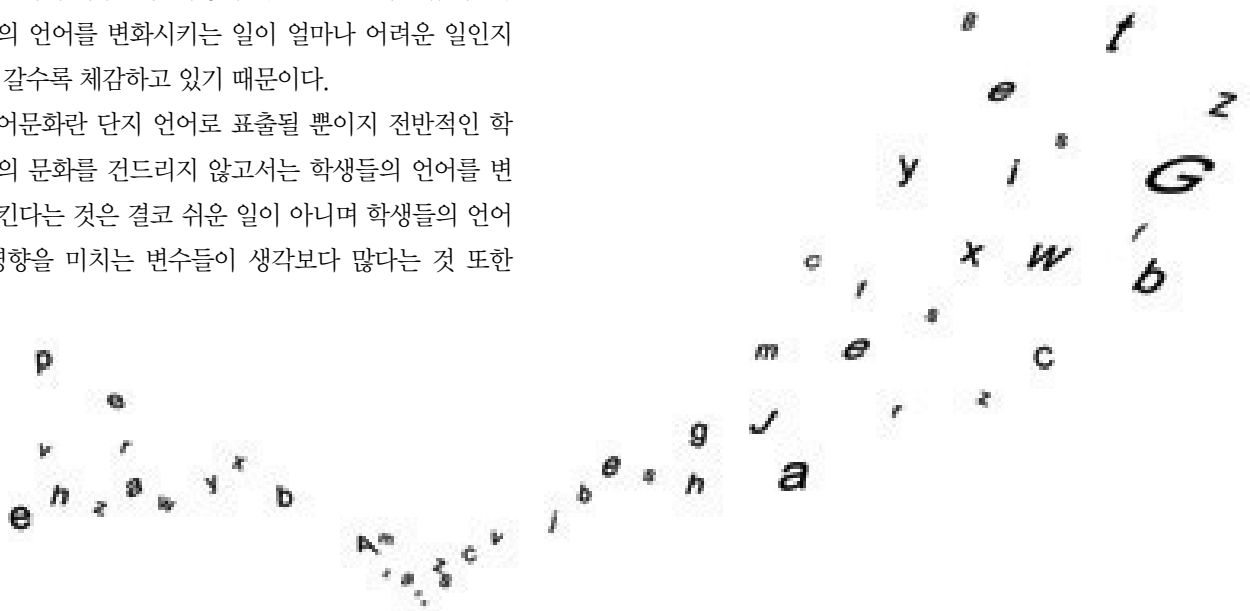
언어문화개선 활동이 나아갈 방향

2011년부터 시작된 본교의 언어문화개선 활동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설문조사 결과 언어폭력으로 인한 학생들 간의 다툼이 26.9%로 감소되었으며 하루 동안 욕설 사용을 전혀 하지 않게 된 학생들도 25.1% 증가되었다는 반가운 결과가 나왔다. 또한 본교의 이러한 다양한 언어문화 개선 활동은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로서의 자부심 못지않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학생들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가 갈수록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문화란 단지 언어로 표출될 뿐이지 전반적인 학생들의 문화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언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학생들의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또한

바른 언어문화 환경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지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따뜻하고 고운 말, 사랑과 배려의 언어를 학생들에게 익히도록 하는 것은 다소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과 함께 말이다.

교육의 효과는 일회적인 이벤트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본교는 오늘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를 성찰하고 바르고 고운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선도자의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의 꿈나무



글 > 허 훈
인천하이텍고등학교 교장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인천하이텍고등학교는 과거 낙후된 교육 시설과 교육 환경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학교였다. 예컨대 대부분 중학교 때 성적이 석차백분율 95%~100%사이로 학력이 인천시내 최하위권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학습의지가 부족하고 성취욕이 낮아 학생지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가수준학력평가에서 기초학력이나 기초학력미달이 98%로 나타났고, 가정환경은 부모가 대개 생계형 맞벌이이고, 결손가정이 많아 학생들이 대부분 방과후에 방치되어 PC방이나 유흥시설 등을 들락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뿐 아니라 부임하기 전년도 중도탈락생수가 무려 180여 명에 달하여, 전체 학생의 20%가 넘는 수치였다. 학교의 존폐와 관련된 심각한 상황이었다.

변화를 위한 첫걸음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임하여 가장 처음 추진한 일은 과거 ‘운봉공업고등학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여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학생과 교육활동이 유리될 수밖에 없기에 학교 개명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동창회의 반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 시교육청 및 시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개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노력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인천하이텍고등학교’로 개명(2012.7.16.)하여 제2의 개교를 단행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40년이 넘는 낡은 교육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하였다. 우선 학생들이 사용하는 협소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던 매점을 밝고, 넓은 곳으로 옮겨 교실 2.5실 규모로 확장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화장실은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었고, 흡연학생이 많고 지저분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화장실을 새로 리모델링하여 재래식변기를 모두 양변기로 시설을 개조하였고, 일부 변기에는 비데를 설치하였다. 교내 곳곳에 인공화단과 화분을 설치하여 자칫 건조해지기 쉬운 특성화고 학생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 인천 중학생 및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학교에서, 2012~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많은 학생이 탈락하였다. 내년에는 학과 개편과 실용적인 교복의 보급, 입학사정관제도 대비 진로교육, 동아리 활동 활성화, 자율적인 학생활동의 신장을 통해 즐거운 학교,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노력

학생과 교직원 모두 처음에는 변화에 두려워했다. 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과 학생들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 있었지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하였다. 학교장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으로는 지금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학생, 교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상호 존중하는 마음은 인천하이텍고등학교를 미래지향적이고 희망 있는 학교로 부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천하이텍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 모두가 같은 교육목표 아래 일체감 있는 교육과 지도를 펼친다는 점이다. 교육자로서 자기성찰과 긍정적 마인드를 통해 공동체의식으로 승화되어 교육철학과 교육방침 면에서 분열 없이 교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학생들의 변화는 전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 비결은 교과목 지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배려, 공동체의식, 친절, 예절을 강조하는 교육방침과 함께 학생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교직원의 솔선수범이다. 우리학교는 학교장이 직접 등하곶길 학생생활지도를 하며 교문 앞에 서서 학생을 반갑게 맞이하고, 학생 화장실을 같이 쓰는 등 아이들과 한 번이라도 더 정감 있는 대화를 하고 눈을 맞추며 개인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관심을 받는 학생들은 신기할 정도로 생활태도가 좋아지고, 학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학교의 변화의 비결은 앞서 말한 학교의 교육방침과 학생들을 향한 교직원들의 관심임에 틀림없다. 또 ‘두발자율화’, ‘자유 복장’ 등 형식의 자유를 갈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가방을 안가지고 다니는 학생이 많았으며,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습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설득과 이해를 구하였다. 가방을 가지고 등교하기, 교내에서 핸드폰 사용 안하기 등 학생자치회 의결로 스스로 솔선수범하도록 지도하다보니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방침에 스스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꿈나무의 꿈을 영글어주는 인성교육의 실천

1. 기본생활습관지도의 강화

우리학교 학생들은 입학 시 대체적으로 학습의욕이 매우 낮고 기본생활태도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 초기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향과 특성에 맞추어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바른 기본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배꼽인사하기, 고운 말 쓰기,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인사습관과 함께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도 함께 자라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습관지도는 단시일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전교사가 동참하여 이루어지며 수업시간과 그 외의 교내에서 학생들을 마주칠 때마다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공과 교사와 학생부 교사들이 연계하여 지각하는 학생들의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등교시부터 1교시 까지 교사들이 요일별로 분담하여 철저히 지도한 결과 지각생뿐만 아니라 결석생도 확연히 줄어들어 학기 초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2. 꿈과 끼를 길러주는 동아리 활동 활성화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기 계발 및 자아실현 기회로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동아리 활동 방향과 내용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동아리로 70여 개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전국 어느 학교도 흔치 않은 30여 개 이상의 동아리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도교사를 반드시 임명하여 동아리 활동이 구심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및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2학기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익힌 작품과 특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교내 축제인 ‘은향제’를 통해 공연과 전시의 마당을 제공하고, 이러한 행사를 학생회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우리학교에는 자랑거리가 많지만 축구동아리가 그중 하나이다. 우리학교 축구동아리가 2012년 7월 제주에서 열린 제20회 백록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아깝게 준우승하고, 이후 7개월 만에 전국의 강자들을 제치고 2013 금석배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변변한 연습장조차 없는 열악한 훈련 환경 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최선을 다해 우승컵을 품에 안으며 축구 명문 학교로 우뚝 서게 되었다.



3. 하나하나의 재능을 일구어주는 진로교육

2012년 중소기업청 지원 특성화고 육성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1년에 2억 원씩 2년째 지원받고 있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의 향상 및 취업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인천 하이텍고등학교는 이제는 진학과 취업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진로교육도 진학과 취업의 투-트랙(Two-Track)전략으로 수도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70여명이 진학하였고, 우수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100여명 취업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사회의 변화 흐름에 맞춰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에게 우수강사를 초청하여 질 높은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한 기초교육 및 자격증 지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인성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인·적성을 향상시키고 취업캠프를 통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교육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으며 중소기업 이해연수를 통해 기업 바로 알기 운동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산업체 학교간의 3자 협약을 통한 취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는 좋은 회사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학교에게는 올바른 취업교육 및 취업률 향상을, 회사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업체에 적합한 인증을 갖추기 위해 자격증 및 취업소양교육을 받아 취업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졸업생의 82%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운동부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1인 1자격증 목표로 기능연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산업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 기능인력 확보와 학생의 자발적인 사고·탐구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전기기기와 타일 2직종의 기능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기술을 선도하여 우수기술을 파급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3년 인천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타일부문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전 부문에 걸쳐 수상하였고, 전기기기부문에서는 은메달 1개를 수상하였다. 이들은 매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올 9월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비하여 늦은 밤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게 하며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간의 친밀한 관계를 도모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3월 초에 학과별로 '학과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처음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는 빨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제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과 학과 오리엔테이션, 선후배와의 만남의 시간 등은 즐겁고 유익한 행사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도약의 꿈

학교장으로서 2년 동안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섬기며 매일 꿈을 꾸다. 그리고 매일 기도한다. 학교경영자로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학교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학교 인근에는 특성화고만 산업학교를 포함하여 6개가 밀집되어있어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많고, 학생들의 학교로의 접근성이 나빠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결석은 일정부분 학교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학교가 특성화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우리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우리학교는 건설 분야 특성화학교이다. 지금은 냉각기이지만 남북협력의 재개되면 건설관련 인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30년 된 노후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할린 동포 자서전 써주기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글 > 김 석 훈
인천고잔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가르치던 일제강점기의 해외 동포, 그리고 차별과 냉대 속에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할린, 사할린 동포. 광복을 맞이하면서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떠나는 배를 눈 앞에 두고 타지 못해 뒤돌아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사할린 남쪽 항구 코르사코프의 언덕,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속에 질곡의 세월을 보낸 그들 앞에서 뭔가 숙연해짐을 느낀다.

만남 그리고 인연맺기

옛 속담에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 않았던가? 지금부터 2년 전 2011년 8월 사할린 동포가 남동구 논현동 주공 5단지, 일명 달맞이 마을에 살고 계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아파트에는 다른 곳에 비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살고 계신다”거나 “방학이면 얼굴이

예쁜 외국인 손자, 손녀들이 많이 찾아 온다”는 정도였다.

한별단 동아리에서는 그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 자체가 한국 현대사를 밝힐 수 있는 사료(史料)의 보고이자 역사교육을 위한 산 교육의 장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생과의 만남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첫 만남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동포분들이 단순히 경로당 청소와 같은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고 거부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이 제

대로 전달된 것 같지 않아 다시 시도하였고, 역사교사로서 사할린에 대한 과거사의 진실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인식을 함께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취지를 듣고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이후 공휴일을 이용한 정기적 만남으로 이어졌고, 피해와 차별로 점철된 사할린 동포의 일생은 학생들과의 만남 속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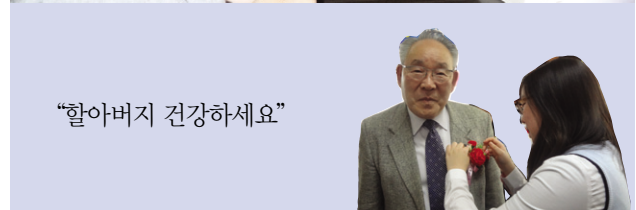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작은 인연은 점차 큰 인연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본교와 사할린 경로회 사이에 자매결연(2011. 10. 17)을 맺게 되었다. 나아가 2012년에는 남동구 차원에서 사할린 동포들의 복지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남동구청과 재능기부 협약식(2012. 8. 27)을 체결하여 관민 합동의 두터운 인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서전 쓰기로 풍성해진 마음씀씀이 모습들

사실 사할린에 관한 역사적 자료는 많지 않다. 이번에 작성한 자서전은 출생지역(남한, 북한, 일본 등)이 다르며, 사할린으로 이동시기 및 경로, 현지에서의 차별적 삶, 영주 귀국 과정, 귀국 후 정착과정의 문제점 등 구체적 사례를 다루었다. 모두 4분을 대상으로 했으며, 한 분의 동포마다 3명씩 모두 12명이 자서전 쓰기를 담당하였고, 주로 학교에서 좌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자서전 쓰기를 통해 변화된 마음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새 가족의 탄생,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

정기적 만남은 또 다른 새 가족을 형성하였다. 만남이 거듭되고 궁금증이 해결되면 자연스레 정이 드는 법. 손자들을 러시아에 두고 온 할아버지들은 자신의 손녀처럼, 핵가족 속에 친할아버지와 떨어져 살던 학생들은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서로에 대한 친밀함이 더해졌다.



때에 따라서는 동포분의 가정 방문 및 러시아·한국 음식 나누기로 이어졌고, 설날 새배드리기,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학교 행사 초대하기(동아리 발표회 및 체육대회 등)를 실천하여 한 가족같은 따뜻한 동포애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계기였다.

그리고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며 연말에 이뤄지는 할아버지께 편지 쓰고 자신의 느낀 점을 발표할 때는 한 가족으로서의 의식은 물론 같은 혈육임을 다시 한 번 공감할 수 있는 진한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동포들의 증언을 통해 과거의 차별과 냉대의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마음 속 깊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었다.

<p>무한 경쟁 시대에서 앞만 보며 자신의 것을 챙기 기 바빠 주변을 볼 줄 모르는 현대인. 나또한 그런 현대인 중의 한 명이었고 그 중 가장 치열하다고 자 부하는 입시전쟁에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늘 교과과정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으나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막 막했던 부분이기도 하였다.</p>	
<p>이런 내게 사할런 동포 어르신 분들의 존재는 나 에게 실천이라는 기회를 주셨다. 나와는 다른 시대 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누군가 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 는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딱딱한 역 사책에는 기록 되어 있지 않은 가슴 아픈 역사 를 몸으로 부딪치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역사를 받아 들여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었다. 할아버지들과 단순히 일회성의 관계가 아닌 정기적인 만남은 할아버지 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이런 관계를 통해 역사적 인식 뿐 만 아니라 어른에 대한 공경, 배려, 이해심 또한 형성하며 서로 다른 세대문화를 뛰어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p>	
<p>할아버지의 자서전을 쓰며 또한 사할런의 아픈 역 사를 알아가며 주변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이 로서 앞만 보는 삶이 아닌 주변을 둘러보고 살피며 함께 가는 삶을 배울 수 있었다.</p>	
	정재연(3학년)

배려와 이해심, 세대를 뛰어넘는 관계 형성에 기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서전 쓰기 활동을 통해,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점차 내면을 성숙시켜 나갔다. 그것은 이 행사에 참
여했던 정재연(3학년) 학생의 소감문을 통해 알 수 있다.

<p>일제강점기 수난의 역사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 아온 우리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그 분 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삶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p>	
<p>학교·학원집, 반복되는 전형적인 일상. 그리고 똑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경쟁하고 달려가는 획일화된 모습들 이런 현대 사회의 각박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온정을 느끼고 싶었던 제게, 그 런 이해와 공감의 시간들은 개인주의가 다소 자리 잡고 있었던 제 마음에 치유의 시간을 선물해 주었 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가능 케 하였습니다.</p>	
<p>특히, 자서전을 써내려가면서 나에게 없는 그 사 람만이 지닌 고유의 기억과 인생의 궤적을 되짚고 그 같은 여정에 같이 동행하며 동일한 정서를 공유 한다는 점은 나만의 시각이 아닌 타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p>	
<p>그렇기에 사할런 활동은 고장고등학교의 교육 이 념 중 배려와 항목을 가장 잘 실천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이로 써 형성된 '사람으로의 다가감'은 사람에 대한 다양 성과 인간에 대한 가치 인식까지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p>	
	송지영(3학년)

소통, 역지사지하는 마음의 문 열게 해줘

대체로 핵가족 세대의 요즘 학생들은 개인주의에 빠져 이타심
이 부족한 편이다. 만남을 통해 성숙된 배려심을 갖게 된 송지
영(3학년) 학생의 소감문은 좋은 인성 함양의 사례가 되고 있다.



사할린 동포가 맺어 준 인연, 그리고 앞으로 지녀야 할 고운 마음들

현재까지 사할린 동포와 인연을 맺은 학생은 2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40명에 이른다. 학생에게는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언니, 또래, 후배가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글로벌 마인드 형성과 함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할 것이다. 사할린 동포들의 손자들이 방문하면 교육 복지 지원 등 남동구청과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동포를 위한 모국어 학습, 학교 시설 탐방, 전통 및 미래 문화 체험 등이 예정되어 있다. 아마도 행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교포 또래와의 만남은 한국인으로서 동질성 확인은 물론 글로벌 마인드 함양,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러시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선후배 인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애교심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은 각 기수별로 활동하였다. 많은 산출물이 있었지만, 전체가 모여 할 수 있었던 활동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선배가 미완의 과제로 남긴 것을 중심으로 후배가 보완해 나가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공동의 관심사에서 비롯된 학교에서 만난 인연은 졸업 후에도 선후배의 단결과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이 통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학년을 달리하거나 졸업한 대학생 선배와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경험의 다양함이 더해져 폭넓은 생각을 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지구촌 가족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생-할아버지로 이어지는 새 가족이 형성되었지만, 점차 동포들의 후손이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또래의 새 식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대에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점차 한국과 러시아의 교환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서 새로운 지구촌 가족 탄생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th

CONGRATULATIONS!

개원 30주년 기념 특집



● [사진으로 보는 교육과학연구원 30년사]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회고기]

— 다시 돌아보는 연구원 시절

전)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이기문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30주년을 기리며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장 이평윤

● [교육과학연구원에 바란다]

— 기획연구평가부에 바란다

전)강화교육장 진익천

— “교육정보화의 허브” 교육정보자료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직업교육과 장학관 김태민

— 인천학생과학관에 바란다

인천고잔고등학교 교장 김기룡

사진으로 보는 인천교육과학연구원 30년사

자유공원청사 (1982.3.1~2000.9.24)



화학실험실 설비 및 기구



시지정 학교정화 시범 연구보고회

대지 및 건물 현황	
대지	: 6,436㎡ (1950 평)
건평	: 기존 건물 (미술실) : 678㎡ (206 평)
	신축 건물 (실험실) : 573㎡ (174 평)
	계축 건물 : 1,272㎡ (386 평)
총	: 2,523㎡ (766 평)

대지 및 건물 현황



인천교육지 발간 일선학교 배부



▲ 전산실습실



◀ 신·개축 공사중 원내 전경



화학실험실 설비 및 기구



△ 지역자료실
(일선 각급교에 교재 대여 및 상담)



중·고등 실험평가



과학교구 상설전시실



제1회 인천직할시 탐구사례 발표대회



본원(송월동) 정문

▶ 신·개축 완공 후
원내 전경



1983.11.15~16 인천직할시 학생과학실험대회

주최: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주관: 인천직할시 과학연구원



◀ 1983.11.15~16 제 1회 인천직할시 학생과학실험대회



1982.6.8 학생미술교육관



1983.8.8~11 국민학교 교사 미술실기 연수



1988.4.18 제2기 상담자원봉사자 연수회

▼ 본원(송월동)
신·개축 공사 이전의 모습

▶ 1983.2.2 인천직할시
과학연구원 설치조례





1983.11.15~16 제1회 인천직할시 학생과학실험대회 참가학생 모습



1983.11.21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 지정 주5일수업제 연구보고회



1984.11.15~16 제2회 학생과학실험실기대회 참가한 초등학생 모습



1989.11.20 제33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제20회 전국교육자료전 시상식

▶ 본원(송월동)
신·개축 공사 이후의 모습



사진으로 보는 인천교육과학연구원 30년사

영증도청사 (2000.9.25~현재)



2008.2.18 실험용 우리들은 1학년교과서 개발 편찬 협의회



2005.4.20 사이버가정학습 (인천e스쿨) 개통식



2009.1.6 과학교과 탐구실험직무연수



2009.4.24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자체 연찬회



2009.12.28 제27회 학생과학실험대회

◀ 2008.3.26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협력학교 연수회





2011.5.24 학교평가지표 · 편람개발



2012.7.27 제 32회 인천교육자료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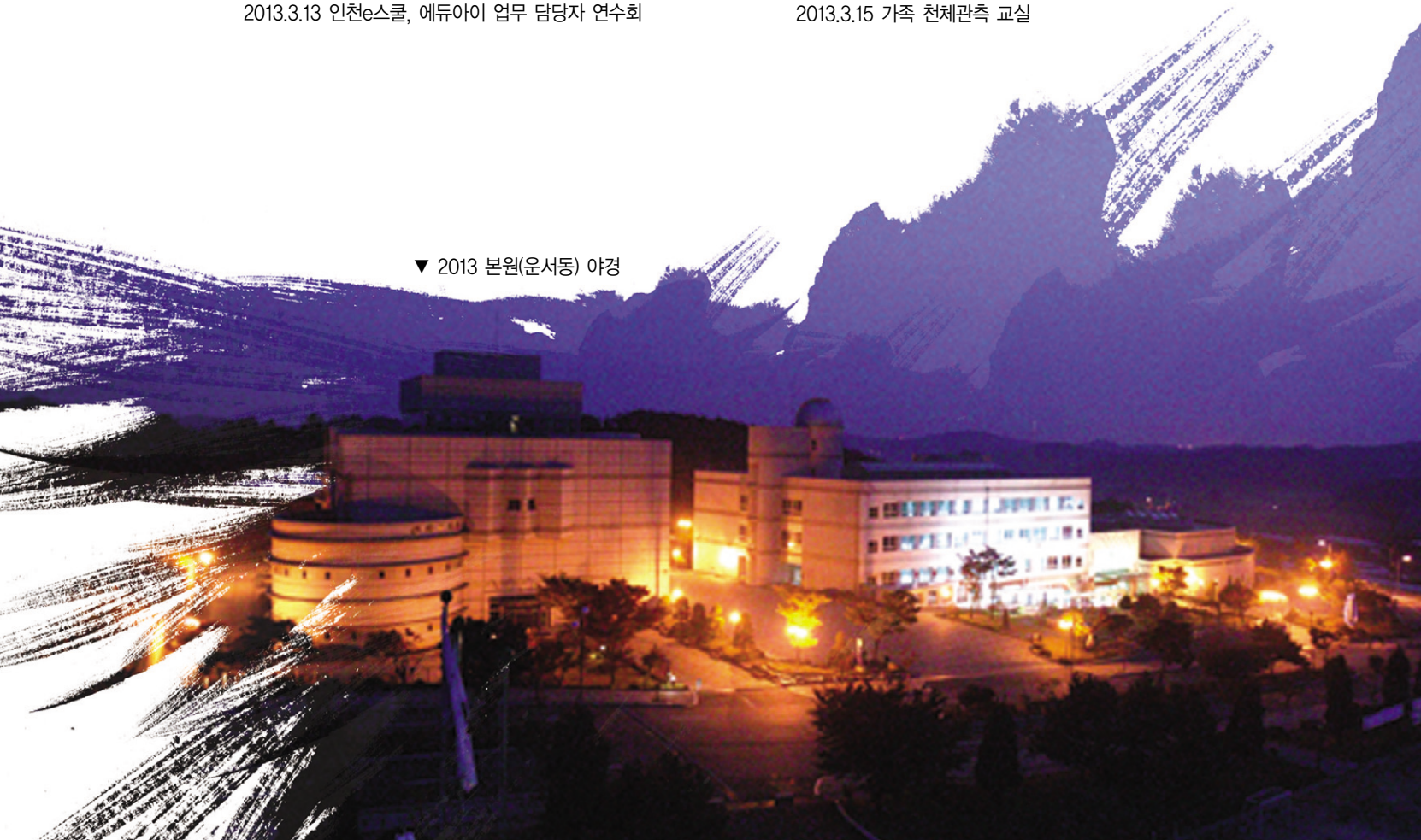


2013.3.13 인천e스쿨, 에듀아이 업무 담당자 연수회



2013.3.15 가족 천체관측 교실

▼ 2013 본원(운서동) 야경





다시 돌아보는 연구원 시절



글 > 이 기 문

전) 인천광역시교육과학원 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은 지금의 자유공원에 위치했던 인천북성초등학교 건물을 개축한 뒤 (현재 자유 유치원) 1983년 3월 1일 인천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으로 개원하여 (초대 신홍균 원장)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처음으로 연구원 설립은 '진취 창조적 인간 육성을 위한 봉사 책임'이라는 주제 아래 전 연구원 직원이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오늘의 교육과학연구원이 되도록 하는데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파견교사 시절

당시 신광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필자는 교육과학연구원 내 미술교육관 파견교사의 자격으로 1985년 3월부터 2년간 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미술 교육관에서 박충길 연구사, 한윤규 연구사와 함께 일선학교에서 지원하여 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미술, 만들기 공작, 서예를 특별 지도하였다.

그 당시는 초등학교 건물을 개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예산, 인력 및 공간 등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기사, 연구사, 부장, 원장 모두 화단 만들기, 축대 쌓기 등 매일 매일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모두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나마 송학동에 있었던 교육과학연구원이라는 모습의 청사로 탈바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연구사 시절

그 후 2대 조준목 원장, 3대 박수남 원장을 거쳐 1990년 9월에야 제4대 윤의순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라는 직임을 얻고 나서, 그해 9월 1일자로 교육자료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 파견교사를 면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의 정식 직원인 교육연구사의 자격으로 근무한 것이다.

이때 기억에 남는 것은 연구지도부에 근무하시는 조주호 연구사와 교육자료부 임석수 연구사와 촬영을 담당한 윤광현, 신익균 기사와 함께 ‘인천의 열 교육’ 지도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인천시내 문학산, 계양산 일대와 녹청자도요지, 소래 일대 등을 고루 돌아다니며 촬영하여 교육연구지도부에서 글을 쓰고 그에 따른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발간한 ‘자랑스런 내 고장 인천’ 책자를 교재로 발간·보급하여 활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던 중 본래의 업무인 연구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 연구, 교사 연수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 따른 알맞은 자료를 열심히 개발·진행하게 되었다.

교육연구관 시절

한편 교육과학연구원은 제5대 이상용 원장 시절을 거쳐 1993년 9월 1일자로 제 6대 김교대 원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열심히 연구원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시교육청으로부터 1995년 9월 1일자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연구원 업무에 충신했던 중 갑자기 시교육청으로 들어가서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으니 앞으로 1996 교육개혁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이오니 모든 업무를 시교육청으로 파견 나와서 준

비를 철저히 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야 그 업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하자면 먼저 필자가 기획반장을 맡고, 초·중등 장학사로는 심상선, 오장석, 이평운, 황원용, 노경래, 조규석, 박승수를 선정하고, 교사로는 남기중(용현); 전시기획, 이찬우(인천고); 디자인/미술, 공덕환(석천초); 멀티미디어, 박희선(부광고); 시나리오작성, 서권수(여자공예고); 시각디자인/광고, 신상수(만수초); 사진, 박문기(청학공고); 모형실물자료, 손낙실(만수북초); 영상자료를 맡고, 행정지원으로는 재무과장 권오균, 기획계장 이규진, 행정주사 박자홍 등이 박람회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데 온갖 열성을 다하였다.

전시내용으로는 안내, 상징조형물, 인천교육 비전을 설치하여 전시관 안내 및 인천교육의 현황과 미래모습을 제시하도록 하고, 실천하는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에 알맞은 수범사례, 향토애호, 전통문화 계승교육사례를 전시토록하고, 자연의 탐구관 주제로 현장탐구학습활동, 창의성교육사례 등을, 열린과학교실은 탐구실험교실 6개 주제 2 코너를 실연코너로, 여성 산업 기술 교육면은 FMS장비 실습실연, 실업고 교육과정 학습결과물제시, 자율적 학교경영면에는 동학년중심 학교경영, 학교경영 우수사례를, 멀티미디어실관은 멀티미디어실실연, 화상 정보통신 학습, 교육용 s/w전시, 미래도서관 활용 등을 터치스크린과 패널 등을 활용하여 전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박람회가 끝난 후 개최 홍보용 책자 3만부와 인천교육 홍보용으로 6만 2천부의 팸플렛을 만들어 활용하였으며, 안내 책자로는 4만 2천부를 만들어 제작 홍보하였다. 박람회가 끝난 후 결과 보고서를 500부 인쇄하여 행정기관과 학교에 배부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1996 교육개혁박람회는 각 시도교육청이 거둔 교육개혁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한 장소에서 직접 접해보고, 우리교육의 미래를 직접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박람회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개혁박람회를 통해 인천교육의 시책과 연계하여 교육개혁과 관련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내용과 사례는 물론 인천교육의 미래상을 효율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인천교육의 참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말없이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해준 임

원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한다.

그 후 1996년 9월 1일부터 제7대 이성구 원장님이 취임하여 인천지역의 선사문화와 일반화 자료집, 교육전문직 연구논문집을 다수 발간·보급하였고, 인천과학, 제43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품 설명서를 교사 등 많은 자료를 발간·보급하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연수와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지도하여 많은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998년 9월 1일자로 제8대 김순수 원장님이 취임하여 컴퓨터 교육,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인천진로교육, 열린교육, 교육전문직 연구논문집, 현장교육 연구논문집, 실험실습 보조자료, 연구보고서(초, 중등 편), 향토교육자료 등의 업무를 계속 추진하였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시절

1999년 9월 1일자로 유병세 교육감님으로부터 교육과학연구원장 발령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육과학연구원 공사를 완성토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듣고나서 기쁜마음과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로 시교육청 각과에 고루 인사를 마치고 나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돌아와서는 말은 업무를 잘 하여 으뜸가는 교육과학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교육청에서는 유병세교육감님이 정년퇴임하고 나근형 교육감님이 부임하여 새로운 인천교육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그 당시 교육과학연구원이 각층별 골조와 각 실이 벽조만 다 완성되어가고 각 사무실만 우선 완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까를 각 부장님들과 의논하고 생각을 하기로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제일 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많은 돈을 시청 시의원들에게 요청하여 통과해야만 돈을 쓸 수 있기에 근 일주일 이상을 시의원 집을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며 교육과학연구원이 왜 필요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예산 사용설명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와서 시 의회가 끝나갈 무렵에 병원에 입원하여 10여 일 이상을 입원을 하고 나서야 이제 쉬면서 내 몸을 편히 돌보아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돌아왔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보고를 듣고 보니 시에서 준 약 34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었고, 이 돈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과학연구원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든 개인적인 생각은 뒤로 하고 또 다시 교육과학연구원을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하며 씨름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 부장회의에서 협의하고 의논한 내용대로 완성해 나가기로 하고, 먼저 교육 자료부의 컴퓨터실로부터 시작해서 과학부의 각 실별로 특색에 알맞도록 열심히 추진하기로 하는데 이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은 먼저 일본에 나가서 과학교육에 따른 교육내용과 방법 그리고 과학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설 하였는가를 일일이 여러 과학관과 자료들을 고루 살펴보고 돌아와서는 각 부장들과 담당 연구사들과 함께 과학교육부의 과학상설전시관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멀리 외부로 나가서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의논한 끝에 선정된 자료를 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의 내용물을 근 1년 동안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업자 선정을 마쳤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학상설전시관의 내부전시장과 각 부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내부 시설로는 지하에서부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 식당, 체력 단련실 수족관관리실을 1층에는 조사연구부장실, 조사연구부, 원장실, 총무부장실, 강당, 특별전시장, 숙직실, 기사대기실, 중앙통제실, 세미나실, 암실, 양호실 등을 배치였고 2층에는 학생과학관 운영 팀, 스튜디오, 영상자료 제작실, 교육정보자료부, 문헌자료실, 정보교육실, 교육정보부장실, 소회의실, 전산실 등을 배치하였고 3층에는 생물실험실, 준비실, 과학교육부장실, 화학 준비실, 화학실험실, 전자 현미경실, 물리실험실, 준비실, 천체과학실과 전망대 등을 설치·완료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으로 돈을 안 들이고 얻어 올 수 있는 것을 알아봐서 주변에 알고 있는 학교에 찾아다니며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얻어오기 시작하였다. 우선 우리 집과 동네에서 캐올 수 있는 감나무와 향나무 그리고 영종초등학교에서 베라켄샤스 2-3 백주를 얻어다 연구원 뒤쪽과 암석원 위쪽에 심는 등 나무심기에 알맞은 나무와 꽃나무를 찾아다니며 얻어다 심는데 노력하였다. 그 이후부터 과학교육부에서 입찰한 내용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지금의 학생과학교육관의 각 층별 즉 꿈돌이관, 자연사 탐구관, 기초과학 체험관, 미래과학관 등 자료 일체를 완성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천체투영실과 지하 수족관이 미완성이었는데 수족관이 먼저 중국에서 들어와 지하 수족관 기반 시설을 마무리하고 수족관을 관람 가능하도록

완료하는데 보름 이상이나 걸렸다. 외부에도 암석원과 나무를 심고 외부 전시물을 준비하고 잔디를 심는 등 어느 정도는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게 하고보니 타 시도보다 늦게 추진되었지만 어느 시도의 시설과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불철주야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로 이곳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이 인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라고 있는 여러 어린이들과 많은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큰 보람이 되고 있다고 하니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이 인천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마지막으 필자가 장학사 시절부터 교육과학연구원장에 이르기까지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나 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 준 교육정보자료부 변상호 주무관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 30주년을 기리며



글 > 이 팽 윤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장년이 된 셈이다. 연구원은 이제 인천 교육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어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연구, 과학교육, 정보교육, 학교평가 등의 기능이 그것이다. 다른 시·도에서는 연구원을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인천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능과 성과만큼은 어느 시·도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연구원과 개원 시부터 남다른 인연이 있어 몹시 애착이 가고 깊은 정을 느끼게 되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기관이다. 이제 30주년을 맞아 남다른 인연을 되새겨본다.

연구원 태동기의 인연

1983년 어느 날 교육청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교육청에서는 장학사 한 분이 나를 포함한 세 명의 교사를 현 자유유치원 자리의 옛 북성국민학교 폐교로 인솔해 갔다. 그리고 이 자리에 1983년 3월 1일자로 시교육청 청사 임시 사무실에 설립되어 있던 과학연구원을 이전해 오려고 하니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여 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것이었다.

천체투영실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 학생과학관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 조그마한 두 개의 이층 건물에 교실도 몇 개 되지 않던 폐교 건물이라 과학연구원으로 기능하기에는 턱없이 인프라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과학전시관은 꿈도 못 꾸고 겨우 사무실과 실험실 몇 개만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었는데 번듯하게 학생과학관을 새로 건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많았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심정과 조속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물 활용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느낌이 든다.

교육연구사로 근무

전문직의 선발이 시험 제도로 바뀐 것은 1991년 임용부터이다. 제물포고등학교에 근무하던 1990년 겨울 처음 실시된 전문직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행운을 얻어 1991년 3월 1일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로 발령받게 되었다.

그 동안 연구원은 변한 것이 별로 없이 다른 시·도의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의 세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연히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도 전국 4대 도시의 교육기관으로는 시설은 물론 내용도 부족하기만 하였다.

교육연구사로 근무하며 담당했던 많은 일들이 기억난다. 특상을 하나도 내지 못했던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첫해에 특상 3·우수상 2·장려상 11개를 수상하는 성과를 냈던 일, 과학전람회의 운영과 전국대회 출품 방식을 선생님과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하여 특상 입상수를 늘리고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일 등은 잊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의 인천시 교육과정을 작성하던 일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기에 또한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만 있었으나,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도 상당 부분 위임하여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의 교

육과정을 기본체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면서, 교육부에서는 1993년에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과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 발표하도록 하였었다. 예산도 거의 없이 밤 12시 전후까지 일하기를 약 반년 정도 하고 경상북도 구미에서 인천의 교육과정 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결과 인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은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모범적인 안으로 선정되어 제주도에서 전국의 원장, 장학관, 장학사, 교사 등 교육과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발표하게 되었다. 정말 건강을 상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러나 연구사로 근무하며 늘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연구원에 과학전시관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주말이나 특히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전시관을 찾아 연구원을 찾아왔다. 하지만 과학전시 시설이 없었기에 서울의 과학관 위치를 안내해주며 어린 학생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정말 마음이 편치 못했다. 왜 우리 인천은 학생과학관이 없을까, 언제쯤 근사한 과학관을 갖게 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물론 예산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개원한 대구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그럴 듯하고 웅장한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은 매우 컸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경우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등의 기관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하루빨리 우리 인천도 과학교육원이 분리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루는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의 한 연구사가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생과학관에 전시물을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과학관이 없는 우리 인천으로서는 지원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었고, 따라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소득 없이 돌아가는 그 분을 쫓아가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사정을 이야기했다. 지금 당장은 전시관이 없지만 조만간 여건을 마련할 테니 우리 인천에도 지원해 달라고 졸랐다. 여건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진심으로 설득을 했다. 결국 38억 원 상당의 전시물을 지원

받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그 후 전시 공간 마련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지만 현실의 두터운 벽에 막혀 넓은 공간 마련에는 실패하고, 결국 1994년 영종도에 개교하는 인천 과학고등학교의 중정에 전시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공간 부족으로 지원 물량도 대폭 줄어 5억 원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 교육과학연구원 학생과학관 5층 전시관에 있는 20여 종의 전시물이 그 때 지원받은 것들이다. 지금도 전시 공간만 있었으면 더 많은 전시물을 지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현 청사의 건립

1994년 시교육청 과학기술과 장학사로 전직되었다. 그때 나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가 과학교육원의 분리 건립이었다. 영종도에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원의 부지가 도시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 그곳에 과학교육원을 건립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영종도를 배를 타고 다녀야 하는 접근이 매우 불편한 형편이었다. 그곳에 과학교육원을 건립하는 경우 활용도가 매우 낮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당시 충청북도의 과학교육원이 육로로 30분 정도 나가는 청주 외곽에 있었는데, 그곳도 접근하기 어렵다고 청주의 학생들이 찾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한 바 있어 영종도에 과학교육원을 짓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영종도가 아닌 인천 시내에 건립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거기까지는 잘 진행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과학교육원을 건립할 부지가 문제였다. 시내의 폐교 자리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 인천대공원과 문학공원 등에도 알아보고 시청에도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짧은 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부지는 없었다. 아니 얻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흘러 1996년이 되자 이제는 다시 영종도에 건립하라는 압박이 심해졌고,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과학교육원 부지만으로는 부족하니 교육연구원 부지까지 전부 과학교육원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허락을 받았다.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시내에 건립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정말 컸지만 과학교육원 건립의 기안을 하였다. 기안할 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건축비 150억 원, 전시물을 포함한 내부 시설물 160억 원으로 총 3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최고 수준의 과학교육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교육감님까지의 결재를 받았다.

연구원 이전과 과학상설전시관의 조성

1999년 9월 1일 과학교육담당장학관으로 발령 받았다. 부임을 하고 보니 영종도에 과학교육원의 건축은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 원래의 출발점은 과학교육원의 건립이었는데, 당시 정부의 정부기구 축소의 방침에 따라 다른 시·도의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원을 인천과 같이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우리 인천은 분리하지도 못하고 2000년 9월 자유공원에 있던 연구원이 그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바람에 애초 계획되었던 여러 실험실이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부 전시물이었다. 교육청의 과학교육팀, 연구원의 과학부, 학교현장의 교사, 대학교수, 전시 전문가 등등 T/F팀을 구성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목표는 학생들이 관찰, 조작, 체험을 통해 과학적 지식과 개념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2002년 4월 18일 꿈에도 그리던 과학상설전시관(현재 학생과학관으로 개칭)이 개관하였다. 넓고 내용이 충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전시관을 돌아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국립과학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인 최고 수준의 과학관, 어디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은 과학관을 보며 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했던 나로서는 진한 감동과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공모를 통해 원장으로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말 시교육청 교육국장과 교



육과학연구원장을 공모한다는 공문을 접했다. 많은 갈등을 느꼈다.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응모할 텐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담이 매우 컸지만 연구원과 이런저런 인연이 많았던 터라 연구원을 잘 경영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앞서 응모를 결심하였다. 교육감님께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을 외부 인사들로 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원에 대한 나의 진정이 심사위원들에게 통했는지 다행히 공모에 통과되어 2006년 3월 1일자로 제12대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연구원에 대한 애착이 컸기 때문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부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현장교육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하여 과학전람회, 교육자료전, 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입상 실적을 올린 일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의 정착과 활성화,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연구학교 운영, 과학상설전시관의 전시환경 보완, 5층 전시실 개관(당시 과학관 5층에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원하여 인천과학고등학교에 전시되어 있던 전시물들이 전시되지 못한 채 창고처럼 보관되어 있었다. 내가 힘들게 지원받았던 것이 아닌가. 살펴보니 시간이 지났지만 좋은 학습 자료들이었다. 전시물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를 하고 창고 같던 5층을 전시실로 새롭게 꾸며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시물과 천체투영실의 유지 보수 체제 정비, 가족천체관측교실의 활성화, 전자현미경 동아리 조직 등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야외에 있는 「전통과학학습원」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천(全天) 천문도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 역사의 대표적 유산이자 세계적 보물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 조선왕조 태조본과 숙종본을 양면에 刻石 : 만원권 지폐 뒷면 배경 그림)를 제작 건립한 것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본관동 로비에 전시되어 있던 「교육과정 변천사」를 특별전시실로 옮기고, 그 자리에 학생들의 식물학습과 본관동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100㎡(4m×25m) 규모의 「식물학습원」을 조성한 것은 지금도 기분 좋은 일이다.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화합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 근무하던 그 분들을 잊을 수 없으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다.

에필로그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사회와 교육환경이 변하면서 연구원도 많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배를 타고 건너던 영종도가 이제는 두 개의 대교로 연결되어 교통이 편해지고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는 등 지역도 많이 발전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학생과학관이 인천 버스시티투어 코스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직원들이 심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내의 학교에서 연구원을 방문할 때에도 실제 시간을 많이 걸리지 않아도 먼 곳으로 출장 간다고 느끼는 것 같다.

연구원의 발전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의 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즉 연구원의 기능 중 과학교육 영역은 학생과학관 등 주요 시설이 있으므로 과학교육원으로 하여 현 위치에 남기고, 교육연구와 정보교육의 기능을 한 데 묶어 교육정보연구원(또는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분리하여 교육청 근처로 옮기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연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편, 과학교육원은 교사 연수 기능과 학생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탐구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인재교육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학생들의 과학체험 활동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루 빨리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른 교육자들보다 연구원과의 인연이 깊고 애정이 크기에 연구원 개원 30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앞으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기를 간절히 염원해본다.

기획연구평가부에 바란다



글 > 진 익 천
전) 강화교육장

80년대 행정구역이 경기도에서 인천직할시로 개편되면서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은 좁은 송월동에서 영종도로 신축 이전하여 지난 30년간 인천교육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교육 48호에 '연구원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기획연구부의 재직시절 있었던 일들에 대해 회고하며 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필자가 송월동에서 연구사(2년), 영종도에서 기획연구부장(3년)으로 근무했던 당시 되짚어보며 교육과학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기획연구부의 이런 일 저런 일!

제가 연구원에 연구사로 근무 할 당시 유치원, 초중고교를 합쳐 90개 연구학교가 속해 있었는데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120여 개로 증가하고 연구사 1인이 맡는 학교 수가 많을 경우 20여 개 학교로 업무추진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현재는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교육 분야가 폭넓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8년 뒤 연구원의 기획연구부장으로 발령을 받을 당시 연구학교가 150여 개교로 늘어나면서 연구원에 있는 모든 연구사가 교과별 분야별로 연구학교지도를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



이 생기곤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그 당시 연구사님들과 협의를 통해 실천한 방법을 소개해 보 보자합니다.

연구학교 추진을 위해 담당학교 연구사 별로 한 달에 1번 정도 당해 학교의 연구부장과 연구 추진상황을 이메일로 주고 받도록 하여 연구진행의 정도를 항상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학기별로 2회 지도계획을 작성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협의회가 끝난 후 당해학교 교장 선생님께 협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노력한 결과 일선학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가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연구원의 모든 연구사들의 협의를 거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전협의 후 연구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고 다음날 연구사들이 모여 추가 보완을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매년 일선학교에 사회과 탐구(인천의 생활)교과서와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를 보급하여 지도한 후 문제점을 찾아 수정, 보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4학년 사회과탐구(인천의 생활), 우리들은 1학년(3월) 지도 교과서의 시도별 편찬을 위해 사진자료 및 지도들을 수집하여 인천시의 특색을 살려 편찬 보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발당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저작권 해당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교육자료임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80년대에는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책과제의 40%, 교육과정의 70%정도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연구학교 유공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어 학교장 중심으로 유공교원을 선정하였는데 연구사가 이에 개입하여 학교장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주었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여 학교장의 권한에 연구사들이 일절 간섭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2학기가 되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연구학교의 연구보고회가 많아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보고회에 참석하는 일로 일정이 빠듯했습니다. 또한, 일선학교의 여론을 들어보면 보고회가 발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어느 학교나 차이점이 없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기획연구부 연구사들이 협의를 통해 연구추진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한 보고회를 진행한 결과 이를 EBS교육방송에서 직접 촬영하여 전 시도에 보급하는 계기가 되어 매우 감명 깊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나근형교육감님이 정책과제로 16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학생상담 자원봉사제의 운영에 있어 학교급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상담자원 봉사자들을 초청하여 초중고교에서 상담과 치유의 과정을 진행한 결과 전 시도에서 연구사들이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서 인천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15개 분과별로 현장연구논문을 작성하여 전국대회에 출품할 당시 논문편수의 비율로 계산해볼 때 푸른기장(1등급)이 계속 1위를 차지하여 타시도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인천광역시 연구원에 방문했을 때 긍지를 갖고 정보교환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연구대회 우수사례는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연합회가 전국 최초로 교육감님의 승인을 받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현장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60시간의 현장연구추진 방법 및 현장연구 보고서 작성연수를 실시하여 현장교육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 시킴으로서 전국시도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면접을 통해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50명 이상 확충하고 지속적인 자체연구를 강화하여 선배들과 같이 1:1 지도방법으로 상담활동기법을 터득하도록 한 후 학교현장에 배치한 결과 일선학교에서도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담실을 신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쉬웠던 이런 일, 저런 일!

연구원에 발령받아 온 후배 연구사님들과 생활해오면서 많은 연구학교 추진, 연구 보고회, 각종업무추진을 하면서 1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어렵게 현장교육연구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원하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게해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각종대회가 많아 선생님들께서 선호하는 분야를 찾아 열심히 노력하면 각자가 원하는 만큼 만족한 결과를 얻을 기회가 많지만 80년대에서 90년대만 해도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어려운 가운데에도 많은 공을 들여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교육 자료전에서 등급에 들지 못해 상심하여 작품을 찾아가지도 않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기획연구부장으로 재직당시 연구원은 거리가 멀고 1일 출장이 많아 10월부터 출장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지급도 못하고 연구사님들께 말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열악한 근무를 하도록 한 점이 매우 죄송했습니다.

언제나 헌신을 다하여 봉사해주시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노고로 인해 자라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건강을 되찾고 자신의 꿈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음에도 아무런 보상도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은 바 소임을 다해 노력해주신 봉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현재도 상담소, 상담실을 설치하여 계속상담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뵈 때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획연구평가부에 근무하는 후배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

이전에는 전문직이 되려면 현직 교감이 시험에 응시하여 장학사나 연구사로 발령을 받았었는데 전문직 발령이후 3~4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교장강습을 받고 교장으로 승진하여 나가다보니 전문직으로서 근무연한이 너무 짧아 전문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교육현장지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젊은 교사들 중에서 전문직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구원에 근무하는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연구학교추진, 연구보고회, 교과서 편찬, 학생상담봉사제운영, 현장연구지도 등은 모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전문성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연찬을 하여 앞으로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역적으로 멀고 출퇴근이 어려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끈기와 인내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또한 모든 업무가 일선학교와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교육방법 및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어 사전지도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야겠습니다.

연구학교운영, 보고회, 현장교육연구지도는 되도록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체험하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협의하는 비중을 7:3의 비율로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듣고 종합하여 방향을 모색해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맡은바 업무추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타시도의 본받을 점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정보수집을 함으로서 보다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과 실천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교육에 필요하다면 항상 관심을 갖고 메모하며 교육현장에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개인의 역량강화,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 과거의 리더십이라면 현재의 리더십은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잠재해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끄집어내고 이를 결합한 화해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조직의 능력을 무한대로 증가시켜 최대의 성과를 거두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퓨전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으로서 이러한 퓨전리더십을 갖추어 개개인이 인천 교육발전의 주역으로 그 사명을 다해나가시기를 선포로서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화의 허브” 교육정보자료부



글 > 김 태 민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직업교육과 장학관

만능은 사람들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사회에서는 많은 제품이 생산되었다 순식간에 시장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교육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제 교육 내용이든, 방법이든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주도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미 교육 소비자들은 학교 바깥에서 더 매력적인 서비스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정보자료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도 다양화가 필요하다. 복잡하고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쌍방향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루기 힘든 테크놀로지는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제언에 들어가며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과 일선교사,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알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쌓여 있어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왜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기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방안은 다양하다 할 수 있으나 본 제언은 교육정보자료부가 현재 수행중인 역할·기능에 더하여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과 지역사회의 내·외적환경을 조명하고, 물적·인적 여건을 평가하여 교육정보자료부의 발전을 견인할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육정보자료부 역할·기능

교육정보자료부의 역할·기능을 팀별 수행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옆<표1-1>과 같이 크게 교수학습 지원과 사이버학습 지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학습 지원팀은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기능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능력향상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이버학습 지원팀은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팀으로 사이버학습지원 즉 수업진행과 수업내용 개발 지원, 사이버 및 원격 영상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관리팀은 교수학습 관련 DB, 학습이력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등 사이버학습 시스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정보 내·외적 환경 변화

박근혜정부 교육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국정과제 69-1,2,3)을 위하여 1)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3)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해 과도한 학업 및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

[표1-1 교육정보자료부 팀별 담당업무]

팀	담당업무
교수학습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지원센터(edu-i) 운영 • 교육자료전 운영 • 우수수업동영상 제작 • 교육영상자료 제작 • 저작권 관련 업무 지원 • 교수학습지원센터(edu-i) 운영지원단 운영 • 인천교육 e-book 운영 • ICT활용 교수용 콘텐츠 개발 • ICT활용 교수용 SW 공모 개발 운영 • 동호회, 교과연구회(나눔터) 운영 • 교수학습자료 목록(MMS)관리 • 연구학교 운영
사이버 학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e스쿨 학급배정형, 학급신청형 운영 • 인천e스쿨 협의체 운영 • 사이버학습용 콘텐츠 개발 • 인천e스쿨 현장지원단 운영 • 인천e스쿨 학습용 콘텐츠 탑재 및 관리 • 인천e스쿨 연구회 운영 • 개정교육과정 평가문항 체제정비 • 인천e스쿨 상담교실 운영 • 인천e스쿨 화상학급 및 지원단 운영 • 인천e스쿨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 • 인천e스쿨 활용 연수 • 학력평가문항 개발 • 인천e스쿨 논술첨삭지도교실 운영 • 인천e스쿨 기초학력향상과정 운영 • 중점관리대상 학생 관리 • 인천e스쿨 통계 및 모니터링 • 연구학교 운영
전산시스템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관리팀 운영 계획 수립 • 교육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추진 • 데이터 백업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업무 추진

- ②(교육과정 운영)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중심수업과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 확대
- ③(수업 방식) Block 수업 등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통해 학생 주도의 조사, 발표, 토론, 실습, 프로젝트 수행 활성화
- ④(평가) 필기시험은 지양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의 과정과 결과 등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
- ⑤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학교수업의 내용 방법 및 평가방식 전환 지원
- ⑥인성덕목을 체계화하여 수업에 반영하고, 지식 전달위주 수업을 협력학습, 토론학습 등 학생중심 참여수업으로 전환
- ⑦교과별 협력학습 모델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 ⑧프로젝트 평가, 동료평가 등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학생 평가방법 개선
- ⑨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⑩교육과정 편성 운영 컨설팅, 교사의 수업 평가역량 강화 연수 및 우수사례 발굴 보급 등
- ⑪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마련하기 위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 ⑫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 환경 구축
- ⑬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고(중학 사회, 과학, 영어) 시범적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운영(초·중 144개교)
- ⑭가정 학습과 연계가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반 조성(교수학습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둘째, 교육비 부담 경감(국정과제 58)을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 ⑮학교 내 평가, 고입·대입 등 각종 입시에서 시험출제 등이 교육과정(교과서)의 범위·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 추진('13.4)
- ⑯「공교육정상화추진특별법」제정 추진('13.4~12월)
- ⑰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과목(수능, 영어, 수학) 위주로

우수한 EBS 교육용 콘텐츠 및 서비스 내실화로 사교육 수요 경감

- ⑱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13.3)하고, EBS 교육 모바일 서비스 기능 고도화('13.6)

타 시·도 교육정보원의 현황 및 역할 기능을 살펴보면 각 시·도에 설치된 교육정보원의 현황 및 역할(기능)에 대해 살펴보면<표1-2>와 같다.

[표1-2 2013 전국 시·도별 연구원 현황]

연번	시도명	연구원
1	서울	교육연구정보원 / 과학전시관
2	부산	교육연구정보원 / 과학교육원
3	대구	교육연구정보원 / 과학교육원
4	인천	교육과학연구원
5	광주	교육정보원 / 교육과학연구원
6	대전	교육정보원 / 교육과학연구원
7	울산	교육과학연구원
8	세종	평생교육연구원
9	경기	교육연구원 / 교육정보기록원 / 과학교육원
10	강원	교육연구원 / 교육과학정보원
11	충북	교육정보원 / 교육과학연구원
12	충남	교육연구정보원 / 과학교육원
13	경북	교육연구원 / 교육정보센터 / 과학교육원
14	경남	교육연구정보원 / 과학교육원
15	전북	교육연구정보원 / 과학교육원
16	전남	교육연구정보원 / 과학교육원
17	제주	교육과학연구원 / 국제교육정보원

그동안 17개 시·도에 설치된 교육정보원은 국가의 교육정보화 정책들을 초·중등학교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정보원의 운영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독자적인 교육정보원 운영, 교육연구 업무와 접목한 교육연구정보원 운영, 과학교육과 접목한 과학교육원 운영이다. 교육정보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대전, 광주, 제주, 충청북도



이고 교육연구·정보·과학이 접목한 시도는 인천, 울산이며, 정보·과학이 접목된 곳은 강원도이다. 교육연구·정보를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으로 가장 많은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를 전후하여 교육정보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학교에 교육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교육정보원을 개원하거나 기존의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교육정보 조직을 운영하였다. 그 후 교육정보원은 교육포털사이트운영, 사이버학습 운영, 학교교육정보화 지원, 교원 정보화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교육정보의 독립적 추진은 학교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졌고 현장과 정보지원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소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와 교육정보를 접목한 형태의 교육 지원기구로 재편성되고 있다.

교육정보자료부의 역할기능과 변화요구를 살펴보면 교육격차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내실화를 표방하며 2004년에 출발한 사이버가정학습은 2013년에 들어와서 보충개념의 가정학습에서 온라인 학습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또한 명칭도 개념이 확대된 사이버 학습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사이버학습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원의 정보교육 역량개발을 주도한 정보화 교육은 2005년 기관운영 조례의 변화로 정보화 교육 기능을 인천교육연구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적극적 개념의 교사능력개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한 운영 지원기능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교육자료전을 통한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노력도 교원의 연구 승진 점수가 하향 조정됨으로써 참여율이 매우 급감하고 있다.

사이버학습 콘텐츠(온라인 콘텐츠)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내용의 핵심임에도 국가 수준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개발기간의 단축과 시스템에 탑재(포팅)하여 활용하는 기간이 매우 짧아짐으로 개발에 따른 과도한 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이버학습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가 수준의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지고(2012. 6월 까지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국가수준의 S/W 활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가 공포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사용 및 비용의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사교육비 절감 및 학력향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사이버 학습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정보자료부 역할·기능 및 교육환경 변화요구를 수용하면서 미래의 변화를 위한 바람을 제언하고자 한다.

교육정보화의 허브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자료부를 위한 소망

첫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실수업 변화의 주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수-학습의 개선 방안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학습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은 온라인 수업을 통한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지원과 전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학교 미이수 교과 이수 등이다. 아울러 좀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중등교육에서 발생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상치교과를 해소하기 위한 순회교사문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학습 교육과정 지원센터(가칭)를 조직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이버학습 교육과정 지원센터에는 온라인 수업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하고 교수-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수용 등 수업변화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사이버학습에서 대체 운영하겠다는 신념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개발을 시도하고 탑재하였다. 현재까지도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이 급격한 사회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학교별, 교과별 개정요구 발생 시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수시적, 부분적, 지속적 개정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즉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방식은 경직성과 시의성에서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엄청난 인력과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과 영역별 기본학습 요소를 나선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내용 구조화(체계화)에 의해 기본요소별 학습요소를 모듈화 하고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된 콘텐츠는 그동안 사이버학습을 통해 온라인 교수학습을 경험하고 학습한 노하우를 활용해 교사·학생의 요구에 맞게 서책형교과서와 함께 보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지혜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정보화 교육기관으로 기능회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이버학습 체제에서는 보충학습, 가정학습 등의 적극적인 교수학습 지원 개념보다 소극적인 교수학습 지원기관의 역할을 했다. 이제부터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명제를 수행하는 교육정보자료부로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그 첫 번째 단계는 수업변화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타 시도 교육정보원 기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화 교육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시·도는 우리교육청뿐이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 인천의 교육정보화 질적 저하를 가

져올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정보화 교육기능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교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융합교육, 협력교육, 프로젝트 학습 등의 새 시대 교육방법 개선의 적극적인 역할·기능을 다해야 한다.

넷째, 지적재산권 관리·운영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초·중등학교 교육콘텐츠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와 문광부 간 추진된 저작권법 개정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사이버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교육비 절감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탑재 등이 지적재산권 사용에 따른 비용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사이버학습 서비스를 시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정보자료부의 역할·기능을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관리·운영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학습으로 인한 인천교육청에 부과될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교육용 콘텐츠 보급 및 교수학습 모바일 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과목(수능, 영어, 수학) 위주로 우수한 EBS 교육용 콘텐츠를 전국의 교육정보원과 협력하여 사용계약을 맺은 후 이를 수준별 맞춤형 사이버학습 콘텐츠로 모듈화하여 사이버 학습 시스템에 포팅하고, 사이버학습 EBS 교육 모바일 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적은 예산과 과다한 사용교육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담당하여야 한다.

여섯째, 도시 농·어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의 산실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과 끼를 기르는 행복교육”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이버 학습은 행복을 주는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무



엇보다도 인천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농·어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천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보다는 필요한 부문에 적시에 작은 투자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3팀 체제의 교육정보자료부 인적 조직을 정보화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온라인 화상교육 등을 맞는 사이버학습 교육과정 지원센터(가칭)를 보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언을 맺으며

박근혜정부의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과 끼를 기르는 행복교육”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즐기는 교육, 많이 아는 것보다 좋아하게 하는 교육, 나아가 배움을 즐길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행복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만들어 주는 틀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정보자료부 역할은 적어도 단기적인 안목에서 현재의 소극적 지원개념의 사이버학습을 지원, 교사의 교수-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역할에 더하여 적극적인 교수-학습 개선 방안 연구·수행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육정보화의 허브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인천학생과학관에 바란다



글 > 김 기 룡
인천고잔고등학교 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은 자유공원에 1982년 3월 1일에 개원한 이래 2000년 9월 24까지의 자유공원청사 시대와 2000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의 영종도청사 시대로 편의상 구분할 수 있다.

자유공원 청사는 북성초등학교가 송월초등학교로 흡수 통합되어 남은 북성초등학교 건물을 이용하여 조성된 것으로 사무실, 실험실, 컴퓨터실 등으로 구성되어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 당시 인천에서 과학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립서울과학관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일선학교에서 과학을 지도하고 있던 필자는 인천에도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조장과 일반시민들의 과학대중화에 이바지할 과학관이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필자가 교육전문직에 합격하여 1999년 9월 1일자로 자유공원 청사시대의 연구원 과학교육과 교육연구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다.

인천교육과학원의 역사와 학생과학관의 조성 과정

교육과학연구원에 근무한지 1년이 지난 2000년 9월 25일에 연구원은 영종도로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연구사들은 대부분 9월 발령에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고 이기문 원장님, 부장님, 현 교육부 과장이신 박정희 연구사, 필자 등 몇 명에 불과하고 모두 신규 전문직들이었다. 필자는 영종도에 소재한 인천과학고등학교를 7년간 이미 근무했기 때문에 한편 불편한 심기도 있었으나, 평소에 희망했던 과학전시관이 영종도 신청사에 조성된다는 것도 그 사업을 내가 담당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전 준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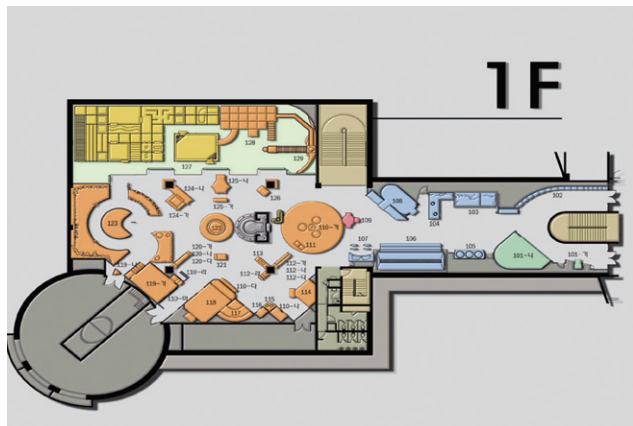
과학상설전시관에 전시할 전시물 기획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과 선진 각국의 전시물 견학 등을 추진하면서 전문직에서 가장 바쁘고 보람된 시기를 지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학생과학관 조성에 가장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은 필자가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무한 신뢰를 주셨고 이기문 원장님과 예산집행 등에 많이 협조를 해주신 김준모 행정계장님이었다.

학생과학의 조성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1997년 12월 인천과학상설전시관 시설공사(건축) 착공하고 1999년 7월 인천과학상설전시관 시설공사 준공하였다. 1999년 12월 인천과학상설전시관 전시물 실시설계 제안서 공모하고 2000년 4월 인천과학상설전시관 전시물 실시설계 제안서 심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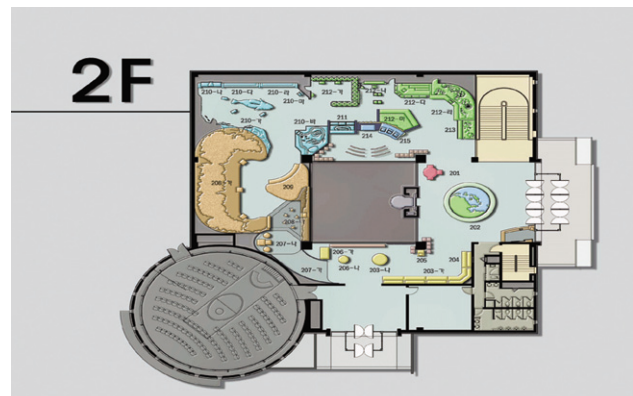
2000년 5월부터 7월 까지 전시물 상세 설계 작성 협의회를 5회 실시하였고 2000년 5월 인천과학상설전시관 전시물 설계 계약(배정업체: (주)세우시스템, (주)아미랜드, (주)청원전시기획)을 하였다. 2000년 11월 인천과학상설전시관 전시물 1차 계약(44주제 설치 완료, 22억)하였고 2001년 2월 인천과학상설전시관 전시물 2차 계약(67주제 설치 완료, 45억)하였다. 2001년 5월 2층 자연사탐구관, 3층 기초과학체험관

전시물 설치 완료되었고 2001년 11월 1층 꿈돌이관, 4층 미래과학관 전시물 설치 완료되어 2002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4월 18일에 인천과학상설전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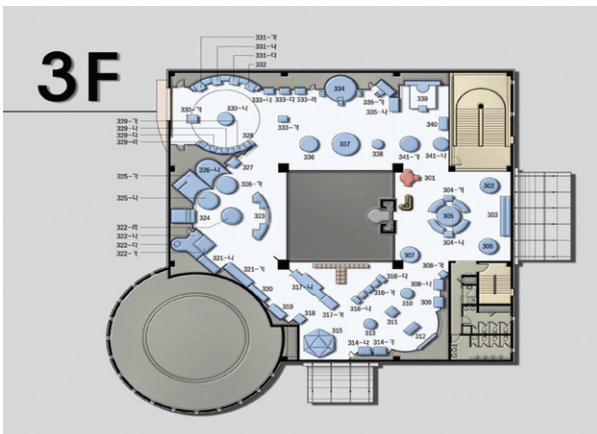
인천학생과학의 설치 목적과 전시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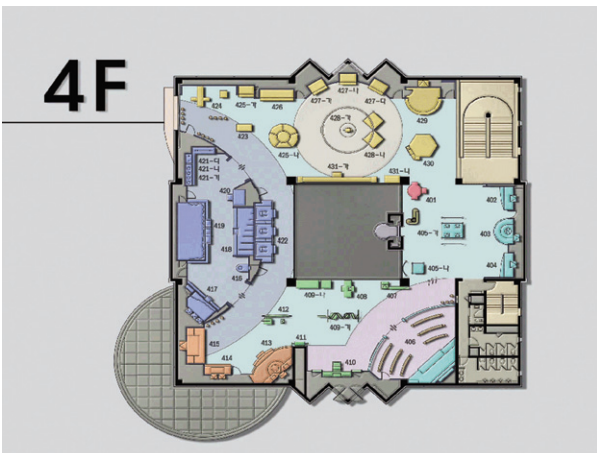
1층(꿈돌이관)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의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을 알리고, 흥미 있는 놀이를 통해 과학성을 체험토록 하는 관으로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미래의 발전을 예견하는 「내고장 소개」 코너와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종, 산호, 갯벌생물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해수 및 민물 「수족관」 코너,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신체를 발달시키고 흥미 있게 놀이체험을 하는 「놀이동산」 코너와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는 31종목의 「과학놀이」 체험 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2층(자연사탐구관)은 지구의 탄생부터 구성 물질, 역사, 생명의 탄생과 진화, 생태계 등을 표본전시와 디오라마로 전시하여, 자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위해 조성된 전시관으로 지구의 구성 물질인 다양한 광물을 소개하는 「지구의 구성」 코너와 원시생명의 탄생 과정과 생물의 진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 코너, 바다에서와 육지에서의 생태계를 디오라마로 볼 수 있는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정리 학습하는 멀티미디어 「영상학습」 코너가 있다.



3층(기초과학체험관)은 관람자 본인이 전시물을 직접 조작해 봄으로써 기초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몸소 경험하게 하는 체험학습장으로서, 가장 많은 40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4층(미래과학관)은 첨단과학, 신소재, 정보통신 등의 미래 과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한 관이다. 미래 과학의 발전 방향인 「정밀기계·환경」 코너, 「생명공학」 코너, 「정보통신」 코너가 있으며 그 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신소재·에너지」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실험재료와 기구로써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범실험을 할 수 있는 사이언스 쇼 룸이 마련되어 있다.

그 외에도 과학상설전시관 건물 밖에는 국제공항에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성과 창의성을 소개하는 「전통과학학습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천체 관측기기인 혼천의, 해시계와 별시계의 기능을 복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일성정시의, 남중 때 절기를 알 수 있는 규표, 시간과 절기를 알아내는 앙부일구, 풍향과 풍속을 측정하는 풍기대, 강수량을 측정하는 측우기 등이 잔디 위에 배열되어 있다.

또한 「암석학습원」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의 3열로, 또한 각 열은 색상과 입자의 크기별로 분류표에 맞도록 배열하고, 설명 패널과 박편사진이 첨부되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02년에는 야외교실이 조성되었고 2003년에는 플라네타리움(천체투영실)이 완성되어 이상과 꿈을 우주에서 펼칠 수 있는 입체 우주영상에 매혹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옥상전시관이 개방되기도 하며, 5층의 전망대에서는 주위의 과학고, 연수원, 백운산, 농촌 풍경은 물론 바다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망원경을 설치할 예정이고 휴게실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부의 말씀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의 인천학생과학관은 개관 이래 지금 현재까지도 다양한 전시물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과학 마인드와 창의성을 육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과학관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전시물의 관리가 잘되어 전시물 작동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전시관 1층 자연탐구관 옆에 설치된 천체투영실(플라네타리움)은 낮에도 밤하늘을 재현할 수 있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특히 천체 관측에 관심 있는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 천체동아리에서 자체 개발 제작한 천체투영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천체투영실로 발전하고 있다.

개관 이후 모범적인 운영으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인천학생과학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과학관 설립을 기획하고 설치 완료한 필자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일반 시민들의 과학대중화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 몇 가지 바램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인천에서 학생을 지도하다가 퇴임하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과학관을 찾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그 분들도 노후를 보람되게 지낼 수 있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면 한층 더 활발하고 전시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16개 시/도 학생과학관을 탐방해보면 거의 같은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어 별다른 특색이 없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적이 많았다. 그래서 인천학생과학관은 영종도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해양 관련 체험활동을 전시관 견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전개하기를 바란다. 과학관 인근에 위치한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서해 수산연구원, 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 등).

셋째, 사람마다 관심 분야와 수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인천학생과학관을 찾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과 수준에 적합한 탐구활동과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전시관(층)별, 수준별(상, 중, 하), 학교급별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과학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관 활동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넷째, 인천학생과학관이 개관한지도 어느덧 11년이 되었다. 4층 미래과학관의 전시물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체험하는 곳으로 설치된 전시물은 이미 구식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첨단미래과학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물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후된 전시물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선진국의 과학관 운영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밖에도 인천학생과학관 운영 자문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과학관의 발전적인 의견 수렴과 토론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교육의 최고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닌, 삶 자체여야 한다. -유동범 -





교육현안과제의 이해

-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좋은 수업의 이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곽영순
- **역량중심 성취평가제의 이해와 적용 방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장학관 배경자
- **교과교실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최영선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좋은 수업의 이해¹⁾



글 > 박 영 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최근 세계 각국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교육 정책의 키워드가 ‘핵심역량’²⁾이다. 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현재 및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찾아내고 이를 학교교육을 통해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ECD(2003)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개인의 성공적 삶과 사회의 발전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해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3개 범주의 9개 영역으로 핵심역량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8월에 발표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안)’에서 지식중심의 교육과

정에서 탈피하여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08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와 관련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국내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반영 정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역량 강조의 흐름은, OECD의 DeSeCo 보고서 발표를 전후로 하여 많은 나라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와 같이 기존에 핵심 기능이나 능력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던 나라에서는 핵심역량을 적극적으로 교육 과정에 공식화하여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과정을 재검토하려는 이론적·정책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국내외 미래 교육 전망에 따르면,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학습자는 학교교육에

1) 본고는 최승현 등(2012)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2) 이광우 등(2008)은 핵심역량을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혹은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 규정하고, 초·중등 학교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역량을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 등의 10가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표 1. 국내/외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핵심역량 반영 정도]

	핵심역량 도입	핵심역량 요소	교육과정 반영 양상	교과 반영 정도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기초지식 및 기초능력의 공통 교육과정' 제시 •핵심역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무교육 기간 동안 모든 학생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능력으로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가지 기초지식과 기초능력 -모국어 구사 능력 -외국어 구사 능력 -수학 및 과학 기초지식 -정보와 통신 기술 활용 능력 -인본주의적 소양 -사회성 및 시민성 -자주성 및 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지식 및 기초능력의 공통 교육과정'은 별도의 문서로 제시됨 •교육과정의 반영은 각론의 개관에서 국가가 강조하는 역량이 제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 수학, 생물과 지구과학, 물리와 화학, 기술 교육과정 문서에 매우 상세하게 역량과의 관계를 진술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된 예를 제시함.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년 국가교육과정 도입부터 핵심기능의 개발을 강조하여 최근 2007년 개정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가지 핵심기능 -의사소통 -수의 응용 -정보통신기술 -타인과의 협력 -자기주도성 학습과 성취개선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론에서 6가지 핵심기능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가지 핵심기능과 관련하여 국어, 수학, 과학을 필수 교과로 지정하고, 특히 의사소통 기능은 '국어' 교과에서, 수의 응용은 '수학' 교과에서 신장시킬 수 있음을 명시함.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3년 국가수준 교육과정부터 8가지 핵심기능을 강조해 오다가 2007년 총론에서 핵심역량을 5가지로 집약하여 명확히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가지 핵심역량 -사고력 -언어와 상징, 텍스트의 활용 -자기관리 -타인과 관계 맺기 -참여와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론에서 6가지 핵심기능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교과 교육과정은 개발 중. 이전 교육과정에 따르면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8가지 핵심기능을 탄력적으로 연관지어 적용함.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으로 2000년대 후반 들어 교육과정 개정에서 핵심역량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가지 핵심역량(잠정안)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이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단, 교육과정 총론 수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목표' 등에 간접적으로 제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별 교육내용에서 간접적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 정도임.

서 핵심역량을 길러야 하며, 교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교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학교교육의 성공 여부는 교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OECD,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OECD가 내놓은 미래의 학교교육(Schooling for Tomorrow) 전망에 비추어 21세기 환경에서 요청되는

학습자의 핵심역량과 그에 따른 교사전문성 역량의 변화를 고찰하여 향후 교육정책에 발전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원에서도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교육과정 비전 연구(Ⅰ)'(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교육과정 비전 연구(Ⅱ)'(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

중등학교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2009), ‘외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적용 사례 연구(2010) 등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러한 총제적인 연구에서 나아가 교과별로 핵심역량과 관련짓는 논의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실과(기술·가정)와 사회 과목이 선도적으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수업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최유현 외, 2009; 신중호 외, 2009).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역량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교사는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핵심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이 현재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접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언적인 구호로만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국내의 수업을 분석하여 강조되는 핵심역량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는 교과별 교수학습과 평가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재설정될 경우 변화되어야 할 교사의 전문 역량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좋은 수업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투입과정 중심이라면,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산출과정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대되는 학습결과를 설정하고 학생들이 특정 학년까지 성취해야 할 역량이 중시됨을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은 성취해야 할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즉 기존의 교육과정은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학습시켜야 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지만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어떻게 개발시켜 줄 것인가에 강조점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가르쳐야 할 내용에 최우선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지 않고,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성취수준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목표는 얇이 아니라 얇을 기반으로 한 실천 능력의 획득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존의 교육과정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을 비교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기존 교육과정과 역량기반 교육과정 비교]

기존 교육과정	역량기반 교육과정
-교수목표 중심	-역량 중심
-투입 중심(가르쳐야 할 것)	-산출 중심(성취해야 할 것)
-단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
-학습한 것의 축척과 재생산	-학습한 것의 창출과 적용
-단편적 (정해진 수업 시간에 요구되는 결과)	-총체적 (최종 단계에서 요구되는 결과)
-고립적(단일 교과 중심)	-통합적(범교과 중심)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교육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측면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식의 수행성 강조, 둘째, 학교 밖 교육기관과의 연계성, 셋째, 메타역량과 반성적 성찰을 통한 교육방법, 넷째, 학교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쟁점 또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향한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첫째, 역량 논의는 행동주의적 접근에 의존한 것이며, 둘째, 실제적 지식을 강조함으로써 이론적 지식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셋째, 학교교육을 직업 교육화하는 위험한 담론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역량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 최근 들어 역량 개념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한 논의를 벗어나 전체적인 사회적 삶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역량 개념에서도 여전히 외적인 행동이나 수행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내적 구조에 의해 보완되고 있으며, 이 내적 구조에는 지식이나 인지적·실천적 기술과 같은 인지적 차원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비인지적 차원이 포괄되어 있다.

한편으로 역량중심적 접근은 실제적으로 기존의 교과 중심

전통을 허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역량중심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교과에 의존해 온 학교교육을 염두에 둘 때, 역량중심적 접근이라는 것이 교과 대신에 역량을 가르치자는 논의라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역량중심적 접근이란 학교교육에 대해 역량을 중심으로 사고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학교 교육이 교과를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역량중심적 접근이란 학생들이 사회적 삶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학교교육의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량을 학교교육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사회적 삶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내용에는 종래에 다루어 온 교과적인 지식에 사회적 실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태도가 융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역량중심적 접근은 종래 다루어 온 교과지식을 특정 역량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소경희, 2007).

종래의 교과 혹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보지 말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훈정, 2010).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단일 유형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차원인 교육과정 형태가 요구된다. 따라서 교과 혹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상호배타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지양하고, 개방성·복합성·유동성이라는 원리에 의해 각각이 갖고 있는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홍원표 등(2010)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실증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진 사례를 통해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를 연계시키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가능하

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³⁾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단편적인 사실이나 지식 위주의 교육과정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교육과정을 완전히 부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을 초월하려는 움직임에 가깝다고 본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역량 개발과 기존의 교과 교육을 연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되, 정책적 차원에서는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교과교육을 연계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 있다. 즉 기존의 교과중심 교육과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혹은 기존 교과들을 부분적으로만 재구조화하여 핵심역량 개발에 좀 더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달리 말해서 교과별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은 핵심역량 개발에 주요한 소재와 상황을 제공하며, 교과와 핵심역량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예컨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하나인 문제해결능력은 복잡하고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적절하게 대처해나가는 학습 경험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교과지식이 필수적인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역량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평가 방식을 요구한다. <표 3>에 따르면 역량기반 교육에

[표 3. 기존 교육과정과 역량기반 교육과정 비교]

변인	교육 프로그램	
	기존 프로그램	역량기반 프로그램
교육의 목적	지식 습득	지식 적용
전형적인 평가 도구	단일 주관적 측정	다중 객관적 측정(포트폴리오)
평가 도구	대체물	진정성(실제 과업 모의)
평가 장면	현장과 분리	직접 관찰
평가	규준 참조	준거 참조
평가 기간	총괄평가 강조	형성평가 강조
프로그램 완료	고정된 일정	다양한 일정

3)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공통적인 양상을 이끌어 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조직하기 위한 기본 방향 혹은 관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역량중심적 접근에서는 교과 영역을 여전히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되, 교과 이외의 다른 학습 영역도 교육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틀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역량중심적 접근은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운영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대한 성과 평가는 진정성 있는 실습장면에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다양한 시점에 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평가 양태로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가 주된 역할을 하는 형성평가이다(소경희 외, 2010). 즉 형성평가를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발전 정도를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게 한다. 이렇게 형성평가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학생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질적 평가를 통해 핵심역량 발달 정도를 평가한다.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는 교사에 의한 질적 평가와 더불어 학생들 간의 동료평가도 적극 활용된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에 요구되는 다양한 증거 자료의 검토 및 논의 과정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도 한다. 요컨대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에는 학생들의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반성 일지,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등이 활용된다.

영국의 경우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나 각종 자격시험에서 중요한 준거로서 핵심역량이 활용되므로 교육과정과 더불어 평가에도 핵심역량이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홍원표 외, 2010). 예컨대 영국의 교육과정평가원(QCDA)에서 개발한 국가자격시험체제(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에서는 6가지 핵심기능에 대한 성취기준들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제시하고 있다(QCDA, 2004).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존 평가 형태가 핵심역량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학생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비판적 사고와 협동 학습을 중시하며, 그러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도 공동 연구과제나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뉴질랜드나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보면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는 교사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핵심역량은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 가치 등을 포괄하는 다면적 개념이므로 기존 교과와 지적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

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즉, 핵심역량이 ‘복합적인 수행’(complex performance)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내용중심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던 형태의 평가와는 다른 형태의 평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소경희 외, 2010).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실험학교를 운영한 결과 교사들은 국가 수준에서 핵심역량을 둘러싼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Boyd & Watson, 2006).

결국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은 물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도 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학습자들의 진정한 학습 성취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실제로 역량이 획득되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교사의 역량 향상이 필수적이며, 더불어 교육 평가에 대한 장기간의 합의된 관찰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학교에 요청되는 교사의 전문 역량

미래 사회의 학교교육에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 교수학습과 더불어 교사 교육에 또 다른 준비 사항을 요구한다. 교과나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들이 새롭게 제시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에 학교교육의 중점이 놓인다고 할 때, 교사는 (1)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통한 심화 학습의 강화, (2)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기회의 제공, (3) 핵심역량 증진에 부합하는 평가 방식의 다양화, (4) 단위 학교의 전문성 및 교사의 역량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이광우 외, 2009; 홍원표 외, 2010).

결국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운영도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없

4) 이러한 관점에서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수개발센터에서는 역량 요소를 규명하고 학과 차원의 역량 요소를 설정한 후, 현존 학교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개발되고 있는 역량과 개발되고 있지 않은 역량을 구분하여 개발되고 있지 않은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이는 불가능하다. 현행 교사 교육은 내용 학습에 치중하고 있어서,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수·학습 양상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 양성 과정에서 전공 교육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⁴⁾ 이러한 맥락과 연계하여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양성 과정에서 복수 전공제 도입이 제안되기도 한다(이광우 외, 2009). 개별 교과 지식의 학습보다는 교과목 간, 교과목 내의 내용 재구성(통합, 연계, 압축 등)이 전제될 때 핵심역량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OECD도 미래 사회에서 학교의 위상 변화에 따라 미래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OECD, 2006). 미래 학교는 수요자 중심으로 학습의 개별화가 강화됨으로써 교사의 인간적이고 전문적 활동이 전면으로 부각되며, 새롭게 다음과 같은 교사전문성이 요구된다.

첫째, 교사 스스로 평생학습자여야 한다. 교사는 초기 교사 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갱신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식 전달보다는 학습동기 유발, 창의성, 협력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능력을 전달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요청된다.

셋째, 기술이나 공학이 지닌 교육적 잠재력을 이해하고 이를 교수 전략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즉,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도록 방치하기보다는 ICT를 교사의 교수 전략에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성이 요구된다.

넷째, 교사는 학습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동료 교사와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자질이 요구된다.

다섯째, 교사에게 요청되는 전문성이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역량과 의지도 중시된다. 이는 교직 이외의 다른 직업이나 경험은 교사로서의 역량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학부모 및 교사 이외의 다른 교수진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즉, 다른 이해당사자를 교사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요청된다.

이처럼 미래 학교교육에서 교사 요인은 더 중요해지며, 교사는 새로운 조직 구조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동료와 네트워크를 통해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고 개인적 발달을 감독해야 한다. 교직의 매력, 교사의 헌신, 학습기구로서 학교의 효과성 등을 높이기 위해 교사전문성과 교사조직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6(3), 1-21.
 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2010). 뉴질랜드 교육과정 개혁 동향 :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실천 사례. 비교교육연구, 20(2), 27-50.
 신종호, 모경환, 박민정, 민지연(2009).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09-10-3.
 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교육과정 비전 연구(Ⅰ) - 핵심역량 준거와 영역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7-1.

역량중심 성취평가제의 이해와 적용 방안



글 > 배 경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현행 평가제도는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지필식의 선다형 검사에 치우치고 있으며 학생들 간의 상대적 비교로 경쟁적 학습풍토를 조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협력적 분위기에서 창의·인성을 개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성취평가제 도입의 배경

미래사회는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토론, 프로젝트 수업, 탐구학습, 협동학습, 과제해결 학습 등의 방법 적용을 통해 교수·학습을 개선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창의·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그 원인을 평가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평가제도는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지필식의 선다형 검사에 치우치고 있으며 학생들 간의 상대적 비교로 경쟁적 학습풍토를 조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협력적 분위기에서 창의·인성을 개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상대평가제에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기보다 석차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중·고등학교 내신 성적 평가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2011.12.13.)」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 내용이 서술형 평가의 비중 확대 및 수행평가의 내실화와 ‘성취평가제’의 도입인 것이다.

II. 성취평가제의 이해

1. 성취평가제의 의미

성취평가제는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로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성취평가제 도입은 학교 교육의 평가 방식이 학생들 간 서열 중심의 평가(규준참조평가, 상대평가)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성취기준) 중심의 평가(준거참조평가, 성취평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적용되었던 절대평가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 서열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두 평가제도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취평가제에서는 평가의 준거가 되는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취도를 평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2. 성취평가제 적용 시기

학교급 및 교과		학년	2012	2013	2014	2015	2016
중학교		1학년	성취평가제 도입				
		2학년		성취평가제 도입			
		3학년			성취평가제 도입		
고등학교	보통교과 (모든 교과)	1학년	시범운영	시범운영	성취평가제 도입		
		2학년				성취평가제 도입	
		3학년					성취평가제 도입
	전문교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1학년	성취평가제 도입				
		2학년		성취평가제 도입			
		3학년			성취평가제 도입		

3. 성취기준과 성취수준

가. 평정 절차



나. 성취기준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첫째, 수업의 근거로 활용한다. 각 학교에서는 교과별로 연간 및 매 차시 수업 계획을 수립할 때,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며,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의 근거로 활용한다. 각 학교에서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도구를 제작하여야 한다.

셋째, 개별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체육·예술교과는 특기사항)에 학업성취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자 할 때,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설명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다. 성취수준

성취수준은 학생들이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몇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있는 학생들의 지식, 기능, 태도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성취수준은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상·중·하)과 ‘학기 단위 성취수준’(A-B-C-D-E 등)으로 구분된다.

III. 성취평가제의 적용

1. 적용의 개요

성취평가제를 적용한 학업 성취도 평정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 차	추진 내용	
1. 평가계획 및 공시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반영 - 학업성적 표기방식 변경 - 교과별 학기 단위 성취수준 구분을 위한 기준 성취를 반영 등
	성취기준/성취수준 작성	성취기준, 성취기준 단위의 성취수준(상, 중, 하) 작성 학기 단위의 성취수준(A-B-C-D-E) 기술
	평가 계획 수립	교과별(학년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등 작성
	학교정보공시	학년별(학기별), 교과(목)별 평가 계획
2. 교수·학습 설계	단원 분석	단원 분석 및 재구성 수업 시간 운영 계획
	수업 구안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수업 방법 결정 수업 방법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안 구안 및 적용
3. 평가도구 제작	출제계획 수립	이원목적분류표에 평가할 성취기준 등을 제시 성취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의 유형 선택 성취기준의 중요도 및 문항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점
	평가 문항	이원목적분류표의 출제 계획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문항 출제 학기 단위 성취수준을 토대로 성취도 변별하는 문항 구성 교과(학년)협의회 공동 검토를 통한 평가도구의 타당도 제고

4. 평가 실시 및 결과 처리	평가 실시 및 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별 평가 계획에 부합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실시 •서술형과 수행평가의 채점기준 명료화로 객관성 확보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채점기준 공개
	평가 결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에 따라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 성취율에 따라 학생의 성취도 평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학교정보공시	•학년별/학기별/교과별 학기말 성적 공시
5.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 평가 종료 후 피드백 •교과협의회 등에서 문항별 정답률, 기준 성취율별 분포 현황 파악 •현황 파악 결과로 평가 도구의 타당성, 적정성, 난이도 등 분석
	결과 환류	분석 결과 차기 학기(학년도) 평가 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기준성취율(고), 성취기준(수준), 교육과정, 교수/학습 개선안 마련

성취평가제 적용을 위한 업무 추진 절차별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계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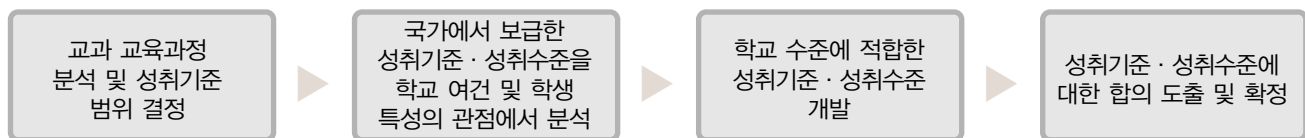
추진 내용		기간(월별)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평가 계획 수립 및 공시	교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	▶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작성	▶	▶												
	학년별/과목별 평가 계획 수립	▶	▶												
	평가계획 정보 공시	▶							▶						
교수- 학습 설계	단원 분석 및 수업시간 운영 계획	▶					▶								
	수업 방법 구안	▶					▶								
평가도구 제작	출제 계획 수립			▶		▶			▶		▶				
	평가 문항 제작			▶	▶	▶	▶		▶	▶	▶	▶			
평가실시 및 결과 처리	평가 실시 및 채점(정기 지필평가)				▶		▶		▶			▶			
	학기말 성적 산출						▶					▶			
	성취도 평정						▶					▶			
	학년별/학기별/교과별 학기말 성적 공시	▶							▶						
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문항별/기준성취율별 분포현황 파악				▶		▶			▶		▶			
	평가도구 타당도 등 분석				▶		▶			▶		▶			
	분석 결과의 차기 평가 반영					▶			▶		▶				
	평가, 수업 계획 수립에 피드백						▶	▶				▶	▶	▶	

2.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작성

가. 성취기준 작성

각 학교에서는 학년 초 또는 학기 초 교과별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준비하여야 한다.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학교 교육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학기 단위 성취수준은 각 학교에서 교과(학년) 협의회를 통해 개발해야 한다.

국가수준의 교과목별 성취기준·성취수준을 학교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을 수정·보완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수·학습 및 평가의 단위로 적절한지 검토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상세한 경우에는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재구성한다.
- 성취기준을 재진술할 경우 교육과정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교수·학습 활동의 현실적 실천가능성을 고려하여 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어법에 맞게 진술한다.
- 교육과정의 내용에 비하여 학습량이 많아지거나 내용 수준이 높아지지 않도록 수준과 양을 적정화한다.
- 한 개의 성취기준이 1~2차시의 교수·학습이 가능한 범위와 수준에서 소주제 중심으로 진술한다.
- 교육과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가급적 ‘~할 수 있다’의 형식으로 진술하여 ‘도달점 행동’이 드러나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 작성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은 국가수준의 성취수준을 구체화하여 재진술하거나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성취수준을 세분화 또는 국가 수준의 성취수준 상, 중, 하 내용을 학생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다.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을 수정·보완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각의 성취기준에 대응되는 성취수준을 개발한다.
- ‘상·중·하’ 수준은 ‘지식 이해’ 및 ‘기능 수행’ 수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정도를 구분하여 각 수준 간 차이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진술한다.
- 일반적으로 보통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충실히 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 성취수준 ‘중’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한다.
- ‘하’ 수준은 성취기준의 내용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하게 수행하는 수준임을 반영한다.
-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성취기준에 비하여 수준이 높아지거나 학습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성취수준의 특성을 진술한다.
- 성취기준 ‘상·중·하’를 설정할 때에는 가급적 도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행동 동사를 사용한다.

다음은 국가수준의 성취수준(국어과목)을 구체화하여 재진술한 사례이다.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		
		상	중	하
사회적 규약을 담은 글의 특성을 알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평가한다.	규약문의 특성을 말할 수 있다.	<p>【국가수준】 규약문의 특성을 다른 글과 비교하여 적절한 예를 들어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다.</p> <p>【수정】 규약문의 특성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른 글과 비교하여 적절한 예를 들어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다.</p>	<p>【국가수준】 규약문의 특성을 두세 가지 정도로 다른 글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p> <p>【수정】 규약문의 특성을 교과서 내의 다른 글과 비교하여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p>	<p>【국가수준】 규약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다른 글과 구별하는 데 서투르다.</p> <p>【수정】 규약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다른 글과 구별하는 데 서투르다.</p>

다. 학기 단위 성취 수준 개발

교과목별 학기 단위 성취수준을 개발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교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 해당 학기 학습할 단위 목표 및 내용, 해당 학기의 교수·학습 목표 등을 참조하여, 교수·학습 결과로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관찰될 수 있는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진술한다.
- 해당 학기 내에 포함된 성취기준의 내용을 포괄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단순히 성취기준을 나열하지 않도록 한다.

○ 각 성취수준의 일반적 특성 및 성취율을 반영하여 수준별 특성을 진술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국어 교과와 성취수준이 A인 경우, 한 학기 동안 국어 교과에서 학습한 성취기준에 90% 이상 도달한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성을 진술한다.

○ 해당 학기의 각 수준별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진술문 이외에 부가적으로 구체적인 진술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성취수준에만 구체화된 진술문을 제시하지 말고, 성취수준별로 진술문의 개수가 유사하도록 진술한다.

3. 교수-학습 설계

학기 초에 단위 학교별로 마련한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의 방법, 운영 시간, 평가 방법 및 유형 등을 계획한다. 성취기준별 수업 목표 도달을 위하여 학생 특성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계해야 한다.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은 성취기준의 행동 동사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성취기준별 수업 방법과 평가방법을 계획한 사례이다.

단원	성취기준	수업 방법	수업 차시	성취수준										비고
				지필고사				지필고사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발표	토론	보고서	과제수행	기타		
I-1	~설명할 수 있다.	강의식 조별협동	1/34	○		○								
I-1	~지도를 그릴 수 있다.	탐구학습	2~3/34	○									○	블록
I-2	~비판할 수 있다.	패널토론	4~5/34	○		○								블록
I-3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개별과제 프로젝트학습	6~7/34					○		○				블록
I-4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과제발표	8/34			○		○						
⋮	⋮	⋮	⋮	⋮	⋮	⋮	⋮	⋮	⋮	⋮	⋮	⋮	⋮	⋮
II-1	~보고할 수 있다.	UCC발표	34/34	○						○				

4. 평가도구 제작

가. 출제 계획 수립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출제 계획 수립 시, 평가 범위에 해당하는 성취기준 중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성취기준을 선정한다.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출제 계획 수립 시, 성취기준, 평가 내용, 평가 영역별로 평가 문항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성취기준의 수가 출제 문항 수보다 많지 않은 교과와 경우에는 가급적 모든 성취기준에 대하여 평가 문항을 출제하도록 하되 중요도가 높은 성취기준에 대해서는 두 개 이상의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 성취기준의 수가 출제 문항 수보다 많은 교과와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성취기준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거나 성취기준을 두 개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다.

○ 문항의 유형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의 특성, 제작의 용이성, 채점의 용이성과 객관성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나. 교과협의회 개최

성취평가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제 전후에 교과협의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성취기준에 의한 출제계획 수립과

성취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분석(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 등) 및 피드백 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과담당교사가 1명만 있어 교과협의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사 교과 협의회나 학년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인근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과연구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나가며

성취평가제의 도입은 학생 평가를 상급학교 내신 자료로 전락시키는 대신에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적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평가제도의 변화는 당분간 입시제도와 연계하여 학교 현장과 사회에까지 혼란과 우려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상대평가 제도의 친숙함과 용이함을 고집하기 보다는 성취평가제의 교육적 기능에 새로운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이다.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사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이 성취평가제와 일관성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즉, 학생이 도달해야 하는 교과별 성취기준을 정하고 그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한 다음,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평가하고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과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여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도 높은 평가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성취기준이 적절한지, 성취기준에 근거한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이 적절하였는지, 성취기준이 제대로 성취되었는지, 평가도구가 타당했는지 등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해나가는 자세를 통하여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성적을 서열화하기 위하여 어려운 함정문제 출제, 동석차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소수점 배점 부여 등과 같이 변별력 확보에 치중하였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학생의 실질적 학력 향상을 추구하는, 즉 평가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교사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학교는 학생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 존 시알디 -



교과교실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 국내외 학교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글 > 최 영 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두 개의 시선

A. “... 새롭게 만난 학생들, 그리고 학교의 상황은 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나 하나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이 눈 앞에 있었다. 학생들은 개학 첫날부터 나의 수업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무기력한 표정으로 잠을 청했다. 복도의 양끝에 있는 화장실은 2교시도 지나지 않아 담배 연기로 가득 찼다. 아침 조회에 늦고, 청소하지 않고 도망가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다.”¹⁾

B. “지난 1년 6개월간 교과교실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했던 학교 담당자로서 기대를 충족시키는 만족감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을 모두 겪어 보았다. 아직은 그중 후자가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희망적인 것은 교과교실을 통한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과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만족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²⁾

어떤 의미로든 지금의 학교 교육이 간단치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폭력만하더라도 학교 울타리를 넘어 국가 차원의 과제가 된지 벌써 몇 년째이고, 공교육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1) 김철중(2012), 2017년까지 새로운 고등학교 만들기, 이담, 5쪽.

2) 신정해(2012), '교과교실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인성 교육을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2012학년도 교과교실제 운영교 우수사례 모음집, 인천광역시교육청, 2012, 7쪽.

나온 많은 정책들은 오히려 교원들로 하여금 “가르침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기 어렵게”³⁾ 만들곤 한다.

예시한 A와 B 역시, 현장 교사의 눈에 비친 2012년 고등학교의 모습이다. A는 잠시 학교를 떠나 있던 교사가 몇 년 만에 학교로 돌아와서 바라본 모습이고, B는 교과교실제 운영 업무 담당 교사가 느꼈던 소회한 자락이다. 쉽지 않은 학교의 모습이 고스란하다. 다만, 1년간 교과교실제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의 입장에서, A의 관찰이 냉엄한 현실임에도 B의 진단 속에 엿보이는 변화의 조짐에 희망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필자의 욕심이거나 자기 위로일까?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2012년도 전체응답자의 24.2%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29.9%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응답자의 45.3%는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자의 37.8%가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현안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1순위(35.8%)로 꼽고, 현재보다 인성교육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과교실제의 추진 배경과 현황

1. 추진 배경

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한마디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 잡기가 쉽지 않다. 교과교실제만 하더라도 시행된 지 5년째이건만 아직도 회의적 시선이 존재한다. 그래도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론을 찾아본다면, 다음의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해도 괜찮을 듯하다.⁴⁾

요약하자면,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면서도 대체로 관망상태라 할 수 있는데, 학교가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려면, 인성교육을 중시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인성교육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교실수업개선을 강조하게 된 것도 이 같은 기반위에 가능 했을 것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어울려 추진되는 교과교실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요구에 기인한다.⁵⁾ 우선 창의인성 교육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창의인성의 강조는 우리 사회의 강력한 합의이자 요구로서, ‘선택’과 ‘수준별 맞춤’ 등을 키워드로 하는 현행 교육과정의 핵심 지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요구를 현재의 ‘학급 교실’ 시스템이 담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학생의 관심과 수준에 따른 ‘선택’은 지금보다 더 많은 과정(課程)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당연히 학습을 위해서는 교실과 교사가 더 필요하다.

3) 김철중(2012), 같은 책.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연구보고 RR 2012-24), 38쪽, 40쪽, 44쪽, 65쪽.

5) 이하는 최영선(2012), ‘창의인성교육 구현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인천교육 47호, 135쪽~136쪽의 요약임.

다음으로 학생수 감소와 유희교실 증가 추이이다. 학생수 감소 → 학급수 감소 → 여유헌실 증가의 연쇄에 따라 유희교실은 2009년 3,340실에서 2016년 6,132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리적 조건이 빠르게 달라지면서 뻘뻘했던 학교는 혈령해지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는 ‘이동’이 비현실적이다. 당연히 ‘학급’을 중심으로 고정되어야 교육과정 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인성’ 활동은 엄두내기 어렵다.

그러나 빈 교실이 늘어나면 ‘선택’에 따른 교실 제공이 가능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수준에 맞추어 ‘이동’할 수 있다. 찾아간 교실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면, ‘창의인성 교육’은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적 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2. 추진 경과⁶⁾와 문제점

2009년 교과교실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정책연구를 위한 모색의 분위기가 강했으나, 2011년부터는 2014년까지 여건이 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면도입을 목표로 확대 추진되기 시작했다.

인천은 2009년 30개교, 2010년 9개교, 2011년 44개교, 2012년 36개교가 지정되었고, 2013년도에는 70여개 학교가 새로이 지정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2014년에는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251개교 가운데 소규모학교, 이전 예정교 등을 제외하고 <표 1>과 같이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된다. 아직은 과목중점형 학교가 대부분이지만, 유희교실이 계속 늘어나고 2009 개정교육과정 각론(교과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는 2016년까지 더욱 많은 학교가 선진형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2012년부터 도입된 성취평가제가 2014년 고등학교의 보통교과(1학년)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 교사의 주된 업무가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더욱 그렇다.

[표 1.연도별 교과교실제 신규교 지정 현황(2013.3.15현재)]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선진형	과목중점	전환형	선진형	과목중점	전환형	계	누계
2009	1	13		1	15		30교	30교
2010	1	1		2	5		9교	39교
2011	5	21		4	14		44교	83교
2012	5	16		1	133	1	35교	118교
2013	17	23	3	4	20	3	64교	182교
계	29	74	3	12	67	4	182교 (71.7%)	

여기까지만 보면, 교과교실제 사업의 진척은 순조로운 편이다. 그러나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가 어려움을 호소한다. 교과교실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교과교실제를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연결시켜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시설의 선진적 재구축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에 머물거나, 블록타임제와 같이 새로운 수업 조건에 직면해서도 여전히 기존의 수업 방식을 고수하기도 한다. 물론 환경 구축이 교과교실제의 추진에서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창의·인성’, ‘학생중심’, ‘선택’ 등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다보니, 교실은 갖추어 놓았되 어떻게 수업을 풀어나가야 할지 당혹스러운 것이다.

6) 최영선(2012), 136쪽을 요약함. 단, 2013년 신규 지정은 유동적임.

현안 과제 및 지원 노력

1. 운영 만족도

2012년 교과교실제 우수교 선정을 위한 KEDI 실사에서 인천의 우수교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나,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표2>와 같이 전국 평균에 밀들었다.

※ 교과교실제연구지원센터, 교과교실제 운영내실화 방안연구 중간발표(2012.12.14)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교에 대한 서로 다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만족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학교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수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심사 지표에 부합하려는 노력에 비해 교실수업개선 노력이 부족하다. 셋째, 동일한 조건이라도 학교 간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넷째, 교과교실제 운영교 대상 현안 실태 분석⁷⁾에서 드러나듯, 교과교실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실수업개선 및 교과협의회 활성화가 부족한 편이다.

[표 2. 교과교실제 수업만족도 결과(지수 : 5.00)]

no	만족도 항목	전국평균	인천	비고
①	수준별 수업 만족도	3.34	2.95	서울, 부산, 경기, 울산, 인천은 전체적 저조 광주 전 영역 높음
②	블록타임 수업 흥미도	3.51	2.95	
③	기자재 활용 수업 만족도	3.25	2.94	
④	수업 향상에 대한 기대감	3.36	2.78	

2. 학력 저하의 우려

교과교실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력 저하의 문제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입시나 성취도 평가에서 다소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나타내 그런 인식을 갖도록 했다.

그런데 2011년 입학생을 기준으로 선진형 고등학교 운영교(7개교)의 학력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교과교실제 운영교가 우수학력과 기초학력 모두에서 긍정적 추이를 보였다. 교과교실제는 학생 선택 및 수준별 맞춤 수업을 기본으로 운영되므로 앞으로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본다. 다만, 성적 추이가 긍정적일지라도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교과교실제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전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3. 운영교 교원들의 부담(주요 관심)⁸⁾

관리자와 교사에 따라 다르다. 관리자들은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운영 관리상의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예산 사용, 생활지도, 그리고 안정적인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들었다.

교사들은 주로 교실수업과 관련하여 블록타임제, 집중이수제 등 새로운 수업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미숙, 각종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 방법 및 모형 숙지 미흡, 교과협의회 활성화 등 교과중심 업무분장에 익숙지 않음 등을 순으로 응답했다.

7) 2012년 교과교실제 학교관리자 연수(2012.10.22~23) 분임토의 결과 요약

8) 2012년 교과교실제 학교관리자 연수(2012.10.22~23) 분임토의 결과 요약

4. 운영교 확대에 따르는 문제

당장 두 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우수한 강사 확보의 곤란이다. 운영교가 적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학교마다 강사 구인에 애를 먹고 있다. 더불어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계약제 교원 관련 법령의 미비로 학교의 필요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것도 학교의 고충이다.

다음으로, 행정보조인력 구인의 문제점이다. 교과교실제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존의 분장업무는 행정보조인력을 채용해서 보완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관련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구인 및 활용이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교사의 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의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환경 구축, 인력 관리 등 제반 현안의 추진에 따르는 법령 및 지침 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관련 기준 설정 및 매뉴얼 제정으로 학교에서 느끼는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업무 담당자 인력 보강과 유관 부서 간 업무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미 2013년 1월 1일자로 교과교실제 업무 담당 행정직이 1명 증원되어 운영교의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과 현안 문제 집중 지원이 좀 더 내실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실제 컨설팅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미 작년부터 컨설팅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바이므로, 자체 컨설팅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전년도에 이어 유형별(교육과정, 수업개선, 환경조성, 생활지도 등) 컨설팅단 구성하고 학교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2012년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교(20개교)⁹⁾와 해외 선진사례(5개교)¹⁰⁾를 통해 교과교실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꾸준한 홍보와 연수가 필수적이다.

교과교실제는 학교 공동체의 공감 없이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교과교실제 자체가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담당 부장이나 몇몇 T/F팀의 '업무'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대부분의 운영교 담당자들은 초창기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교사들의) 심리적 저항'과 '업무 분담의 애매함'으로 힘겨워 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내와 홍보도 중요하다. 학급교실에 익숙했던 학생들에게 '이동'을 요구하려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교과교실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계속 설득해야 한다.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12학년도 교과교실제 운영교 우수사례 모음집 참조.

10)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2년도 교과교실제 해외(영국, 프랑스) 선진교육 실태조사보고서 참조.

결국 원활한 소통 노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관건인데, 교과교실제가 왜 필요한지, 무엇보다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성숙되면서 교사들 스스로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과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 교과 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수교 대부분은 학생 동아리 활동,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급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기 위한 각종 리그전,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학교나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영국, 프랑스의 학교들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은데, 학교는 지역사회의 봉사하는 구심점으로서 그 위상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학교의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학교 역시 열악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냄으로서 상호 Win-Win의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 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해외 선진사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도서관의 위치와 기능이다. 대개 중앙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채광이나 색상에도 신경을 써서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돈다. 도서관은 과제물 수행 등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홈페이지, 소단위 학습 공간 등과 융합되어 학생들의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자리가 되어 있다.



◀ 프랑스 최고 명문 앙리5세 고등학교



영국의 브릿지 아카데미 도서관 ▶

○ 수업의 질적 변화를 추구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교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수업의 변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교과교실제는 특별한 것, 색다른 것, 뛰어난 시설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얼마나 알차게 준비하고 시행해서 즐겁고 활기찬 수업을 진행하여 가르치는 기쁨, 배우는 기쁨을 만끽하느냐는 것”¹¹⁾을 교사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사실, 학생의 적성과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수행평가 방법의 다양화, 교과부서의 실질적 운영, 교과별 학습자료 제작 활용, 교과협의회 활성화 등은 특별히 새로운 것 없는 활동들이다. 단지 우수교는 그러한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그로 인해 학력이든 만족도이든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 교사(문화)에 변화가 있다.

3년째 교과교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교사의 말이다. “교과교실제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교사이다. 교과교실제는 대부분의 교사가 처음 접하는 변화이므로 교사들의 역량을 모아 변화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우연한 인맥으로 인한 교사 협업이 아니라 교사를 자신의 교실 밖으로 이끌어 동일 학년 간, 동일 교과 간 모임을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교사들의 협력은 과학중점 교과교실제 운영교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의 관심, 시간이 갈수록 내실화되는 프로그램, 학생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등은 교사 1명의 열정이 동료 교사들의 열정을 북돋우고, 나아가 평범하던 학교를 지역에서 선망받는 학교로 변화시키고 있다.

○ 블록타임을 이용하여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블록타임제에 대한 반응은 운영교마다 극과 극이다. 블록타임제를 ‘현실에 맞지 않는 두통거리’로 간주하는가 하면, ‘시간이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상당수 학교는 블록타임제를 규정적으로 적용하거나 연강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힘에 겨워한다.

우수교의 가장 큰 특징은 융통성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마냥 블록타임에다 수업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수업에다 블록타임을 맞춘다. 수업을 위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블록타임을 적용하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할 지 사전에 준비한다든가, 모둠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를 한다. 당연히 이런 학교에서는 블록타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

○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학교의 특색과 여건을 최대한 고려한다.

교과교실제 우수교를 방문하거나 사례를 접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옆에서 하는 대로’의 법칙¹³⁾을 따르지 않는다. ‘위에서 시키는 것’과 ‘옆에서 하는 것’을 참고는 하되, 학교의 지향이나 여건의 고려가 우선이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여기에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2학년도 교과교실제 운영교 우수사례 모음집, 38쪽.

12) 위의 사례집, 49쪽.

13) 우치다 다츠루(박동섭 옮김), 교사를 춤추게 하라, 민들레, 2012, 79쪽.

나가며

필자는 2000년대 중반 1년 남짓 미국에 체류하며, 그곳의 중·고등학교를 엿볼 수 있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들은 한국 교육을 칭찬했고, 나는 그들의 교육이 부러웠다. 물론 그들에게도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교사로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에서 만났던 한국 학생들¹⁴⁾의 심정적 선택을 접하고서였다. 11명 정도 만났는데, 대부분이 미국 학교에 더 있고 싶어 했다. 스코어 11:0!



▲ 웨스트 하이스쿨의 세계사 교과교실



▲ 웨스트 하이스쿨의 뮤지컬반 공연

이유가 무엇일까?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자기 주도성’이었다. 학생의 ‘선택’은 교사로부터 ‘존중’ 받았고, 학생의 ‘활동’은 교사의 ‘친절’한 안내 속에 이루어졌다. 이의제기가 자연스러웠고, 일제식 시험은 아니어도 학생은 ‘공정’하게 평가받았다. 그리고 선택중심 수준별 교육과정, 교과교실 이동수업, 집중이수, 블록타임, 특별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교육의 기본이었다. (그때는 무척이나 생소했던 내용들이다!)

불과 몇 년의 시차를 두고,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도 위의 내용들이 상당히게 진척된 상황이다. 아직은 몸에 안 맞는 옷처럼 불편함이 있으나, 우리나라 각 분야의 발전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감안하면 곧 정착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우리의 여건이 학생의 ‘주도성’과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그에 걸맞은 교육의 틀과 방법을 한시라도 빨리 정착 시키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교들이 보여주는 높은 만족도의 교육활동 사례는 분명히 일 반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본다.

14) 교환학생이거나 교환교수 또는 유학 중인 부모님을 따라 온 학생들이.



Power Interview

교사, 교사를 만나다 [계양고등학교 교사 지세훈]

■대담 계양고등학교 교사 김종해

힐링이 필요한 시대, 교사들의 힐링 멘토를 만나다

지난겨울 유래 없이 혹독했던 겨울을 참고 견디며 꽃이 피는 화창한 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추위를 곱씹으며 맞이한 봄은 <고교생들 “잘 가르치는 것보다 관심 갖는 교사가 좋아”>나 <우울한 스승의 날, 교사 72% “학생지도 고통”> 같은 기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마음속은 여전히 찬바람으로 가득했다. 스스로 ‘잘 가르치는 교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교사로서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힐링’은 20대 청춘들뿐만 아니라 교사인 나에게도 필요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정년을 앞두었지만 여전히 청년 교사와 같은 열정으로 교단을 지키고 계신다는 교사들의 멘토 ‘지세훈’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세훈 선생님을 찾아간 날은 목련과 벚꽃이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4월 중순 무렵이었다. 계양고등학교 2층에 위치한 1학년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저, 지세훈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고 어색한 인사를 올렸다. 그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지세훈입니다.”며 일어서시던 모습에 긴장된 마음은 한순간에 누그러졌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은 봄 햇살보다도 눈부셨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평생을 보내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삶을 입증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고등학교 시절 국어교사의 길을 택할 꿈과 용기를 주셨던 은사님을 뵈는 듯, 혹은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서로 두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눴다. ‘나도 학교에서 저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다.

“
교사들의
힐링 멘토를
만나다
”

좋은 교사? 손에 박힌 가시 같은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

김종해 * 전임교가 계산고등학교이셨지요? 계양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전 올해 계산고에 부임하자마자 그 풍경에 푹 빠져버렸거든요. 하하하. (함께 웃음) 이렇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세훈 * 취재요청에 응하긴 했지만 이거 내가 지금 대답을 하면서도 괜한 일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글로 남길 것이 있나 싶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해 * 무슨 그런 겸손의 말씀어요. 교사가 되겠다던 그 첫마음을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선생님은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직에 몸담게 되신 계기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교사가 되고 싶으셨는지요? 교직에 들어오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지세훈 * 교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고3 때였어요. 고3 때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반 누구 그러고 이름을 얘기하면 그 애에 대해서 막 줄줄 나올 정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만 잘 따라오면 무언가 이루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어떤 애들은 냉소적으로 그냥 흘려들었지만 많은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았지요. 가장 크게 감화를 받은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김종해 * 지세훈 선생님을 교직으로 이끈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 역시 ‘교사’였군요.

지세훈 * 예, 맞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생님의 모습을 따라 사립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행복했어요. 교사의 월급이 박봉인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이 “야, 너 얼마 받냐? 두 배 줄게 나와라.” 라고 할 때도 “야, 나는 애들이랑 학교에서 지내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난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과의 생활이 즐거웠어요.

김종해 * 그러셨군요.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선생님께서 그런 행복을 느끼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시는지요?

지세훈 * 우리 애들에게 부담을 안 주면서도 즐겁고 의미 있게 공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아침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이 아주 힘들어 하고 싫어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아이들이 짜증도 덜 내고 저의 마음과 노력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애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아침 영어 단어 시험 때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김종해 * 아, 학생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군요. 혹시 그러한 생활 태도가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시는지요?

지세훈 * 애들과 동료 교사들을 도와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학교에 담임을 맡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을 지원

“아이들은

기다리면

달라질 수 있다



하여 배정받게 되었어요. 내년에도 꼭 담임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학교와 애들에게 해 줄 일인 것 같더라고요.

김종해 * 애들을 대하는 마음을 보면 선생님께서 담임을 맡으시는 게 애들에게나 동료 교사들에게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체력을 바탕으로 행정업무를 푼심 있게 할 수 있는 젊은 교사와 경륜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선배 교사가 어우러져 조화로운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세훈 * 허허허. 예, 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나이 든 나를 잘 도와주고 해서 담임 일이 여전히 재미있어요.

좋은 교사? 화 내지 않고 이해시키는 사람!

김종해 * 이제 선생님께서는 보직교사도 해보시고, 담임도 해보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학교에서 다 겪으신 후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직전이시잖아요. 교직의 대선배로서 후배들, 혹은 세상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세훈 * 신규 교사 시절, 그때 애들이 담배 피우고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뛰어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녀석들을 잡아다가 징계를 하고 그랬어요. 그 때 잡힌 녀석들 중에 한 녀석이 나중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선생이 애들을 살리고 애들은 불완전한 애들이니까 완전하게는 못해 주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게끔 그렇게만 들어주는 게 선생인데, 내가 그 아이 인생을 막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평고등학교와 부광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을 할 때는 ‘나한테 온 애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끌어안는다. 죽어도 끌어안는다.’고 다짐했어요. 좀 험악한 사건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끌어안았어요. 퇴학을 시켜야 했는데 끌어안아서 졸업을 시켰거든요. 퇴학을 시키면 그 아이가 ‘아, 나는 이런 인간 밖에 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까봐 학교에 붙잡아 두었었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잘 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학교를 그만두면 그 아이에게 평생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 같아 내가 잡았던 거지만 그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기다려 주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말이예요.

학교폭력 예방? 교사와 학생이 신뢰하는 관계 맺기에서 시작하기!

김종해 * 최근 들어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교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장을 오래하시면서 쌓인 학교폭력

김종해 * 선생님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후배 선생님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지세훈 * 젊은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교사는 애들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다. 교육하는 사람이다. ‘가르치고 기른다’는 ‘교육’의 뜻을 생각해봐라. 교육을 해라! 학생에게 네가 무엇을 왜 잘못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느끼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해줘라. 화를 내지 말고 아이를 이해 시켜라. 이해를 시키면 애들은 뉘우치고 고개를 숙인다. 모든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아주 심하게 규제하고 제지하지 않아도 그렇게 고개 숙인 아이들은 결국 돌아온다.” 살면서 보니까 마음으로 느끼고 올바른 배운 애들은 어떻게든 달라지더라고요.

예방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후배들을 위해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지요.

지세훈 * 과거의 학교폭력은 약간은 낭만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남학생들의 경우 힘에 기반을 둔 몇 부리기
와 허세가 학교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요즘의 학교폭력은 그 때와 달리 잔인하고 흉포하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폭력과 도난 문제에 대해 학기 초에 반복해서 몇 주간 주지를 시켜요. 학교폭
력은 일단 발생하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방이 최선인데, 예방을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그건 안 된다
나쁜 짓이다.”고 얘기를 해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종해 * 그런 이야기만으로 학교폭력이 예방된다는 것은 좀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지세훈 * 학교생활은 최대한 즐겁고 보람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선생님들과 학교를 무
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 고등학교 애들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인지 이해를
합니다. 교사가 교실과 학교 내에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 처럼 보살피고 바른길, 행복한길로 안내한다는 믿
음만 애들과 형성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좋은 교사?

화 내지 않고

이해시키는 사람



김종해 * 교사와 학생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그 뒤에 학교폭력 이야기를 꺼내셨군요. 학생 개
개인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뒤에 학교 폭력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학교 현장에서 인격적인 방법으
로 뿌리내린다면 큰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지세훈 * 그런데 단체 활동으로 수련회를 다녀오니까 자기들끼리 친해져서 그런지 요즘 좀 서로 장난
도 심해지고 그러는데, 다시 또 조금 좀 잔소리를 해야죠. 이거 나이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너무 예뻐
져서 그게 탈이라니까요. 허허허.

김종해 * 저도 3년 만에 담임을 맡았더니 고3인데도 애들이 귀엽고 기특하던걸요. 선생님께서야
오죽하시겠어요. 교사에게 가장 바쁘고 힘든 것도 담임이고, 가장 재미있고 보람된 것도 담임이
란 걸 교사가 아니면 모를 거예요. 나중에 자라서 무엇이 되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꿈나
무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주고, 바람이 불면 버팀목이 돼주는 것이 교사인 걸 잊는 순
간 교사 개인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죠. 아마, 애들 예뻐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예뻐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지세훈 * 어떤 때는 잘못된 애들 데려다 놓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얘기를 하
고 있더라고요. 교사로서 지도할 건 지도를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애를 얹혀 놓고 얘기
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글썄, 허허허.

김종해 * 대하기 어렵고 무서운 선생님들만 계시면 애들이 숨통이 막혀서 어떻게 학교
를 다니겠어요.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야 애들이 학교에서 숨을 쉬죠. 이런 분 저런
분이 적당한 비율로 계시야 애들도 학교 다닐 맛이 나죠.

고경력교사가 가지는 어려움

김종해 * 빠르게 변하는 학교 현장에서 고경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위에서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내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서 늘 허덕거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세훈 * 워낙 속도를 중시하는 시대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학교 현장의 업무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저 같은 경우는 따라가기 바쁩니다. 일의 양과 속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질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수업과 자율학습의 경우 질보다 양을 생각해서 무리수를 두곤 하는데 ‘양보다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단지 않습니까?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김종해 * 교사라면 현실적으로 수업 외의 학교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학교현장의 업무 처리 속도에 발을 맞추시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보시는지요?

지세훈 * 뭘 해내라 그러면 우선 한 열흘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서둘러서 하면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남들에게 맞춰서 낸다고 했다가는 꼭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사방에 흩리고.... 그런데 미리 한다고 준비하고 일을 진행해도 늘 빠뜨리고 늦게 제출하는 일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 같아요. 뭐든지 제출할게 있으면 미리미리 해 놓는데 시험 문제 같은 건 보통 열흘이나 보름 정도 미리 준비해요. 시험 문제는 뭐 여러 번 되짜도 맞고 그러고 그래요.

김종해 * 정기고사 원안지 출제나 검토 같은 경우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반복하다보면 힘드시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다보면 문항 오류 발생은 막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세훈 * 그래도 틀리는 걸 누군가 꼼꼼히 잡아내 주니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그런 건 좋아요. 그래도 이거 나이 들어가지고 계속 되짜를 맞으면 좀 그렇기도 해요.

모르고 지나간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들

김종해 * 그때는 모르고 지나간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사로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선생님께서 경험하셨던 것들을 미리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직은 제 그릇에 아이들을 담아내려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런지 아이들을 틀에 가두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지난 세월 교사로서 잘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아이들을 선생님의 마음으로 혼을 낸 게 아니라 화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화를 냈던 일들이 생각나 부끄럽습니다.

지세훈 * 보잘 것 없는 제 얘기에서 그런 생각까지 하시다니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한 수 배운 것 같아요. 허허허.

김종해 * 겸손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당장 이 아이가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을 보려고 하기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일으켜 결국 착실한 사람이 돼가는 것을 기다려줘야 하는데 말이죠. 마치 마을 어귀에 수백 년을 묵묵히 서있는 느티나무처럼 지켜봐 주는 것이 선생님의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란 걸 일깨워 주셨는 걸요. 우리는 아이들이 아직 자라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세훈 *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저도 기쁩니다.

김종해 * 교육을 왜 백년대계(百年大計)라 이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갈등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학생의 입장, 교사의 입장, 올바른 입장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배웠는데 나는 과연 올바른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었는가 아니면 그 아이의 행동과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화만 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세훈 * 아이고, 무슨 대단한 얘기라고 그런 말씀을.

김종해 * 시간과 지면이 제한돼 있어서 선생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다행히 가까이 계시니 이따금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인생과 교사의 길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행복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웃음소리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마음속에 맴돌았다. 문자로 옮길 수 없는 그분의 웃음소리에서는 학생들을 향한 사랑, 후배 교사들을 아끼는 마음이 수십 년 묵은 장맛이 느껴졌다. 검지로 찍어 먹었을 때 푸근하게 온 몸을 감싸는 어머니의 장맛처럼 학기 초 업무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받는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어 새로운 힘을 주었다.

아쉬운 것은 선생님 같은 좋은 원로 선생님들이 올해 세월의 흐름 앞에 퇴직을 하게 되신다는 사실이다. 좋은 스승을 잃게 된다는 걱정이 잠깐 스쳤지만 지세훈 선생님의 미소가 그러한 걱정을 잠재웠다. 선생님 말씀의 십분의 일도 담아내지 못한 부족한 이 글을 통해서나마 인천 교육은 또 하나의 '큰 바위 얼굴'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어니스트'들이 또 다른 '큰 바위 얼굴'로 인천교육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광장·현장르뽀

[정보광장]

- **학습연구년제 - 새로운 충전을 위한 보석같은 시간**
인천부원초등학교 교사 정인숙
-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길, 수석교사를 말하다**
인천문학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정숙
- **학업성취 우수 일반고의 특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선주

[현장르뽀]

- **전국 최초 다문화 대안학교 한누리학교 방문기**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채송화
- **청라 달튼 스쿨 이근혁 선생님 수업 참관기**
-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자극하는 프로젝트 수업
연성중학교 교사 최남현

새로운 충전을 위한 보석같은 시간



글 > 정 인 숙
인천부원초등학교 교사

어색함의 뒤를 밟고 온 행복감

학습연구년제 교사 확정 명단이 발표되던 날, 내 이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이 온 몸을 감쌌다. 생전 처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서도 기쁨과 기대에 들떠 있었다.

교원대와 연수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낯설지만 행복해 보이는 인천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을 만났다. 학교에서는 신학기를 준비하느라 바쁜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다 보람 있고 행복한 1년을 보낼 수 있는지 행복한 고민에 들어갔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되나, 지금은 전담 시간이고 잠시 후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할 공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하루 종일 전담 시간이 계속되는 행복감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잃고 세 개의 자격증을 얻다

드디어 3월이 시작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려 보이게 옷을 입나, 대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때 어색하면 어찌나’ 하는 고민과 함께 경인교대에서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경인교육대학에 위탁되어 있는 학습연구년제 교사는 최소한 지도교수 강좌 45시간(3학점 1강좌)과 지도교수 면담, 그리고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된다.

우리는 대학, 대학원 과목에서는 청강하고 싶은 것을 모두 청강할 수 있었고, 평생교육원 강좌에서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었다. 나는 지도교수님의 대학원 강좌와 신입생과 함께 듣는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했고, 평생교육원에서 아동미술치료사, 독서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등 세 가지 자격증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했다. 그러다보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등교를 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강좌는 월요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하는 ‘아동미술 치료사’였다. 22명의 수강생 중에 15명이 연구년제 교사였고, 그 중 2명이 인천 교사이고 13명은 경기도 교사였다. 수업은 생각나는 것을 미술적 활동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분석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발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어색한 만남으로 시작했던 모둠원들이 90시간의 수업을 마칠 때는 정말 오래 사귀 친구처럼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나를 먼저 개방했을 때, 상대방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진심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화요일에는 경인교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신체표현’ 강좌를 수강하였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다리던 체육 시간을 신나게 진행하고 싶어도 ‘신체표현’ 단원만 되면 교사와 학생 모두가 당황스럽던 기억을 극복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같이 수강하는 교대 1학년생들이 근무하던 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등학생 같은 대학 1학년생들을 상대로 능수능란하게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교수법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다.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 돌아갔을 때 재미있는 신체표현 시간을 만들어보겠다는 결심도 하였다.

화요일 6시 30분부터 세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지도교수님의 대학원 강좌(국어과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는 정말 감동적 이면서도 매우 힘들었다. 매 시간마다 논문 2-3편을 읽고 토론하고 연구 계획서를 발표하는 활동을 하면서, 27년간 나는 무엇에 근간을 두고 교육을 해 왔는지 나의 무지함에 얼굴이 뜨거워졌고, 복귀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분석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강의 후 연구과제에 대한 지도는 더 힘들었다. 연구주제와 연구문제의 연관성, 연구 목적을 정하는 데만 두 달이 지나갔다. 매우 철저하시고 까다로운 분으로 소문나신 교수님이셔서 어느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교수님 덕분에 연구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철저한 강의준비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강의는 힘들지만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수요일, 독서지도사 강좌는 연구주제와도 연관이 되고, 교육에 있어서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생각에 열심히 수강하게 되었다. 물론 학교에서의 독서교육과 좀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단계적 독서지도법과 좋은 책에 대한 정보, 다양하고 재미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매우 뜻깊은 강좌였다. 특히 70권의 동화책을 읽고 독서록을 작성하는 과제는 매우 힘들었지만,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또한 과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동화를 찾아 읽는 재미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목요일, 자기주도학습지도사 강좌도 연구과제와 연관이 되고, 늘 고학년 담임을 맡았던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강좌였다. 5차원 전면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진로에 대한 교육을 늘 해왔지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있는 강의는 현장 적용성이 높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할 때 멘토의 역할과 방법, 필요한 요소, 학습 코칭의 원리와 프로그램 등 교사로서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좌였다.

8월까지 열심히 수강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한 결과, 10월 중순에 세 가지의 자격증을 받았다. 별것은 아니었지만 객관적으로 나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고, 나중에 자원봉사를 할 때에도 당당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법이라 했던가. 다른 선생님들이 열심히 문화적 여유로움을 즐길 때 좀 많이 부러웠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학습연구년제의 꽃, 북유럽 탐방

9월 3일부터 12일까지 9박 10일간 학습연구년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북유럽 탐방을 다녀왔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삼국의 교육과 문화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북유럽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탐방을 마치면서 우리는 모두 고민에 빠졌다. 특히 핀란드의 고등학생들은 하루에 3-4시간의 학교 공부를 마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



핀란드 올라린 중고등학교 방문 후 안내학생과 함께



비겔랑드 조각 공원 앞에서 모두 '김치'

게 세계 1위의 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힘은 이렇게 강력한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세 나라의 여행이 마무리 될 즈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론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는 실제 체험을 시키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시청사와 유적을 둘러보면서 북유럽을 지배했던 바이킹 후예들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육지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는 북극해의 푸른 물과 육지의 녹음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노르웨이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피요르드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없었지만 오슬로의 비겔랑드 조각공원을 둘러보면서 그 서운함이 모두 가졌다. 한 사람의 인생 철학과 예술성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이 공원은 사람의 일생을 실제 사람 크기의 조각상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인생의 생로병사를 표정 하나하나까지 실감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의 마지막 병든 아내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의 조각상 앞에 서니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여행을 마치고도 마음속에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었다.

열흘의 여행을 마치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좋아도 내 나라, 내 집만큼 편하고 좋은 곳은 없다는 생각에 식구들의 얼굴이 더 빨리 보고 싶어졌다.

내 인생의 신세계, 라인댄스

대학 때부터 한국 무용을 해오던 나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금요일마다 2시간씩 경인교대 평생학습원 무용실에서 라인댄스를 했다. 라인댄스는 학습연구년이 나에게 준 또 하나의 신세계였다.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이 있다니, 부담도 없고, 운동도 되고, 앤돌핀이 무한정으로 흘러나오는 이 기쁨과 행복감, 학습연구년제 기간 동안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기에 열정을 다했던 강좌였다.

3월에 시작해서 6월 23일에 국제 라인댄스 대회에 출전하였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대한라인댄스협회에서 3주간의 특별 지도를 받았다. 교사로서는 입어보지 못하는 색시한 대회복을 네 벌이나 구입하고 화려한 액세서리도 구입했다. 연세대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회 40대 부문에서 운 좋게 2위를 했다. 또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라인댄스 대회에도 출전하여 다시 할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11월 24일에는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라인댄스 마라톤 축제에 참가하였다. 총 60곡의 라인댄스를 외워서 추는 축제였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과 무용실에서 많은 시간 연습을 하고 축제에 참가하는 과정이 보석같은 추억으로 남겨졌다.

대회와 축제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여름에 라인댄스 시니어



서울 국제라인댄스대회 포토존에서

강사 1,2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겨울에는 라인댄스 일반 강사 1,2급 자격을 취득하여 라인댄스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였다. 현재 매주 목요일 5시 30분에 경인교대 평생교육원 무용실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료 강습을 하고 있다. 처음하시는 분들도 한 번 시작하면 중독이 되는지 매우 신나게 배우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서 6월 국제 라인댄스 대회에 참가하려고 계획 중이다.

마음 따뜻한 봉사와 선진 학교 방문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선진지 시찰과 봉사활동을 했다. 상반기에는 충주지역의 선진학교 방문과 꽃동네 봉사를, 하반기에는 성남 보평초등학교 방문과 향진원 봉사를 했다.

하반기에 방문한 보평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유럽에서 부러워하던 학교 시스템을 발견하였다. 유리로 되어 있는 아주 작고 사무적인 교장실, 블록 타임제로 운영되는 하루 일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공동으로 교재연구를 할 수 있는 교사 연구실, 예체능 활동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시설과 교육과정 등을 보면서 우리도 현실 속에 다가온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이동보호시설인 향진원에서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 학교생활에만 몰두하여 나눔의 현장을 찾지 못했던 내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지금은 어렵지만 퇴

임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꼭 찾아서 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교직 생활의 후반부를 열어준 오아시스, 학습연구년제

학습연구년제는 나에게 있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하였고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열어주었으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통해 인생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2013년 3월, 6학년에 복귀했다. 여전히 6학년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다. 그러나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진로교육을 하고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학습연구년제' 일 년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발휘되고 있다. 학습연구년제는 메말라 가던 마음과 몸에 내린 단비이자, 교직 생활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 내 인생의 오아시스였다.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길, 수석교사를 말하다



글 > 이 정 숙
인천문학초등학교 수석교사

나는 참 행복한 수석교사다

어느 날 착실하고 예쁘기 그지없는 후배로부터 달콤한 고백이 날아왔다.

“수석님은 저의 워너비예요.”

‘wannabe’ 라…….

그 유명한 미국의 가수 마돈나의 팬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말 아닌가? 이렇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수석교사인 내게도 ‘워너비’가 생겼다. 이만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수석이 아닌가?

나는 참 고단한 수석교사다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여기저기서 수석교사의 조언과 도움을 요청한다. 그 조언과 도움을 주어

야 할 일들은 제법 깊이있는 배경지식과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작업들이다. 최선의 도움을 주고 싶은 이 짝한 수석은 새롭고 다양한 정보와 늘 씨름 중이다. 친구는 이런 나를 워커홀릭이라 놀린다. 그러나 나는 이를 몰입이라 하고 싶다. 몰입하다보면 어느 덧 배란다의 창문이 밝아올 때가 허다하다. (솔직히 말하면 몰입이 아닌 역량 부족일 확률이 더 크다ㅎㅎ) 고단하다. 그렇지만 교육활동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뿌듯한 일이지 아니한가?

나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문학학교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고단하게 수석교사제 법제화 원년을 보냈고 그 두 번째 해를 보내고 있다. 아직은 그 뿌리가 탄탄하지 못해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때로는 수석으로서의 행복 지수를 깎아 내리기도 하고 뿌듯한 고단함을 허무하게도 만들 때도 있지만 나는 매일 훌훌 털어내고 다시 일어난다. 내게는 이렇게 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학 가족이 있고, 미래의 꿈나무인 ‘워너비’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덕이 많아 교직 생활 동안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훌륭한 교장선생님들을 참으로 많이도 만났다. 그 분들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과 관련된 진로 고민을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다.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 상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것은 늘 내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승진’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어도 지난 교직 생활을 되돌아보면 얼굴 붉어질 정도의 나태함은 없었던 것 같다. 스스로 약간의 칭찬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도 같다. 나는 제법 ‘가르치는 일’에 대해 진지해서 늘 내가 책임져야 할 학년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한 해를 시작했고, 수업 연구와 수업 공개에 있어 솔선수범하려는 건전한 또한 지니고 살았다. 이렇게 교사의 길을 걷다가 옆에서 나를 지켜보던 대학 동기인 교감의 강력한 권유로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다.

나는 각 학교 교실 어딘가에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스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수업에 있어 역량 있는 선생님’(나는 이들을 원석이라 부르겠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러한 원석들에게 좀 더 과감하게 밖으로 나와 그 역량을 표준화시킬 것을, 그리고 교직에 있어 새로운 길인 수석교사의 길을 함께 걷자고 제의하고 싶다.

그리고 젊은 후배들에게는 교직에 있어 ‘가르치는 것’이 본질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수업하는 것’이 제법 즐겁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들의 신념과 열정이 교감, 교장이라는 행정라인 쪽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라는 교수라인 쪽으로 향하면 어떨까 생각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지금 내가 쓰는 이 글은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들을 향한, 장래의 원석들을 향한 러브콜이다,

이제 이 귀중한 원석들을 향한 러브콜,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길, 수석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한다. 조금은 편하게 이야기 하듯 수석교사가 되기까지의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말해 보고자 한다.

그 시작, ‘수석교사제’에 대한 이해

나는 2010년에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3년 차에 처음 합류했다. 그 전에 나는 수석교사제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문외한이었다. 그냥 주변에서 강력하게 해보라고 해서 얼떨결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교육대학원에서 ‘수석교사제’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제도의 본질에 대해 접근 할 수 있었다. 교육 정책 당국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추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수석교사 역할의 바른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수석교사제는 첫째, 직급 분화도가 낮은 단선형 구조의 자격 승진 체제를 개선하고자 둘째,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원들에게 또 다른 진출 경로 마련하고자 셋째, 교수직 중심의 수업전문성 존중 풍토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교육 정책이다.

그 운영 방안의 주요 골자는 교감, 교장이라는 관리라인과 수석교사라는 교수라인으로 교원의 자격체제를 두 가지 길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수석교사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의 과정을 거쳐 2011년에 법제화됨으로써 교직에도 교사, 교감, 교장이라는 직위 이외에 ‘수석교사’라는 새로운 직위가 생겼다. 2012년은 그 법제화 원년이고 올해는 2년째다.

‘수석교사제’는 수석교사라는 직무 특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석교사에게는 관리라인으로의 진출을 불허하고 있고, 동료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4년 동안의 업적 평가를 통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주요 책무는 동료 교사의 교사 전문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연구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일반 교사 보다 약 50% 정도의 수업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관리라인의 진출 불허는 애시당초 ‘교수직’으로서의 수석

교사의 성격을 확실하게 규정짓겠다는 의도라 생각된다. 4년 동안의 업적 심사 결과 재임용하겠다는 의도 역시 수석교사의 역할이 교사 전문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수석 교사의 전문적 자질 또한 검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듯 하다.

수석교사 선발 processing 엿보기

수석교사의 선발은 교육청의 ‘수석교사 선발 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데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교사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로부터 수석교사 추천 적부 심사를 통해 1차 서류 심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차 서류 심사 통과 후에는 2차로 수업 시연, 수업 컨설팅, 심층 면접 등과 같은 역량 평가 과정을 통해 최종 수석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석교사 선발의 과정은 언뜻 보기에도 그리 녹록하지 않은 과정임을 알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서와 함께 수석교사 업무 수행 계획서, 수업 선도 실적서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실적 자료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수석교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교육활동 실적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준비해두는 것도 선발 지원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임을 조언한다.

2차 역량 평가는 단기간의 대비보다는 교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평소 책무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이다. 평상 시 수업 연구와 수업 공개에 많이 노출된 교사일수록, 수업 장학과 관련하여 수업 컨설팅트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사일수록 조금은 덜한 압박감으로 평가에 임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마지막 심층 면접은 교직원, 동료교사와의 소통, 학생 생활지도 등 수석교사 역할 수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구술 면접이다.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상황 그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탓인지

평상시의 논리력을 상실했던 창피한 기억이 지금도 나를 가끔 괴롭힌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만 이 높에서 잘 헤엄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조언한다.

수석교사,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수석교사 선발 processing 중에 ‘수업 선도 실적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수석교사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수업 공개 실적, 수업 컨설팅 실적, 연구 개발 및 기타 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수석교사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스펙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수업 선도 실적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학교 내외의 수업 공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수업공개 실적에 있어 공개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도 동학년 간 수업 공개, 임상 장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공개 실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실적은 공식적인 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 컨설팅 실적은 수업 멘토로서의 활동, 교육지원청 장학위원 활동 등 동료 교사의 수업을 지원한 실적을 의미한다. 단위학교 내 자율장학에서 멘토로서의 역할에 적극 참여하여 수업 컨설팅 실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개발 및 기타 실적으로는 현장 연구, 교육 자료 개발, 교육청 단위 교육 지원 활동, 장학 자료 집필 활동 및 강의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 연구 점수 관련 항목은 교직 총경력 동안의 실적 모두를 제출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수석교사 선발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수석교사에게 부여된 역할은 참으로 다양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다. 수업활동, 교사 지원 활동, 연구 개발활동이라는 3개의 카테고리 아래 수업 공개, 수업 컨설팅, 생활지도, 연수

지원, 교육 연구 활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가끔은 ‘수석교사’를 슈퍼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때가 있다. 이 많은 업무 매뉴얼을 다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학교 실정에 따라 수석의 업무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 중 ‘선택과 집중’의 항목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수업 컨설팅’인데 동료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에게 좋은 수업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수업 능력과 수업 컨설팅 능력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동료 교사들의 인식은 두 개를 함께 인식한다는 것이다.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각 교과별 수업에 대한 바른 안목을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안목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닌 교과별 수업과 관련하여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수업 컨설팅을 하며 평소 교직 생활동안 수업 연구에 적극 참여하면서 축적해왔던 교과별 PCK¹⁾(Pedagogical Content Knowledge)가 오늘 수석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수석 교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더욱 더 수업 연구에 매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표준화된 스펙은 수석교사로 선발되는데 까지 필요한 조건이고 수석 교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은 ‘수업 전문성 확보’ 즉 교육 현장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수업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 방법 등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수업 전문성’ 확보와 함께 수석교사에게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핵심 역량은 바로 ‘소통 능력’이다. 보편적으로 볼 때 교사들은 보다 편한 상황에서 수업 지도를 받길 원한다. 그 편한 상황이라는 게 멘토와 멘티 간 양방향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수업 지도라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 연구한다는 자세로 그들과의

만남을 갖는다면 소통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석교사는 수석교사라는 직위를 직무 위계가 아닌 직무 분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석교사 생활 1년 되돌아보기

이제부터는 지난 1년 동안의 나의 수석교사 생활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단위 학교에서의 수석교사 활용 정도는 수석교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도 자체가 걸음마 단계인 만큼 무엇보다도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가 어떠한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비록 힘들었지만 행복하고 보람차게 수석교사로서의 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장 선생님의 현명함 때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부임한 문학학교 교장선생님은 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하신 분으로 수석교사제에 관해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이셨다. 교장선생님은 교감선생님과 합의하에 수석교사의 업무를 분명하게 해주셨고 권위 또한 정확하게 인정해주셨다. 그리고는 전 교사들 앞에서 수석교사 직위, 역할에 대한 연수를 직접해주심으로써 학교 장학과 관련하여 서로 소통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도록 해주셨다. 두 분 교감 선생님들 또한 수석교사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해줌으로써 서로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인천에서 가장 행복한 수석교사’일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문학초등학교는 2012년에 창의인성모델학교로 선정이 되었다. 동부 교육지원청에서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었던 나는 소속 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을 하는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었다. 문학의 역동적인 환경이 수석교사의 교내 활동 또한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단위 학교 내에서의 1년 동안의 활동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

첫째, 교내와 교육청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국어과 창의,인

성 수업을 공개하였고 둘째, 전 교사를 대상으로 국어과 창의·인성 수업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셋째, 문학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집 개발을 주도하였다. 넷째, 인천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창의·모델학교 운영 관련 컨설팅을 수행했고 다섯째, 교내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개선 연수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교내 활동과 더불어 교육청 단위의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첫째, 남부교육청 컨설팅 장학 지원 활동 둘째, 남부교육청 수업개선 연수 지원 활동 셋째, 인천 교육연수원 맞춤형 연수 지원 활동 넷째, 시교육청 수석교사 활용 연수 다섯째, 수업 연구대회 및 수석교사 선발 관련 연수 등을 지원하였다.

수석교사로서의 1년 동안의 생활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활동 내용의 디테일을 살리다 보면 수석교사 활동에 대한 중압감으로 이제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볼까 하던 원석들을 놓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전능하신 분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Epilogue

지금 숨어있는 원석들은 1년 전의 나처럼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 이후 수석교사 선발에 응시하기까지 나도 많은 고민을 했으니까.

아직은 닦아놓은 길조차 제대로 없는 이 낯선 곳을 함께 여행하자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미안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낯선 곳을 훌륭한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말, 두 번째의 수석 선발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작년에 수석교사 응시를 말린 친구다. 작년에 나는 그 후배에게 관리직에 대한 로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절대로 이 길을 택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1년 동안의 고민 끝에 그 후배는 수석교사 선발에 다시 응시했고 지금 수석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말 수업을 연구하고 누군가에게 수업 컨설팅을 해 준다는 것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 반짝이는 원석과 함께 수석 교사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문제가 생겼다

4월 첫 주에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문학 창의·인성 교과 교육과정 및 수업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께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강의 종료 후 한 위너비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수석님, 저 수석교사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하는 생각에 이유를 물었더니 1년 동안의 수석교사로서의 내 생활이 너무나 고단해보였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저 정도의 역량을 지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주눅이 잔뜩 든 위너비에게

“이 선생이 내 나이가 되면 나보다 훨씬 아는 것이 많아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걱정 뚫~” 이라는 말로 힘을 불어넣어주었다.

다음날 약간 고민스러워 나를 사부님이라 부르는 연구부장에게 이 말을 하였다.

“수석님, 저도 수석님을 보며 수석의 꿈을 키워하려고 마음 먹었는데요. 포기했어요. 저는 수석님 같이 일하기도 힘들고 역량 또한 턱없이 부족해서 감히 엄두가 안 생겨서 다른 길이 오히려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함께 잘해보자고 열심히 산 1년이 오히려 그들에게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산이 되어 버렸나보다.

‘하~~~~ 이걸 아는데~~~~’

올해는 조금 느슨하게 그들에게 여유있게 보이면서 수석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다시 주변의 워너비들을 모아서 달래봐야 할 때 인 것 같다.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다

올해에는 남부교육지원청에도 초등 수석이 3명이 새로 영입되면서 식구가 5명으로 늘어났다. 내가 그랬듯이 새로 영입된 수석들 역시 모두 스마트한 교장선생님을 만나 모두들 행복하게 열심히 수석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장’이 아닌 ‘수석 모두가’ 행복한 수석이라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다.

수석교사로서의 보람

후배 교사가 제자로 변해요.

워너비도 생겨요.

후배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뽀뽀히 무언가가 고개들기 시작한다면

Shall we dance with me?

교육은 도덕과 지혜의 두 기반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도덕은 미덕을 받들기 위해서이고,
지혜는 남의 악덕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 S.R.N. 상포르 -



학업성취 우수 일반고의 특성



글 > 홍 선 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본원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급별로 학업 성취가 우수한 학교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해당 학교들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중 2012년도에 수행된 고등학교 연구를 토대로 학업 성취 우수 일반고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업 성취 우수 일반고는 어떻게 선정되었나?

여기서 학업 성취 우수 일반고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학업 성취가 우수한 일반고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특성 등 내적 변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사교육의 보조 없이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 곳을 말한다.

‘학업성취 우수 일반고’로 선정된 학교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학교이다. 먼저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우수’ 학력 비율이 도시의 경우 50%이상, 읍면지역의 경우 40%이상인 학교이다. 두 번째로는 교과부가 2011년도에 발표한 교과별(국어, 영어, 수학) ‘향상도 우수 100대 학교’에의 포함여부이다. 그러나 연구 진행과정에서 100대 학교만으로는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본원 교육평가본부의 2011년도 향상도 데이터에 근거하여 교과별 ‘향상도 우수 200대 학교’를 대상 학교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들 중 지역 유형과 분포를 고려하여 6개의 후보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각 2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2~3배수의 후보 학교들을 선정한 후, 선정한 후보 학교들이 속한 6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구성된 ‘학교선정위원회’를 통해 학교의 평균

성적, 과목편차, 기초미달비율, 사교육수준(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지역 여건), 교원의 진출입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유형별 2개교 씩 총 6개 학교를 확정하였다.

학업 성취 우수 일반고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특성은 어떻게 분석되었나?

각 학교의 특성 분석을 위해 학교별로 학교교육계획서와 같은 문서수집, 교장, 교감,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면담, 1~2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교과 대상의 10회~14회에 걸친 수업관찰, 수업교사와의 개별면담 및 수업 참여 학생 집단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자료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되었는데, 분석을 위해 연역적 추론의 방법과 분석적 귀납 방법을 병행하였다. 각 측면에서 분석된 우수 일반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학업 성취 우수 일반고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특성은 무엇인가?

우수 일반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측면’과 ‘교수학습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학교장의 리더십과 학교환경 등 앞의 두 측면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지원 측면’에서도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찰하였다.

[표 1.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6개 학교 특성 종합]

특성 \ 학교	A	B	C	D	E	F
(1) 학습수준 및 학생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 및 학생 특성 고려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수준별 수업 편성/운영 형태의 다양화	•세분화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내실화 : 진학/진로지도 강화	•학습수준, 적성,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목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강조
(2) 정서적 발달과 창의성 계발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운영		•특기적성 계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육 강화	•지적발달과 정서함양의 균형 잡힌 교육과정 운영	•악기와 체육활동 중심의 심성계발 프로그램 운영 •체험 및 봉사 활동의 실질적 운영

(1) 교육과정 측면

교육과정 측면에서 6개 학교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수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극심한 성적 편차로 인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B고등학교는 학기별로 학생의 만족도 전수 조사를 통해 수준별 수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과별, 학년별로 차별화된 수준별 수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C고등학교는 수학과 영어 교과에 한해 1학년 학습부진학생들에게 중학교 진도를 정리해 주는 기초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정규과정과 방과 후 및 방학 중 수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과 후에는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F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수준과 적성 등에 근거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자기주도성을 갖게 하는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전캠프에 이어지는 마법의 노트쓰기와 부모의 점검,

교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개개인이 비전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한편 일반고이니만큼 학교들은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A고등학교는 지역적 배경으로 인해 학교교육을 통한 학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과교육 중심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높여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D여자고등학교는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을 통해 1학년 때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며, 45개의 동아리별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과 대회 개최를 통해 모든 개별 활동들이 학생 개개인의 진학과 관련되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와 유사하게 E고등학교에서도 교과 심화학습 동아리, 진로 멘토링 데이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을 보장하고 있었다. 특히 B고등학교는 이러한 적성계발과 인성교육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동아리활동을 통해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실제로 동아리활동이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신장하고 진로·진학 설계를 도울 뿐만 아니라 협동심을 기르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우수 학교들은 앞서 동아리활동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창의성 계발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E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인지능력 뿐 아니라 인성과 정서적 소양 함양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 독서교육과 통합논술 프로그램, 교양·예술·예절교육, 인성 및 창의력발달 프로그램 등을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D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이중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보다 방점을 두고 독서교육, 토론수업, 논술지도를 강조하였으며, 평가에 있어서도 서술형 평가의 비율을 50%까지 높여 시행하고 있었다. 여느 학교와 유사하게 독서와 토론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교육과정에 융화되어 운영되었으며, 논술은 방과 후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F고등학교 역시 창의성을 강조하였는데, '창의의 원천은 즐거움이다'는 철학아래 '즐거운 학교'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를 위해 1인 1악기 연주와 합창, 테마 콘서트, 예술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학생의 정서와 창의성 고양을 위한 학교의 노력은 학생의 감성을 자극하며 학생과 교사의 친밀감을 형성시킴으로써 학생의 학교만족도를 높여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지원 측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지원 측면에서 6개 학교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수 학교들 가운데 학교장 리더십이 학생의 학업 성취와 교사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B고등학교와 F고등학교의 학교장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직접 점검하는 열정을 보였다. 전체 800명에서 1,100명에 달하는 전교생의 이름을 모두 외울 뿐 아니라 개별 학생의 성적과 교우관계까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기억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관심을 표함으로써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학교장의 노력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교 전체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D여자고등학교 학교장의 포용적인 자

세와 실질적인 지원은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주요 동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D여자고등학교의 관리자, 교사, 학생과의 인터뷰를 관통하는 주제어는 '존중' 이라 할 만큼 이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학교장의 포용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교사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학교장의 실질적인 지원 방식 또한 교사들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인이 되었다.

둘째, 우수 학교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개별적 특성과 노력이 아우러지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지원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문화와 관련된 특성들은 이미 상술한 특성들 속에 많은 부분 연관되어 제시되었고, 이 밖의 특징이라면 교사 혹은 교목과의 상담이나 기독교계 학교가 아니더라도 봉사 프로그램과 인성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있다는 것이 우수 학교들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은 학업과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상쇄하며 면학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수 학교들에서는 교내장학 활성화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학업 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B고등학교와 E고등학교는 교사의 전문성 중에서도 특히 실제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장학의 중점을 두고 있

[표 2.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6개 학교 특성 종합]

특성	학교	A	B	C	D	E	F
(1) 교사 및 학생 특성의 긍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교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열정과 주도권 학생 면담의 일상화 학생 간 자율경쟁과 안정감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책임감에 대한 학생의 신뢰: 상호 존중과 소통, 교사-학생 상담의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강한 사명감과 열정 	
(2) 수업 내적 요소의 효과적 활용: 수업 방법 및 상호 작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지식 활성화 및 새로운 학습에의 활용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 사용 실생활 관련 사례 제시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및 학생의 자아효능감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별 수업을 위한 유연한 수업 운영 지식 전달보다는 이해와 자발적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에서의 사례 (이야기, 구체물, 데모실험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확장 및 영역/기능 통합 수업 효과적인 교사의 수업 운영 능력: 소통능력, 학습자료 및 교수 전략, 수업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및 토론 수업의 정착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 실수를 허용하는 수업분위기
(3) 수업 외적 요소의 효과적 활용: 멘토링 및 개별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 멘토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일기 활용: 학생 자신의 이해 확인과 성찰 및 교사에 의한 학습 점검 교과멘토제 시행: 학생의 수업목표 달성 및 교사의 수업 운영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의응답실 설치를 통한 1:1 개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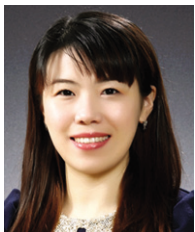
었으며, D여자고등학교는 진로교육, 상담, 논술지도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 교사는 있으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전문성의 부족을 느끼는 영역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F고등학교는 최근 들어 ‘교실 진단 기법’의 전문성 개발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수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어 교사 스스로의 변화 뿐 아니라 학생들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수업을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업성취 우수 일반고의 특성]

- 학교장의 리더십이 학생의 학업 성취와 교사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교내장학 활성화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했고 그것을 수업에 직접 적용했다.
- 학부모 및 지역 사회적 특성들을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다. 이것은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신뢰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우수 학교들은 학부모 및 지역 사회적 특성들을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었다. A고등학교, B고등학교, E고등학교, F고등학교는 모두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신뢰가 매우 깊다는 점, 따라서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는 이러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특히 A고등학교는 기독교학교라는 학교의 정체성 및 역할을 고려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C고등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 면담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수 학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유해환경과 지리적으로 격리된 학교의 위치라고 하였다. 이는 C고등학교가 이사를 오면서 주변에는 노령인구가 거주하는 작은 농촌마을 이외에 산과 구릉지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하교 때까지 학교를 벗어나기 힘들어 학교 안에서의 생활이 습관화 되었고,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운동장 덕분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전국 최초의 초·중·고 통합 기숙형 다문화 공립 대안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글 > 채 송 화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공교육, 다문화를 끌어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892명이었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2012년에는 2,468명으로 30.4%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64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시대적인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요



모든 교과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계 수업

인천한누리학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기본교육과정 50%와 특성화 교육과정 50%로 운영되고 있다. 특성화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습득을 위한 다양한 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모든 교과 시간에도 한국어가 연계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50%의 특성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도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교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

기 때문에이다. 교과마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습득을 위한 방법들이 배치된 데에는 학생들을 한시라도 빨리 일반학교 및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인천한누리학교는 한국어가 부족하고 기초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 자녀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일반학교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는 교육을 실시한 후 일반학교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학력 인정 학교이다. 학년 당 1학급으로 초등 6학급, 중등 3학급, 고등 3학급, 디딤돌 2학급 등 총 14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중·고 통합 기숙형 다문화 공립학교로는 전국 최초로 개교하였다.

다문화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함께 해 나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인천한누리학교의 선생님들은 지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거듭한 결과로 모든 교사들의 수업에서 한국어 연계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사회와 컴퓨터’ 수업시간에는 교재에 컴퓨터 용어들을 한글로 10번씩 쓰는 칸이 있고, ‘미술’ 수업시간에는 ‘노랑, 빨강, 파랑’ 등의 색 이름을 배운다. 또한 방과 후에는 EBS 방송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어와 교과 내용 등을 추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가 부족해 따라가기 어려운 교과 수업의 경우 학력 신장을 위해 모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멘토, 멘티 1:1 교육’,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도 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단위학교의 열정으로만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다. 유럽이나 아랍권 자원 봉사자가 없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언어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학교생활, 교우 관계, 학습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집단 따돌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천에도 다문화 중심학교가 몇몇 있지만 숫자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 다문화가정의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언어적인 문제뿐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자란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인천한누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도입국자 학생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외국에서 자라다가 한창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에 여기에 와서 문화적인 충격까지 받게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현재 인천한누리학교 학생의 80%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이 양아버지나 양어머니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순히 부모가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한번쯤은 결손가정을 경험한

아이들이 많은 것이다.

이중 언어가 가능한 상담 교사를 비롯한 모든 인천한누리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뿐 아니라 이러한 학생들이 심리적 결핍과 아픔까지도 세심하게 감싸는 치유의 교육을 하고 있었다.

다문화 학교, 같고도 달라요

강당에서 학생 조회를 하고, 방과 후에 학급을 청소하는 모습은 일반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디딤돌 반 담임인 주명진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생 조회나 청소를 교육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한다.

급식실의 풍경 역시 일반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학생 수가 적다는 것 말고는 일반 학교와 식단도 배급 방식도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주명진 교사는 “식단에 문화적인 차이를 적용하진 않아요. 다만 편식에는 조금 관대한 편이지요. 우리 학교의 목표가 학생들이 한국 학교와 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에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을 훈계하고 제재를 가할 때에는 선생님들 모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제재를 가하는 방식에도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잘못을 했다고 바로 혼내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점을 잘못된 행동으로 본다. 그러니까 너의 이런 점은 한국에서는 잘못이다. 한국사회에 적응하려면 이런 점은 알아야 한다.’ 하는 식이다. 바로 혼부터 내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다’는 반발심 때문에 오히려 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초등부 담임 조영철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킨 후에 추가로 더 물어봐 줘야 해요. ‘그럼 너희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니? 이런 행동은 너희 나라에서 잘못이니, 아니니? 잘못이라면 어떻게 혼이 나니? 혼이 날 때는 말로 혼이 나니, 신체적인 체벌이 있니?’ 등을 물어 보면 아이들이 자신이 경험해 온 문화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줘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맞추어 가는 것 같아요.”

인천한누리학교가 일반 학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왕따와 차별이 없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소외되었던 경험이 다들 있어서인지, 더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더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한다. 학생들끼리는 문화가 달라도 서로 그냥 인정한다고 한다. ‘너희는 그래? 우리는 이래.’라고 말이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로 즐겁게 떠들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서로 통하지 않아도 말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아이들이다.

인천한누리학교의 목표

인천한누리학교의 일차적인 목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교육하고,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돕는 것이다. 1년 후 원적교에 돌아가서 그들이 바라는 꿈과 이상을 실현하도록 하는 게 학교의 목표인 것이다. 박형식 교장은 인천한누리학교에서 학생들이 ‘사랑, 배려, 나눔’의 마음을 가져갔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목표와 소망을 밝혔다. 그는 개교 이래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학생들의 표정이라며, 청소년기 학교에서 느낀 사랑을 바탕으로 배려하고 나누는 올바른 성인으로 학생들이 성장하기를 소망했다.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을 가진 올바른 청소년,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싶다는 그의 의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비전을 갖고 한국의 귀한 인재이자, 민간 대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게 했다.

또한 인천한누리학교는 앞으로 다문화 교육의 모델이자 멘토로서 일반학교와 함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원적교에 돌아간 이후에도 일반학교와 한누리학교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학생을 이해하고 적응을 돕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와 인천한누리학교

- 보다 안정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선 재정적 안정성 확보 시급

인천한누리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설립되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인천한누리학교는 공립 대안학교로서 학교부지는 인천광역시에서, 건물은 교육부에서, 기숙사는 인천시청에서 지원받아 개교하였다. 현재도 남동구청 및 남동공단, 경찰지구대 등 지역 사회로부터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대부분이 일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학비라는 개념조차 없는 국가에서 온 학생들도 있다. 이미 사회적인 편견과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비나 기숙사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 속에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것이고, 미래에 글로벌 인재이자 민간 외교의 동량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학생들의 성장이 곧 인천 교육 및 인천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문화교육 논의의 장 마련

인천한누리학교는 현재 다문화교육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을 미리 준비해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13년 4월 19일 개최된 다문화교육연구회 총회와 제8회 인천다문화교육 지역사회 협의회가 바로 그것이었다.

인천다문화교육연구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연구학교, 거점학교, 글로벌 선도 학교 등으로 형성된 다문화네트워크 안에서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다. 이날 인천한누리학교에서 연구회의 총회가 열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사이버지원센터(<http://culture.ice.go.kr>)를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개발, 공유하고 함께 모여 공교육 안에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송영기, 장학사 박인배, 인천한누리학교 교장 박형식을 중심으로 인천시청 다문화정책과, 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인하대학교 다문화사회통합연구센터, 인천국제교류센터 글로벌 사업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문사, 어린이재단, 각 지역도서관, 인천지방경찰청, 사단복지법인 한국필벽재단 외 다수의 기관과 사람으로 구성된 '인천다문화교육 지역사회협의회'의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 2013년도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및 협력방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한누리학교와 연계하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실시되었다.



‘다름을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기반구축,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역량 강화,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고, 인천시청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기별 성장 지원 방법 등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인천광역시 관내 다문화 가정 초등 영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정 영재교육 지원 계획을, 지역 도서관들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독서 사업, 한글 사업, 한국 문화 알리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학교가 다문화 대안 학교

인천한누리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학교를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인천한누리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인천한누리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모든 학교에 다문화 학급 혹은 예비학급을 설치하여, 모든 학교가 다문화 대안 학교가 되는 소망을 가져본다.

조영철 교사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학교를 다문화 학교라고 칭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성이 달라도 다문화, 종교가 달라도 다문화거든요. 모든 학교가 다문화 학교라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라는 소망을 밝혔다.

박형식 교장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문화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라는 교육감의 말을 인용하여,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며, 마음으로 끌어주고 안아주는 교사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다양한 나이, 언어, 문화를 가진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사가 미래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교육적 소신과 바람을 덧붙였다.



다문화 교육이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져야 할 때이다.

청라 달튼 스쿨 이근혁 선생님 수업 참관기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자극하는 프로젝트 수업



글 > 최 남 현
연성중학교 교사

좋은 수업을 만드는 힘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좋은 수업을 갈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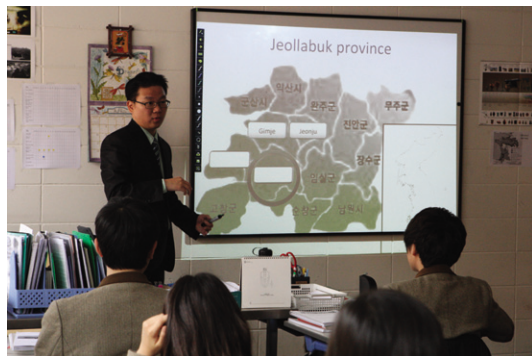
로그램을 듣기도 하고 공개 수업을 찾아다니며 수업 방법을 익히기도 한다. 때로는 교육 단체나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는 새로운 모형과 아이템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수업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을 종합하여 자신만의 수업으

로 만들어내는 실천적 지혜(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론네시스 Phronesis)를 생활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좋은 수업을 만드는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경험이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2013년 4월 11일 이근혁 선생님이 만들어 가고 있는 좋은 수업을 보기 위해 청라 달튼 학교 7학년(한국의 중학교 1학년) 역사과 교과 교실을 찾았다. 그가 영어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공교육 수업 개선의 방향을 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다. 그는 이번 수업에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좋은 수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블록타임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의 시사점과 수업 후에 함께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자극하라

이근혁 선생님이 영어로 진행하는 역사 수업은 교과 교실에서 블록타임 수업으로 75분 동안 진행되었다. 75분 블록타임 수업은 달튼 스쿨만의 노하우로 모든 교과 수업에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업은 소크라테스식 문답(introduction questions), 내용 탐구(lecture), 활동(activities), 프로젝트 타임(project time)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소크라테스식 문답을 통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내용 탐구 단계에서는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지도,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활동 단계에서는 개인 및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활동지와 프로젝



트를 완성한다. 프로젝트 타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지적 열정과 집단 지성을 발휘하도록 진행된다.

수업을 참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학생들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장소와 진행과정을 당시 고지도와 현재 전라북도 지도, 유적지 안내도와 현장 사진 위에 직접 기록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고부 관아, 말목장터, 황토현 전투가 일어났던 곳을 직접 찾아 표시하고 설명을 적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되었던 과정을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내용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지적 호기심, 열정을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수업이 가능한 것은 한 학급이 16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전자 칠판과 실물 화상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바로 보고 감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학습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블록타임 수업에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자극할 수 있도록 수업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사의 노력이다. 이근혁 선생님은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한국말로도 하기 어려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었다.



수업을 준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타임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달튼 스쿨의 75분 블록타임 수업이 주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습 내용(contents)과 결과물을 만드는 기술(skill)을 함께 가르치는 수업

블록타임 75분 수업 1차시를 준비하려면 3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영어 원서와 인터넷 자료들을 검색하고 분석하여 수업 교재와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이번 학기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뿐 아니라 외국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하거나 서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업 방법과 내용 구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된 동기는 블록타임 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contents)과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기술(skill)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달튼 스쿨의 모든 수업은 75분 블록타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과 기술을 함께 길러주는 균형 있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75분 블록타임 수업의 장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타임 수업이 아니라면 수업 내용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동시에 가르칠 수 없겠지요. 토론식 수업, 문제해

결 수업, 마인드맵을 활용한 수업처럼 내용과 기술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블록타임 수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블록타임 개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역사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나 노력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수학능력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학습 내용을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스스로 학습 내용을 토대로 프로젝트 성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성취감

프로젝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역사와 관련된 중심 테마 내용을 배우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의 기술(이번 학기에는 인터넷 자료 조사 방법과 파워포인트 제작하는 방법)과 결합하여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매학기 학습 내용과 더불어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술을 하나 이상 습득하게 되며, 자신이 창작한 학습 결과물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 결과 자료는 교과 교실에 축적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 안내와 방향 제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료 조사 및 인용 표시 방법, 구글 어스(Google Earth) 사용 방법, 프레젠테이션 방법도 함께 배우

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습 내용과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고 발표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매학기 수업 결과물을 축적해 나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한 프로젝트 결과물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cdsmichaellee.blogspot.kr/>)에 쌓이게 됩니다.



매학기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성취감입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학생들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둠 활동, 자리 배치 이동, 발표와 토론으로 인성을 자극하라!

이근혁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모둠 활동, 자리 배치 이동, 발표와 토론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자극하는 수업 방법이다. 학생들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모둠별로 서로 의사소통하였으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할 때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口’자 모둠 형태의 자리 배치를, 발표와 토론을 할 때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를 볼 수 있도록 ‘ㄷ’자 형태로 자리 배치 이동한 것도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블록타임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성취동기를 높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수업 전략이었다.



프로젝트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둠 활동, 자리 배치의 이동,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비교 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비교하여 탐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가 지적인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과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 간에 서로의 작품에 대해 부족한 점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혹시 갈등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지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나 생활지도를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수업 중에 자리 배치를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 간에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체류하다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주장과 비판이 강한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으로 따돌림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영어권 국가들의 문화적 분위기에 학생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제가 인성 함양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존중하도록 하는 태도입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더라도 그 학생이 어떤 점을 이야기 하는지 끝까지 경청하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의란 무엇인가?' 와 같은 주제를 정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생 활동을 할 때 'ㄱ'자 형태로 자리 배치를 바꾸는 것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서로 대면하여 의사소통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발표와 토론을 할 때 'ㄷ'자 형태로 자리 배치를 바꾸는 것 역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업이 변해야 학생이 변하고, 학생이 변해야 학교가 변한다

이근혁 선생님의 프로젝트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매학기 배운 학습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프로젝트 성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학업 성취감과 지적 열정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이야말로 우리의 공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교사들의 수업이 변해야 한다. 교사들의 수업이 변해야 학생들의 변하고, 학생들이 변해야 학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업 탐방에서 만나게 된 청라 달튼 스쿨의 이근혁(Michael Lee) 선생님은 역사를 가르치는 실천적 지혜와 노력, 경험을 가지고 자신만의 좋은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프로젝트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 다른 학생들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토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 스스로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한글은
한글은...
여원 삼삼년 윤철
이정우



참여와 어울림

- [시] 말의 꽃/ 쓰레기
광성고등학교 교사 최성민
- [교단수필]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천청량초등학교 교장 이기소
네 잎 클로버 편들기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장학관 김윤성
- [그림] 사나사 정원/ 금당계곡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이철희
- [사진]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생활사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지원과 정보보호팀 대리 김성수
- [나를 바꾼 한권의 책]
공직자의 동반자 목민심서
인천굴현초등학교 교장 김정제
- [인천교육 47호를 읽고]
인천심곡초등학교 교사 이주형/ 인천정각중학교 교사 안지연



글 > 최 성 민
광성고등학교 교사

말의 꽃

별을 받는 아이들,

누구나 한두 번 실수를 하고
그 우듬지 아무지고 단단해지는 아이들

금지(禁止)된 회초리 대신
읽기 좋은 시 몇 편을 외우게 한다

하루 종일 중얼중얼
天·地·玄·黃
사이사이 넘나들며
맛있는 말을 곹씹는 아이들

까맣게 박제됐던 글자들이
아이들의 입 속에서
말의 꽃으로 피어난다

손들고 서성이던 아이들도
사락사락 향기 나는 꽃으로 핀다
갑자기, 내 눈이 먼다.

쓰레기

절반은 시험시간이 절반도 지나기 전
머리를 처박고 희망을 거세당한 꿈의 나라로,
시험지와 힘겨루기 중인 눈이 영롱한 몇 놈들
등지고 벽에 박힌 낙서를 읽는다.

멈칫 가슴을 때리는 몇 개의 글자들
‘떨어지면 쓰레기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놈들의 맑고 고운 눈망울이 일렁이던 것이,
가슴을 웅크리고 늘 한기를 느꼈다던
녀석들의 살 떨림이 바로
그것이로구나.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는가
떨어져야 비로소 새 생명을 잉태시키고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직선을
생명이라 부르지 않는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글 > 이 기 소
인천청량초등학교 교장

미당 서정주 선생은 詩 '자화상'에서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八割)이 바람이다'라고 하였다. 빌게이츠는 어린 시절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남이섬 강우현 CEO는 마흔이 되었을 때 '내가 태어나서 백 일 동안 총명해지라고 밤에 별빛을 씌어 주었다'라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의 상상력의 원천은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 어느 해 보다 심하였던 추위와 많은 눈에도 결국 봄이 오고야 말았다. 산하가 눈부신 꽃이고 푸른 신록으로 곱게 물든 고향에 다녀왔다. 부모님 산소를 둘러보며 내 살아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 때는 모두가 많이도 가난했다. 그 가난은 그대로 내 일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크게 불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낭만쯤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것은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합리화가 가능한 시대였다. 그래도 '가난은 죄가 아니나 물려주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들로 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 공사장 일 등 여러 일들을 되느 대로 하며 아까운 젊음의 시간들을 소멸시켜 가던 어려운 시절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았고 희망이거나 꿈은 사치임에 틀림없는 그저 막막한 한 시절이었다. 가슴 저편에서 서러움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그 무엇들이 치밀어 옴을 느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의 날들이었다. 또 길이 없었다. 어렵고 힘든 2년여의 시간 속에서 나름의 길을 찾았고 그리고 묵묵히 걸어왔다. 과연 나를 일으켜 세우고 키운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너는 펜대 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거라.'

어머니는 바람으로, 소원으로, 아니 주술처럼, 아니 간절한 당신의 인생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다. 유년시절부터 내내, ‘공부해라, 그런 것은 하지마라’ 라는 말보다는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원 같은 것으로 몸으로 보여 주시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부터 없는 반찬에도 꼭 상에다 정성으로 밥을 차려 주셨다. 집에서 대접 받아야 나가서 대접 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어머니의 속내는 철이 들어서야 가슴에 담았다. 새벽녘 장독대에 정안수 놓고 빌고 계시는 모습에 ‘무얼 하세요?’ 하면 ‘응 그냥’. 하시었다. 그렇다. 나의 원천은 나를 키운 건 ‘바람’도 ‘도서관’도 ‘별빛’도 아닌 바로 어머니 가슴 저 깊은 곳에 있는 뜨거움이고 간절함이지 싶다. 나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이때였고 그 원천은 어머니의 간절함이었다.

요즈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어른들의 자녀 교육관이나 교육 이론과 방법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한 평생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거다 하는 절묘한 비책은 아니더라고 좋은 해결 방안마저 찾기 어려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곤 하니 말이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며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교육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첫째, 우리 학생들이 설레는 삶이 되도록 배려해 주자. 학교나 가정에서 가슴이 뛰고, 자꾸 생각이 나고,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기대가 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열정을 다 하도록 말이다. 매일 그러할 수는 없으나 가끔은 아니 아주 가끔이라도 스스로 미소 짓고 설레며 기다리는 마음에 여유와 열정을 갖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둘째, 우리들이 학생들을 보는 관점이 적절한지 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자.

- 있는 그대로 초등학생(또는 중고등학생)의 모습을 보는가?
- 멋지고 매너 있는 청년을 바라보는가?

- 품격 있는 어른을 그리는가?
- 지도자로 글로벌 리더를 상상하는가?

학생들의 인격과 미래의 큰 사람을 생각하는 학생관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좀 더 명료하고 진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나 가정교육의 방향과 속도는 적정한지 살펴보자. 방향은 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속도에 집착하고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자. 가르친 만큼 배운 것인지 배운 만큼 가르친 것인지, 머리로 사랑하는 것인지 가슴으로 사랑하는지도 성찰해 볼 일이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스토리텔링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힘을 길러 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과제라 이 봄에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두렵고 무거운 대지를 뚫고 기어이 일어서고야 마는 새싹들의 훌륭한 용기와 진정한 도전을 이들에게 기다리는 이유인 것이다.

지금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방향이 되고 있는 어머니는 평생을 약하신 몸으로 힘들게 지내시다 56세라는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연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34년에 세월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 보니 어머니의 그 아프고 고단한 삶이 꼭 역올한 한의 세월만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당신의 기원과 바람들이 환갑이 지난 아들 가슴에 또렷이 길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 살아계시니 말이다. 부모님 묘소를 둘러보며 이제는 그 모습조차 잘 떠오르지 않는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다.



네 잎 클로버 편들기



글 > 김 윤 성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장학관

자연이 계절에 순응하는 길목! 봄은 다시 찾아왔다. 뜰에 나직이 핀 들꽃, 작지만 오묘한 잡초의 향기, 모두 자연의 섭리 이기에 아름답다.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에 봄이 온다. 봄은 설레임과 만남의 계절이다. 교직이 주는 매력은 매년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다. 기대와 설렘, 첫 만남의 기쁨으로 가득한 삼월이 그래서 좋다.

꽃샘추위가 유난히 매섭게 느껴졌던 1993년 삼월 첫 학기가 시작되는 날, 17년의 일반학급 생활을 뒤로하고 초임시절 첫 출근 날처럼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신흥초등학교 특수학급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낯선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웬지 모르게 외판 섬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 나에게 상훈이라는 아이가 처음으로 화려하게 다가왔다. 형의 손에 끌려 특수학급으로 들어서는 녀석은 마른 체구에 눈은 며칠 굵은 아이처럼 초점이 흐릿하고 금방이라도 뛰쳐 나갈 것만 같았다. 그렇게 시작한 특수교육과의 만남은 백령도를 돌아 특수학교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21년째를 맞고 있다. 강산이 두 번 변했으니 길다면 긴 세월이다. 함께했

던 학생들의 티 없고, 속없이 웃는 모습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려온다. 이제와 돌아보니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생애의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모두가 꽃이다. 비바람에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지만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피어나는 꽃이다. 향기로운 백합 같은 아이, 탐스런 모란 같은 아이, 아름다운 장미 같은 아이도 있지만 들판에 핀 자그만 제비꽃 같은 아이, 울밑에 수줍게 피어있는 채송화 같은 아이도 있다. 백합만 있는 꽃밭, 장미만 있는 꽃밭이 갖가지 꽃들로 어우러진 꽃밭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자. 타고난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자 모양과 향기는 다르지만 모두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지 않는가? 학교는 갖가지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밭이다. 사회와 세상은 좀 더 큰 꽃밭일 뿐이다. 장애아는 다만 다른 모양과 색깔을 지닌 독특한 꽃이다. 세 잎 클로버 밭에 돌아나 행운을 뜻하는 네 잎 클로버일 뿐이다.

장애의 인식

봄이 무르익고 있다. 신록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 선글라스를 쓰고 신록이 깊어가는 산길을 달려 본 적이 있다.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 사물의 느낌과 색깔이 달라진다. 노란색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면 노랗게 보인다. 파란색을 쓰고 보면 파랗게, 빨간색을 쓰고 보면 빨갱게 보인다. 의심의 안경을 끼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반대로 사랑의 안경을 끼고 장애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장애인이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다가 왔다. 웬지 모르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게 된다. 머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몸은 한발 뒤로 향한다. 장애 인식의 현실적 수준이다. 장애 이해는 머리와 지식 이 아니다. 가슴과 손과 생활 속에서 인식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잠재적 장애인

장애에 대하여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메어슨(Meyerson)은 ‘장애란 한 개인에게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관에 의해 상대적으로 규정되어 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장애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장애자로 취급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자 중심의 획일적인 표준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기준을 ‘정상’이라 하고 이러한 표준에서 크게 벗어날수록 이상으로 보는 관습이 있다.

장애는 본인의 의지나 문제와는 별개로 개인에게 운명 지워진다. 본인 희망과 관련 없이 개인에게 부여된 장애는 일생동안 장애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고통과 명예를 잃어지게 한다.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 환경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요, 가족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장애자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원만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즉 어떤 집단의 정상분 포곡선을 이루는 필수 요소인 것이다. 여러 가지 장애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 세계에서는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과 동반의 세계에서는 더불어 잘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인과 사회에는 장애인이 협력과 동반의 틀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무성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아 교육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육체적·정신적 손상(impairment)으로 인하여 기능적 수행 능력(disability)이 평균 이상의 제한을 받아 사회적 적응과 통합에 제한(handicap)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적 조건을 지니고 태어난 장애인들은 특별한 제한 조건들 때문에 손상과 기능적 제한, 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일반인 중심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특수한 교육적 구조를 필요로 한다.

장애인들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대상이다. 따라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 학생(장애를 지니고 있으면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여 선정 배치된 학생)들의 요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특별한 교육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질적 운영체제로 학교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러한 질적 교육적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수교육 시스템이다. 따라서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 시스템은 모든 학교에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 그들의 요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그들의 요구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국가 사회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차원에서의 특수 교육적 평생교육이 일생을 거쳐 실현되어야 한다.



개별화교육

군에서 휴가를 나온 삼촌 김 병장에게는 귀엽고 씩씩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 조카 철수가 있다. 형이 없는 철수는 삼촌을 잘 따르며 같이 놀 수 있어 좋다고 기뻐한다. 마침 운동회가 얼마 남지 않아 달리기 연습 겸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했다. 끈질긴 조카의 요구에 삼촌은 철수와 함께 운동장으로 갔다.

출발선에 나란히 서서 100미터 달리기를 했다. 천천히 힘들이지 않고 달렸지만 23살의 김 병장과 3학년 조카의 달리기 경주는 심계계 삼촌의 승리로 끝이 났다. 삼촌은 어떻게 하면 철수에게 도전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리게 하고, 삼촌도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생각 끝에 경기방법을 바꾸어서 철수는 30미터 전방에서 출발을 하고, 삼촌은 30미터 후방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달리기를 했다. 둘 다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삼촌은 결승선에 거의 닿아서야 철수를 추월할 수 있었다. 간신히 이긴 것이다.

약이 오른 철수는 다시 하자고 재경기를 제안했다. 삼촌과 세 번째 달리기를 위해 출발했다.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고, 이번에는 철수가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였다. 철수는 환호하며 좋아했고 자신감과 성취감에 젖어 있었다. 좀 더 힘껏 달리면 추월할 수 있었지만 삼촌은 철수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승리를 양보한 것이다.

특수교육은 이런 접근방법을 원용한다. 특수교육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방법과 내용과 매체를 투입하여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인 것이다. 구성원 개개인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지를 제고하여 성취를 이루게 하는 과정 그 자체가 특수교육이라면 틀리지 않은 접근일 것이다. 특수교육의 양대 핵심 축인 개별화가 바로 그것이다.

통합교육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교육은 외진 곳에 따로 있지 않다.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적 수혜를 보장하고 아우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학습 환경은 장애인에게만 편리하고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특수학급은 학교도서관과 함께 학교의 문화 공간, 교육정보센터가 되어야 한다. 많은 지원과 자료가 필요한 학생들이기에 더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활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쾌적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들을 거리, 볼거리, 누릴 거리가 넘쳐나 학습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숲속에 있어야 건강하게 자란다. 인간은 사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 마땅히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하여 교육해야 한다. 태어나고 성장한 곳에서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학습하고 생활하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는 환경이다.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 장애인인 일반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설계에는 장애를 지닌 장애인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특별한 교육적·사회적 배려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특수교육의 도도한 물결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개별화 과정을 거쳐 통합교육의 장으로 가고 있고, 또 가야만 한다.

생활기능-직업전환교육

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과 능력이 부족하기 쉽다. 특히 지적장애 정서장애의 경우 신변자립, 생활자립, 독립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생활기본기능을 기르는데 긴 기간이 소요되므로 학령기에서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학생의 학습은 인

지적인 측면보다 대부분 현장에서의 활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적응과 일반화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은 이론과 지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현장중심, 체험중심으로 기능이 숙달되는 기간까지 지속적인 반복학습을 요구한다.

장애학생은 졸업 후 사회의 전환 및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어려운 형편이다. 즉 변화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과 직업수행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육도 전환과 직업, 생애, 진로 전반에 걸친 교육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개별화와 통합을 위한 제반 기능들이 직업재활로 이어져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과 생의 보람을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과 특정성

특수교육의 양대 핵심 키워드는 개별화와 통합화이다. 개별화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 요구 정도에 부합하는 적절한 교육을 전제로 추진하는 방향이다. 반면 통합화는 일반화를 지향하고 적응을 담보하는 개념이다. 특수학교는 개별화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통합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제한을 받기 쉽다. 특수학급은 통합화를 추구하기 좋은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은 개별화와 통합화를 모두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직업교육과 전환교육이다. 직업과 전환은 개인적 기능과 태도가 수반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궁극적인 목표는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인 통합이다. 따라서 특수교육

은 특수해야만 하는 개별화의 당위성과 특수하지 않아야 하는 통합화의 조화를 통한 전환교육과 직업교육으로 꽃피우고 열매 맺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만인을 위한 교육이다. 모든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 균등한 교육, 질적인 교육을 전제한 학교의 재구조화 과정이요, 질적 운영 체제를 담보한 교육방법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교육적인 요소와 방법, 그에 따른 모든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은 증대되어 갈 것이다.

앞으로의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의 큰 흐름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통합교육은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의 개인 교사 수준에서 시도하는 한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적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교육은 물리·환경적인 통합에서 벗어나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개별화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체제가 절실하다.

무리 속에 섞여 있는 네 잎 클로버가 봄별을 받으며 어울려 자라고 있다. 이 땅에 또 다른 네 잎 클로버 장애아들이 편견과 차별이 사라진 세상에서 환하게 웃으며 뛰놀길 바란다. 개나리가 지천인 봄 언덕에 네 잎 클로버들을 위한 사랑의 노래가 울려오는 봄이다.

교육의 비결은 상호 존중의 묘미를 알게 하는데 있다.
- 아인슈타인 -





그림 > 이 철 희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사나사 정원



금당계곡



스마트폰 카메라와 함께 하는 생활사진



글 > 김 성 수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지원과 정보보호팀 대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는 찍고 싶을 때 내손에 있는 카메라이다”

어린 시절 처음 아버지께 낚은 필름카메라로 사진을 배웠을 땐 마치 사진작가라도 된 것인 양 이것저것 열심히도 찍었습니다. 동네사진관에 필름을 맡기고 인화되기까지의 기다림은 항상 행복했던 추억으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꼬마아이의 열정만큼은 아니지만 언제든 소소한 일상을 담아 낼 수 있는 나만의 카메라 한 대가 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입니다.

나날이 높아져가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려한 스펙들, 자유로운 표현을 도와주는 어플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

다. 그러다보니 사진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평범한 직장인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개인 사진전을 열기도 하고 실험적이나마 영화를 찍기도 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능을 자랑하는 DSLR카메라에 비해 스마트폰 카메라는 분명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 휴대하고 다니면서 자유로운 각도를 잡고 거리를 조정하고 순간의 상황을 잘 잡아챌 수 있는 스마트폰만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소소한 일상 사진을 담아내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길거리, 하늘의 구름, 점심시간 산책길과 같은 일상을 스마트폰 카메라 앵글로 멋지게 담아보세요! 마음의 여유와 평화가 바쁜 일상의 한켠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우리를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잘 찍는 방법 10가지!

1. 빛을 잘 확인 하세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 성능과 여러 이유로 한낮의 강렬한 빛 보다는 이른 오전 또는 오후 3~5시쯤의 은은한 빛에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인물사진 역시 흐린 날과 같이 은은한 빛에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강하면 표정도 찡그려져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칫 노출이 오버된 사진을 찍게 됩니다.

2. 화면의 가운데에 피사체를 놓지 마세요.

피사체가 화면의 가운데에 있으면 시각적으로 답답한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피사체를 살짝 좌측이나 우측에 배치하고 찍으면 안정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세로로 3등분해서 1/3라인에 맞춰 찍어보세요)

3.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적극 활용 하세요.

어플을 활용하면 포토샵 같은 복잡한 후보정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사진 효과를 바로바로 적용시켜 보면서 세련된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추천 어플 : 푸딩카메라, 라인카메라, Instagram 등

4. 잘 고정하고 찍어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팔꿈치를 몸 쪽으로 끌어 당겨 자세를 안정적으로 해주세요.

5. 다양한 앵글로 찍어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수평으로, 근접해서....., 늘 보는 시각이 아닌 낯선 앵글을 자유롭게 시도해 보세요. 분명 색다른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플래시를 꺼주세요.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7. 밝은 곳에서 찍으세요.

스마트폰은 CCD센서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조금만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흔들리고 노이즈가 심한 사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8. 줌(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마세요.

줌 기능을 사용할 경우 화질 저하가 매우 심해지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확인해보면 픽셀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카메라에는 줌 기능이 없다 생각하고 발 줌을 이용해서 좀 더 다가가 보세요.

9. 피사체 주변을 단순하게 배치하세요.

사진 안에 여러 가지를 다 담으려 하지 마세요. 사진 속 피사체는 뺄 수 있는 것은 되도록 빼고, 배경도 최대한 깔끔하게 한 뒤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제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할수록 강렬해 집니다!

10. 반드시 렌즈를 닦아주세요.

스마트폰은 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렌즈에 지문이나 먼지가 많이 묻어있을 수 있습니다. 렌즈를 닦지 않으면 사진이 뿌옇거나 특히 밤에 불빛을 찍을 때 빛이 퍼져나와 좋은 사진을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 어플은 어느 메뉴에 위치하고 있나요?

메뉴 깊숙이 위치한 카메라 어플을 바탕화면 '카카오톡' 옆에 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

예쁜 피사체를 찍으면 예쁘게 나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생활사진

▼ Pretty Woman



▼ 상 - 퇴근길 석양 ▼ 하 - 문학야구장에서



▲ 겨울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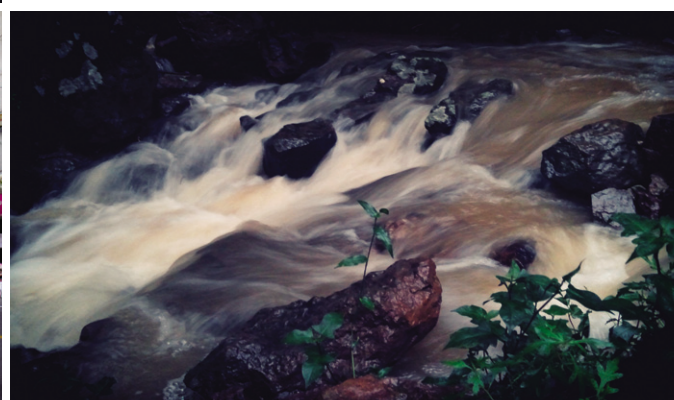
▲ 빛을 품은 자전거



◀ 오후 창 밖 시선



▲ 상하이거리



▲ 바람계곡



〈나를 바꾼 한권의 책〉

공직자의 동반자 목민심서!



글 > 김 정 제
인천굴현초등학교 교장

독서는 달을 보는 것과 같다!

독서의 중요성과 유익함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나는 독서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삶, 성공한 삶, 의미있는 삶을 영위한 사람들은 모두 독서를 통하여 배움과 깨달음을 실천한 사람들이다. 이는 공자 같은 성현들이나 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복자로 이름은 떨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도 독서광이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독서가 인간의 가치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핵심 활동이며 지름길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거나 살아남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독서는 진학과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버리고, 직장인들은 독서와 멀어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대부분 직무상의 필요나, 재미있다는 소문을 타는 소셜책 한두 권을 읽는 것은 제외하고는, 독서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취미생활이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소일거리로 치부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책은 평생을 함께 할 지기이며, 독서는 삶의 참된 가치를 높여주는 진정 의미 있는 활동이다. 설령 같은 책을 읽는다 해도 읽는 사람의 경험과 연륜, 이력에 따라 이해와 느낌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인 활동인 것이다.

중국의 세계적 수필가 임어당에 의해 청나라 때 장조가 지은 것으로 밝혀진 ‘幽夢影(유몽영)’에는 독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少年讀書 如隙中窺月 : 소년의 독서는 틈새로 달을 보는 것과 같고,

中年讀書 如庭中望月 : 중년의 독서는 뜰 가운데서 달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老年讀書 如臺上玩月 : 노년의 독서는 누대 위에서 달을 구경하며 즐기는 것과 같다.

공직자의 필독서 목민심서

최근 내가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심취하고 있는 동양 고전 가운데, 예전과는 전혀 색다른 느낌과 감동을 받은 책은 단연 ‘목민심서(牧民心書)’이다. 목민관¹⁾으로서 지켜야할 준칙을, 자신의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유배 생활 중에 저술한 목민심서가 다산 선생이 남긴 불세출의 명저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목민심서를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특별히 공직자들의 필독서라고도 하는 목민심서는 당시의 정치제도는 물론, 관리들과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상세하게 알 수 있고, 당시의 사회상과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전해주고 있어 공직자는 물론, 누구나 읽어보기를 재삼 권하고 싶은 책이다.

보기 드문 체계와 구성

목민심서는 12綱(강)²⁾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강마다 6조씩 총 72조로 구분하여 목민관의 생활을 총망라하고, 그 책무와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을 수령이 지켜야할 지침을 밝히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관리들의 폭정과 각종 비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비판하고, 백성의 상황, 서리의 부정, 토호의 착폐, 도서민의 생활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수령의 생활과 책무 뿐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비롯한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울 같은 저서이다.

‘심서(心書)’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흔히 목민심서를 지방 관리들이 고을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침서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오히려 백성의 입장에서 수령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보면서 다산의 인본주의 사상과 애민정신을 절절히 느낄 수 있다. 그 많은 내용들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는 만큼 부분적인 주요 내용만이라도 언급하여 읽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사치스러운 행장은 어리석음의 발로!

1강 부임(赴任) 편은 목민관으로 발령을 받고 고을로 부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除拜(제배 : 수령에 임명됨), ②治裝(치장 : 행장 꾸리기), ③辭朝(사조 : 하직 인사), ④啓行(계행 : 부임 행차), ⑤上官(상관 : 부임), ⑥蒞事(이사 : 집무의 시작)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부임에 관하여 이처럼 세세하고 의미있게 기록한 글을 보지 못했다. 부임육조 중 2조 治裝(치장) 가운데 한부분의 내용을 소개해 본다.

治裝(치장) 其衣服鞍馬(기의복안마) 茲因其舊(병인기구) 不可新也(불가신야) :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말은, 모두 헌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부임을 위해 떠날 행장을 너무 사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고, 비용을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만 청렴하고 청렴해야만 자애로울 것이니 이 검소야말로 목민(牧民)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산뜻한 옷차림에 고운 것을 쓰고, 좋은 안장에 날랜 말을 타고 위풍을 떨치면서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지만, 늙고 경험 많은 아전은 먼저 신관(新官)의 의복과 말 장식을 묻고 만일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면 비웃지만 만일 검소하고 허술하다고 하면 놀라면서 두려워한다. 거리의 어린애들이야 부러워할 줄 모르지만, 식자들이 비루하게 여기니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남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줄 착각하고 있지



만,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미워한다. 자기 재산을 털어다가 자기 명예마저 손상시키고, 게다가 남의 미움까지 사게 되니 이 또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무릇 사치스러운 짓은 어리석은 자나 하는 것이다.

명나라 사람 해서(海瑞)가 남총헌(南總憲)이 되어 처음 부임할 때, 겨우 상자 두개를 휴대하여 배가 강안에 닿아도 사람들이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 한번은 병이 들어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방 안을 둘러보니 깔고 덮는 이부자리가 모두 흰 베로 쓸쓸하기가 가난한 선비 이상이였다.

영조 때 사람 참판 유의(柳誼)가 홍주목사(洪州牧使)로 있을 때, 찢어진 갓과 굵은 베도포에 간장 빛깔의 낡은 띠를 두르고 느릿느릿한 말을 탔으며, 이부자리는 남루하고, 깔고 자는 요나 베개도 없었다. 이런데도 위엄이 서서 형벌을 쓰지 않아도 교활한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몸을 다스리는 원칙 율기

2강은 율기(律己) 편으로 '몸을 다스리는 원칙'이란 뜻이다. 율기편에는 목민관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을 ① 飭躬(칙궁 : 단정한 몸가짐) ② 清心(청심 : 깨끗한 마음가짐) ③ 齊家(제가 : 집안 다스리기) ④ 屏客(병객 : 손님 사절), ⑤ 節用(절용 : 절약생활) ⑥ 樂施(낙시 : 즐거운 베품)으로 서술되어 있다.

公事有暇(공사유가) 必凝神靜慮(필응신정려) 思量安民之策(사랑안민지책) 至誠求善(지성구선) : 공사에 틈이 날 때,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여 고요히 생각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헤아려, 지성으로 잘 되기를 구해야 한다.

치현결(治縣訣)에 말하였다.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 한 글자 뿐이다. 의(義)를 두려워하고, 법(法)을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흑시라도 방자하게 됨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 허물을 적게 할 수 있다.』

정관정요(貞觀政要)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벼슬살이하는

데에 석자의 오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맑음이고, 둘째는 삼감이고, 셋째는 부지런함이다.』

여씨(呂氏) 동몽훈(童蒙訓)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임금 섬기기를 내 아버이를 섬기듯 하고, 아전들 대하기를 내 하인 처럼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내 처자처럼 하며, 공무 처리하기를 집안일처럼 한 뒤에야 내 마음을 다한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진한 일이 있다면, 이는 내 마음을 다하지 않았음이 있는 것이다.』

송나라 한기(韓琦)가 개봉부(開封府)의 추관(推官)이 되어 일을 처리하면서 게으르지 않아서 더운 철에는 땀이 흘러 등을 적셨다. 부윤(府尹) 왕박문(王博文)이 중히 여겨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앞으로 좋은 벼슬자리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백성 다스리기를 이와 같이 하니 참으로 재상의 그릇이다.』

공문서 관리와 보고는 신속 정확하게

3강은 봉공편(奉公篇)으로 ① 宣化(선화 : 바른 교화), ② 守法(수법 : 법을 지킴), ③ 禮際(예제 : 예로 교제), ④ 文報(문보 : 공문과 보고), ⑤ 貢納(공납 : 공물 납부), ⑥ 往役(왕역 : 출장 근무)으로 구분하여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절대군주인 임금이 통치하던 당시와 민주사회인 오늘날의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정약용 선생의 민본주의와 애민사상, 투철한 책임감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지방 관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임금 즉, 중앙정부의 뜻을 백성에게 잘 알리는 일이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경우 중앙에서 교문(敎文)이나 사문(敎文)과 같은 공문서를 각 고을로 내려 보냈지만 글이 너무 어려워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목민관은 이것을 쉽게 풀어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목민관은 법을 준수하는 한편 그 지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힘써야 한다. 공문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처리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여 아전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해야 한다. 외국 선박이 표류해 들어온 경우에는 예의를 갖추

잘 보살펴 주고, 그에 관한 모든 것(배의 모양, 크기, 문자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종은 점을 보고 배우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봉공편의 주요 내용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구제에 정성을 다하라!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애민(愛民) 편은 ①養老(양로 : 노인 우대), ②慈幼(자유 : 어린이 사랑), ③振窮(진궁 : 빈민 구제), ④哀喪(애상 : 상에 대한 애도), ⑤寬疾(관질 : 병자 구호), ⑥救災(구재 : 재난 구조)로 구분되어 있다. 목민관은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4궁(窮)³⁾을 구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합독(合獨)이라 하여 목민관이 홀아비와 과부를 재혼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점이다. 초상이 난 집안은 부역을 덜어주고, 병자에게 의지할 곳과 살길을 마련해 주며, 자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하되,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성스럽게 구호하고 위로하도록 하고 있다.

其害既去(기해기거) 撫綏安集(무수안집) 是又民牧之仁政矣(시우민목지인정의) : 그 재해가 사라지고 나면, 어루만져 주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하는 것이 수령의 어진 정사이다.

정조 때 김희채가 장련현감이 되었는데, 때마침 홍수로 구월산이 무너져 매몰된 것이 30리나 되어 사람이 다치고 곡식밭이 손상된 것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공이 밖에 나와 보자, 백성들은 그를 맞아 통곡하므로 공도 말에서 내려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통곡하니 백성들은 감격하여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였다. 올음이 몇자 백성들에게 소원을 묻고는 곧 산을 내려와 감영으로 달려가서 백성들의 소원을 다 중앙에 보고하고 요구하기를 종일토록 다투었다. 감사는 이를 괴롭게 여겨, ‘그대는 어질기만 할 뿐 일은 어둡다’ 하고 장계(狀啓)를 올려 유능한 자와 바귀 줄 것을 청하니, 조정에서는 안협현감(安峽縣監)과 바꾸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공이 벼슬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자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말굴레를 잡은 채 열겹이

나 둘러싸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촌가에서 10여일을 묵다가 백성들의 방비가 조금 해이해진 틈을 타 밤에 몰래 빠져 나와 도망해 돌아갔다. 그러자 백성들은 경계에 모여서 어린애가 어미를 잃은 듯이 통곡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백성을 다스림은 어짐에 있는 것이지 정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르고 청렴한 공무 수행!

5강인 이전부터는 각 방의 세부 업무관리와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당시 지방 행정은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육방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수령은 이를 통괄하는 책임자였다. 이전 편에서는 아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목민관 자신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점과, 아랫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문이 뛰어나도 아전을 단속하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고,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우선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알아야 한다. 관리를 채용할 때는 첫째 기준으로 충성과 신의를, 다음으로 재주나 지혜를 보아야 한다. 관리가 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공적을 따져 상벌을 주어야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호전(戶典) 편에서는 조세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말하고 있다. 소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 징수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만큼, 정약용은 이 점을 비판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해마다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부패를 막고 정당한 납세를 위해 호적을 정비하여 비리 방지에 힘써야 한다. 국가경제의 근본인 농업을 장려하여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역을 줄이고 토지 개척을 장려하는 한편, 목축과 양잠 장려, 소의 도축을 막는 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전(禮典) 편에서는 제사와 손님 접대, 교육, 신분 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미신적 풍습은 계몽하여 버리도록 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공부를 권장하여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것도 목민관의 책무이다.

병전(兵典) 편은 군대를 양성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병역 의무 대신 옷감을 내고 면제를 받는



당시의 제도에 부정이 많았다. 목민관은 이런 부정을 가려내어 가난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병기들을 수리하고 보충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며,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형전(刑典) 편에서는 재판과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은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악한 뒤 신중하게 판결하고, 특히 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내릴 때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거짓으로 남을 고발한 사람은 엄하게 다스리되, 예로부터 어진 목민관은 형벌을 약하게 했으니 지나친 형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옥에 갇힌 죄수에게는 잠자리와 식량을 마련해 주되, 폭력을 일삼은 흉악범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

공전(工典) 편은 산림과 수리시설, 환경미화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목민관은 산림을 율창하게 하고, 농사를 위한 수리시설을 잘 관리해야 한다. 지방 토호들이 제멋대로 저수지를 만들어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행동을 막고, 길을 만들고 건전한 공업을 육성해야 한다.

재해에 대비하고 구제에 앞장서라

5진황(賑荒) 편에서는 재해를 대비하여 준비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저축과, 창고의 식량 파악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위급할 때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다. 백성 구제는 적절한 시기와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구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해로 집을 잃은 백성들에게 쉼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해 주고, 구제가 끝나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어야 한다.

선비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마지막 해관(解官) 편은 목민관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와 그 이후의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遞代(체대 : 벼슬이 갈림), ② 歸裝(귀장 : 돌아가는 행장), ③ 願留(원류 : 유임을 원함), ④ 乞宥(걸유 : 용서의 요청), ⑤ 隱卒(은졸 : 사후 애도), ⑥ 遺愛(유애 : 남기는 사랑)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자리에 연연하거나,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떠나는 것을 슬퍼하여 백성들이 길을 막아선다면 훌륭한 목민관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오랜 병으로 늙게 되면 스스로 거처를 옮겨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죽은 뒤에라도 백성들이 내는 돈을 받지 않도록 유언으로 미리 명해 두기를 주문하고 있다.

既去而思(기거이사) 樹木猶爲人愛惜者(수목유위인애석자) 甘棠之遺也(감당지유야) : 떠나간 뒤에도 사모하여 그가 노닐던 곳의 나무까지도 사람들이 아끼게 되는 것은, 감당(甘棠)⁴⁾의 유풍(遺風)이다.

송의 신중보가 팽주지주(彭州知州)가 되어 길가에 버들을 심었는데, 보곶류(補闕柳)라고 이름하였다. 그가 선정을 베푼 결과 이순(李順)의 난리에 백성들이 '보곶류를 다치지 말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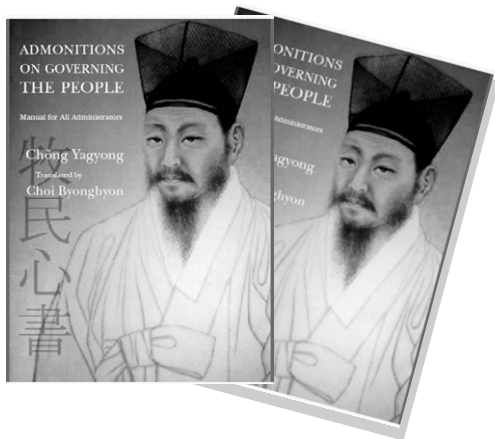
당의 이석이 우성령(虞城令)이 되었는데, 관사에 버드나무 세 그루가 있어, 공이 왕래하며 쉬었다. 뒷사람이 버들을 베지 않고 감당(甘棠)에 견주었다.

구준(寇準)이 파동지현(巴東知縣)이 되어 훌륭한 정사가 많았다. 잣나무 두그루를 손수 고을 뜰에 심었는데, 지금까지 백성들이 감당에 견주어 내공백(萊公柏)이라고 한다.

남일(南佚)이 칠원현감(漆原縣監)이 되어 유애(遺愛)가 있었다. 후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가 심은 나무를 가리켜 '남정자(南亭子)'라고 한다.

나를 다듬는 지침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간 유배 생활 중에 저술한 책으로 공직자로 부임하여 물러날 때까지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보며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명저이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공직자에게 지침서로 손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불변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 또한 남은 임기 동안 목민심서의 내용을 되새기며, 평생 걸어 온 공직생활을 반추하며 가다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목민관 : 백성을 기르는 벼슬아치란 뜻으로, 고을의 원이나 수령을 이르던 말

2) 12綱 : ①부임(赴任), ②율기(律己), ③봉공(奉公), ④ 애민(愛民), ⑤ 이전(吏典), ⑥ 호전(戶典), ⑦ 예전(禮典), ⑧ 병전(兵典), ⑨ 형전(刑典), ⑩ 공전(工典), ⑪ 진황(賑荒), ⑫ 해관(解官)으로 구성되어 있다.

3) 四窮(사궁) :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

4) 甘棠(감당) : 감당은 팔배나무로 옛날 소공(召公)이 남쪽지방에 가서 이 나무 밑에서 송사를 처리하였는데, 백성들이 그를 생각하여 떠난 뒤에도 잘 보전 했다고 한다.



〈인천교육 47호를 읽고〉

진정한 교사의 역할을 생각하게 한 책



글 > 이 주 형
인천심곡초등학교 교사



학생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는 인천교육 47호는 진로·진학 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특집 I의 〈미래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진로·진학 교육〉에 소개된 ‘교육의 미래비전과 전략’에서는 지식기반사회 이후 도래할 드림소사이어티에서 촉망 받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보편적 학습을 실현하는 사회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교육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변화(진화) 격차 위기에 대비하고 국가적 필요와 수요자의 필요의 공분모를 확대하며 교육내용이 ‘고정된 내용’으로부터 ‘유동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교육자신감에 근거한 교육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은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었다.

기획특집 I 중에서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는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현장 중심 진로교육 정책은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 설정, 진로진학 상담 교사 제도의 도입과 역할,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진로교육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교육과정 전체에 스며드는 과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은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

며 초등학교에도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현장의 문제점을 잘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꿈을 실현하는 인천의 진로교육’에서 소개된 인천진로교육의 추진 과제는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진로교육을 위한 인천시 교육청의 추진 방향을 알 수 있는 글이었다. 인천 진로교육 추진과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교육의 내실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용으로 진로교육 강화,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 진로교육 서비스 강화,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이며 향후 질 높은 진로교육을 위해서 학교 단위의 체계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은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을 위해 현장 교사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획특집 Ⅱ의 〈학교 문화 개선을 통한 바른 인성교육〉에 소개된 ‘학교 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에서는 ‘학생들의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 문화로 탈바꿈’ 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교를 하나의 사회적 체제로 보고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갖는 태도를 ‘보호 감독적인 태도’와 ‘인본주의적 태도’로 제시하고 각각의 학생 지도관에 따른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보호감독적인 학교문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참여, 학교자치,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며 자치역량을 키우고 동아리와 봉사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은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인성교육을 반영한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의 일환인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대해 학교급 별로 자세히 다루어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초등학교 교육목표 전문 개정에서 ‘바른 인성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에서 이제 인성교육이 더 이상 가정·사회·학교가 서로 미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육목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뿐 아니라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교육과정 속 인성교육의 주요 관점과 내용이 공고히 된 것은 교육과정 속 인성교육 실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획특집 Ⅱ 중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서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것만을 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교사가 먼저 행복을 알아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지적은 교사로서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학교문화개선은 교사 개인이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의 프레임과 삶의 패러다임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교사의 역할은 학생 개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적 동기를 유발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교육 47호를 읽고〉

현장에 **희망**의 싹을 틔우는 책이 되길...



글 > 안 지 연
인천정각중학교 교사

을 초에 모방송국에서 제작한 「학교의 눈물」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자살한 권승민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 어머니의 오프닝은 어떤 영화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고, 고통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움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 왔다.

또 다른 학교 이야기. 드라마 「학교 2013」이 떠오른다.

드라마 속 아이들에게는 웃음이 없다 그들은 폭발하기 직전의 분노를 품고 친구를 누르고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 청소년기에 품어야 할 미래에 대한 희망, 꿈은 꿀 여유조차 보이지 않는다. 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키워내는 곳이 되지 못하고,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기만 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의 눈물은 그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학교의 눈물」로 돌아가 보자. 「학교의 눈물」 3부에서는 학교폭력 해법으로 스웨덴의 특별한 교육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결론은 인성교육에 있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경청하는 훈련을 통해 친구들과 차별 없이 대화하는 법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었다. 모든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도록 기회를 주고, 서로 존중해야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이 문제의 해결방법이었다.

작년 가을 즈음에 북유럽의 교육제도와 학교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적이 있었다. 우리와 너무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편리하고 예술적인 학교시설, 그 속에서 마음껏 뛰노는 학생들의 여유 있는 모습은 올바른 인성교육 속에서 창의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의 본질, 그것이였다.

이렇게 인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세련된 『인천교육』의 표지그림과 그 안에 담겨진 기획특집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바른 인성교육”은 이 책을 펼쳐보기에 충분했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방안, 인성교육을 반영한 교육과정 분석에서부터 학교문화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학칙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해 학교 문화를 개선한 사례는 유익한 정보로 다가왔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이 1년 동안 학급아이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했는지를 현장감 있게 써 내려간 글이 나의 시선을 붙잡았다.

여러 설문과 실태조사를 통해 학기 초 학급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단하고, 좋은 학급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자아존중감 프로젝트’, ‘애플데이’, ‘숨은 끼 발표해요’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속에 쌓아둔 마음속의 분노와 짐들을 그때그때 풀어내고, 자신을 돌아보는 활동이 소개되어 있었다.

조벽 교수는 인성이란 구체적으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고 바르게 처리할 줄 알며,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인성교육의 시작이며 출발이다. 그것이 학교에서 강화되어야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러기에 인성교육을 실천하신 선생님의 글은 현장의 교사로서 더욱 공감할 수 있었다.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교실이었기에 부평남초등학교 남미란 선생님의 아이들은 더욱 행복하지 않았을까?

또 한편의 현장감 있는 글로 정보광장 코너에 있는 신흥중학교 창의경영학교 운영사례가 인상적이었다. 그 학교의 교사들은 연령이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 학교운영에 대해 자체 분석하고 발표하는 소통의 기회를 갖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이상적이었다. 또한 행정전담교사가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교사에게 연구의 시간을 보장해준 것, 그리고 학생수가 적은 이 학교의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N+2제도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소수의 학생으로 학급을 운영하는 과정이 개개인의 성취수준과 만족감을 높여 가는 창의경영의 실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율성과 자발성을 주는 것! 교사에게나 학생에게 매우 좋은 시도이며, 한 발자국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소통과 배려를 통해 교사들이 내적 동기를 충족시키고, 자신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연수를 찾아서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에너지와 자기연찬 결과를 학교 교육활동으로 다시 투입할 수 있는 발전된 학교문화가 김태용 교장선생님의 글을 통해 느껴졌다.

참여와 어울림 코너에서는 학산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쓰신 ‘초보 학부모로 첫발을 내딛는 처음의 마음’부터 학교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소통과 참여, 사랑의 과정’을 써내려간 글을 읽으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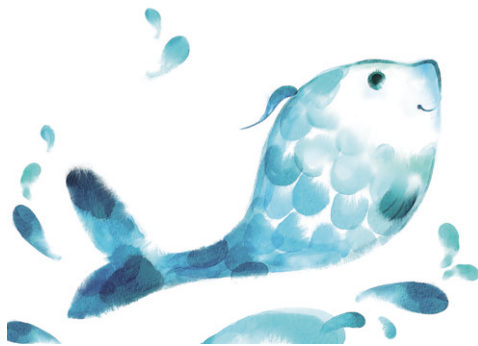


제한된 인력과 조건 속에서도 짜임새 있는 기관지로 탄생한 『인천교육 47호』를 읽으며 교육이론, 행정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부터 현장 사례와 이야기들, 마음의 힐링과 지적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코너까지……. 유익하고 진중한 정보들을 가득 쌓아 안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인천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의 대표 간행물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담아 본다.

요즘 교육의 화두로 떠오르는 진로·진학교육과 인성교육을 기획특집으로 선정한 것은 시기적절하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큰 주제를 기획특집 I, II로 선정하여 풀어가다 보니 실로 그 방대한 양에 쉽게 손이 가지 않고 마치 딱딱한 소논문을 읽는 듯한 부분이 있었다. 주제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다보니 글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성과 현장성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집주제는 줄이고 독자로 하여금 접근이 쉽도록 친근감 있는 글과 내용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필요할 때 찾아 읽고, 다른 이에게 권유하고 싶은 기관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한 편집 시 내용에 따른 사진이나 시각화된 자료, 즉 도표나 그래프 등을 적절히 삽입하여 한눈에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가 눈에 들어오도록 한다면, 가독성이 생명인 간행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육현장의 화두를 집중탐구·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성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는 책! 그래서 궁금하여 읽고 싶고, 어려운 교육현실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는 명품 인천교육 48호, 49호가 나오길 소망하며, 함께 발전하는 교육현장을 기대해 본다.



선생님의 멋진 수업을 지원하는 **EDU-I**



<http://www.edu-i.org> 에듀아이

1. 수업 자료 2. 교수용 S/W 3. 연구대회 및 연구학교 성과물

4. 고품질의 영상 자료제작 서비스

- ◎ 우수 수업 동영상 : 수업모형 중심 우수 수업 교과별 서비스
- ◎ 교육영상 자료 : 인천의 문화재 특성학교 학과 및 산업분야 직업 안내 자료

5. 수업용 이미지 사진 자료 DB시스템 『imageBOX』 서비스
(<http://imagebox.edu-i.org>)

6. 인천교육 『e-book』 서비스 실시 (<http://ebook.edu-i.org>)

